

제427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7월29일(화)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인사청문회

상정된 안건

1.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인사청문요청안 1
2.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인사청문회 1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맹성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종선 행정실장입니다.

다음은 김은표 입법조사관입니다.

문정원 입법조사관입니다.

김유림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인사청문회

(10시06분)

○위원장 맹성규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무위원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을 검증함으로써 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가를 사전에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와 교통정책 등 국민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정책을 총괄하는 만큼 국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국토교통부장관에 공직후보자가 적임자인지 오늘 청문회를 통

해서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인사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먼저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공직후보자로부터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29일

공직후보자 김윤덕

○위원장 맹성규 다음은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복기왕 간사님, 권영진 간사님을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로 지명받은 김윤덕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국토교통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느끼며 국민 한 분 한 분 앞에 섰다는 생각으로 청문회 전 과정에 걸쳐 진솔하게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19대·21대·22대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나름대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과정이었습니다.

주택 건설 교통 항공 철도 등 국토교통 행정의 다양한 전문 분야들과 AI, 자율주행차, UAM 등 새롭게 변화하는 정책들을 보고받으면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고민해야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용적인 국토교통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국민이 행복하고 모두 잘사는 사회로 가는 길을 여야 의원님들께 물어 물어 가려고 합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저의 부족함을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토위에서 4년여간 열정적으로 활동하면서 주택공급 확대, 균형발전, 교통인프라 확충 등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정책 수립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 내 주거복지특별위원장으로 서민의 주거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고민하고 노력했던 소중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과 열정을 토대로 장관후보자로서의 소신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6·27 대출 규제 등으로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공급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도심 내 유희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내년 말 첫 입주가 시작되는 3기 신도시는 단계별 자연 요소를 해소하고 더욱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서민 취약계층 등의 주거비 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둘째,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루고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은 경기침체와 미분양이 심화되고 서울·수도권은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양극화 문제를 바로잡는 근본적인 대책도 국가균형발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배웠고 그곳에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균형발전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이 된다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5국 3특 경제생활권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지역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권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특히 강원·전북·제주 등 3특은 지역 자원과 연계한 특화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고 지역발전의 촉매가 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속도감 있게 확신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국민들의 이동권 격차를 해소하고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국토의 대동맥이 되는 고속철도망과 도로망을 신속히 확충하고 지역 거점 공항도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확충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서비스 격차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K-패스를 고도화하여 국민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넷째, 어려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성장동력을 확충하겠습니다. 기술 개발과 과감한 규제 혁신 등을 통해서 자율차와 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산업단지는 RE100과 AI 등 미래 전략산업의 전초기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가 경쟁력의 뿌리인 건설·물류 등 기간산업은 고부가가치, 기술집약적인 첨단산업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제주항공 참사, 싱크홀 사고 등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

습니다. 안전은 사전 예방이 핵심입니다. 도로·철도·교통·항공·지하 안전 등 국토교통 전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도록 빈틈없이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택배·운송·건설 등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거나 과로에 내몰리지 않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현장을 장관이 된다면 반드시 직접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만약 저에게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회와 전문가 등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도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최선을 다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권영진 위원 위원장님,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우리 국토교통위원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후보자가 우리 청문회에 자료제출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김윤덕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후보자의 자료제출률이 최근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국토위 행정실에서 파악한 결과로는 후보자는 여야 국토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총 2857건 중에 747건이 미제출되어서 73.8%입니다. 전임 박상우 장관은 81.9%, 전전임 원희룡 장관은 84.5%라는 것에 비추어서도 낮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여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고 실제 야당 입장에서 파악한 자료제출률은 훨씬 낮습니다.

야당 간사인 저희 의원실에서 요구한 자료는 절반도 제출되지 못했습니다. 국토교통부를 포함해서 28개 기관에 276건을 요구했지만 절반도 채 되지 않는 101건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료들은 인사청문요청서를 참고하라는 등 이런 식입니다.

주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자료 요청에 대한 제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후보자를 비롯해서 후보자 자녀들의 학적 관련 자료 그리고 출입국기록 관련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가족과 관련된 사항은 본인의 신상과 관련이 없는 가족의 개인정보로서 제출이 곤란한 점을 양해해 달라고 하면서 본인에 대한 학력 부분들도 인사청문요청안 9페이지를 살펴보라고 이렇게 답이 왔는데, 9페이지를 보면 이력서에 두 줄 학력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부실한 자료입니다.

사실 자녀들의 학력 부분들과 출입국기록을 요청했던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마는 후보자 자녀들도 이진숙 교육부장관후보자처럼 필리핀으로 조기에 유학을 보냈다는 제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려면, 이 부분들만 제출하면 말끔하게 정리되는데 이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후보자 및 가족의 사인 간 채권·채무관계 내역 및 증빙서류를 요청했는데 돌아온 답변이 인사청문요청안 90~112페이지, 134~135페이지, 재산신고 관련 부속서류는 183~190페이지 참고자료를 참고하라는 답변입니다.

해당 요청안을 보면 이거는 국회공보에 나와 있는 재산신고 목록입니다. 그리고 재산신고 관련 부속서류는 후보자가 최근 사인 간에 맺은 채권의 차용증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 동생과의 금전거래 관계는 차용증 대신 후보자 지명 후에 급히 쓴 확인서밖에 없습니다. 이 자금의 출처, 이자 수취·상환 내역 등 청문회에서 핵심적인 검증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어떤 것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장님께서 오전 중에 첫째, 후보자 자녀의 초중고 학력 관련 자료, 출입국기록 자료.

둘째, 2024년 4월 15일 후보자가 장녀에게 4억 7000만 원을 대여한 자금의 출처와 대여 당시 자산 현황, 이자 수령 여부 및 입출금내역 증빙자료.

셋째, 2024년 12월 28일 후보자의 배우자가 장녀에게 1억 8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유, 자금 출처 및 상환 여부 증빙자료.

넷째, 후보자가 동생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자금의 출처, 상환 및 이자 지급 내역 증빙자료.

다섯째, 후보자가 양 모 씨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유, 이자 상환 현황 증빙자료.

여섯째, 후보자의 배우자가 김 모 씨에게 4500만 원을 차용한 사유, 이자 지급 및 상환 내역 증빙자료 등을 오전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을 꼭 해 주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후보자에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맹성규 알겠습니다.

다음, 이연희 위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청문회가 시작이 되면 늘 자료제출 요구 가지고 좀 실랑이를 하는데 이거는 전례에 따른 형평성에 기준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존경하는 권영진 간사님께서 통계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출받은 통계로는 국토부에 요청한 자료 중에는 공식 자료 요구 1115건 중에서 미제출된 것은 118건인데 제출률은 89.4%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기관까지 다 합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료 요구 양이 거의 국무총리보다 더 많아요. 과거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 22년도 요구 자료를 보면 총 1069건을 요구를 했고 이 중에 제출률은 70%에 달합니다.

그리고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후보자들 인청에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자료제출률 38.2%입니다. 김행 여성가족부장관 제출률 28.5%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후보자 제출률 70%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후보자 제출률 48.6%입니다.

지금 개인정보와 관련한 부분은 대체로 후보자들이 제출하지 않는 것이 최근의 관행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김윤덕 후보자의 자료제출은 89%에 달하기 때문에 매우 양호하게 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자료제출 요구 가지고 청문회를 질질 끌거나 실랑이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다음, 김정재 위원님.

○김정재 위원 국민의힘 김정재입니다.

조금 전에 권영진 간사님이 요구하신 자료 오전 중으로 준비되면 본 위원에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게 관행이라고 그러면 이 청문회 할 필요가 없지요. 문 닫아야지요. 할 필요 없지요. 우리 지금 바로 그냥 작별인사 하고 헤어져야지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초·중학교 때 부모와 함께 하지 않고 조기 유학을 떠나는 게 초·중등교육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 위반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거지 남의 집 딸이, 아들이 뭐 어디를 갔든지 무슨 위원이 큰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직자후보자이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절대로 관행 운운하면서 자료제출 거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본 위원이 함께 같은 맥락에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것도 관련 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관련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2024년에 따님 전세금 6억 5000을 빌려줬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금 출처는 아까 요구하셨고요. 저는 2022년 장녀가 계약한 경남아너스빌 전세금 5억 5000 이것의 자금 출처 그리고 증빙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전세 계약 시에, 이것은 물론 후보자와 배우자가 지원이 있었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2024년에 따님에게, 장녀에게는 6억 5000을 빌려줬다 그랬는데요. 이게 연말마다 이자를 갚게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이자가 어떻게 지불이 됐는지, 통장으로 아마 다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통장 사본 반드시, 해서 증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김희정 위원님.

○김희정 위원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김희정입니다.

위원장님, 지난번 딱 일주일 전에 이 자리에서 제가 관련 증인 신청을 했다가 성실하게 자료가 요청되고 올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합의로 증인을 부르지 않았고 그때 위원장님께서 자료제출 상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하고 계시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맹성규 예.

○김희정 위원 그런데 그때 증인 신청 양당 간사가 드롭하면서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단 1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 명의로 약속을 한 거니까 꼭 자료가 당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이런 것과 상관없이 아주 기본적인 재산과 병역과 관련된 내용이 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산과 관련해서는 사인 간 채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자료도 증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에 있는 의사로부터 사인 간 채무가 있었는데 기간이 지나도록 갚지도 않았고 재계약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 지급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관련 증빙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만 그냥 ‘이자 제출했습니다’라고 말만 하고 있지 어떤 증빙자료도 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지역 건설업체로부터도 역시 돈을 빌린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채무 경위와 채권자와의 관계, 차용증 등에 대해서 제출을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지역 건설업체에다가 다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폐사와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후보가 얘기하는 과거의 재산신고하고도 서로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공직자윤리법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 병역 관련된 내용입니다. 87년 18개월 방위병으로 군복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86년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어떻게 방위병으로 가게 됐는지 그 자료, 신체검사 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역시 기본적인 병역 원부도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그동안 밖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했던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 등 SNS 계정을, 저는 과거에 어떤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해 왔는지 홍보자료로 의원들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보려고 했더니 후보로 지명되는 즉시 모든 SNS를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부분은 개인정보라고 하면서 주지 않을 이유를 저는 파악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잠시 임시 개방이라도 해서 저희에게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재산 관련된 서류, 병역 관련된 서류 그리고 SNS 관련된 서류는 절대 과도한 자료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이비인후과 원장, 우진 건설 등 후보자의 채무 관련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마무리하세요.

○김희정 위원 전주 센트럴파크 분양권 획득 및 전매 증빙자료 그리고 병역 신체검사 및 병적원부 자료 그리고 SNS 내 의정활동, 특히 잼버리 관련 기재 내역 등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까 후보가 선서했듯이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맹성규 또 추가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국토부장관의 소관 관장 사무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국토의 보전·이용 및 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육운·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 국가 주요 기간산업부터 해 가지고 아주 중요한 산업을 관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주택 문제까지 관장합니다.

지금 제출자 대통령 명의로 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전문성 부족이 많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국토교통위원 활동 4년 그다음 약 6개월간의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 활동 이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다고 적시를 하면서 장관으로 지명을 하고 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위원 4년 활동을 보면, 저희들이 의정기록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로 새만금 사업, 새만금신공항, 호남고속철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발언의 빈도수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토교통부 전체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청문요청안에 강조된 바에 의하면 ‘주거복지특별위원장으로써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주거복지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힘썼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통한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 예, 결론은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 서울 30평 기준으로 할 때 집값이 2022년 119% 올라서 서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입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했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회의 횟수, 일자, 회의 내용을 제출받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맹성규 김은혜 위원님.

○김은혜 위원 국토부장관후보자님하고 의정활동을 함께했던 여야 위원님들은 후보자님의 국가관이나 아니면 가치관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깊이 있는 소통을 하신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자료제출이 굳이 어렵지 않다고 봤던 점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전주지방검찰청 1999형제34622-1 국보법 위반과 관련해서 수사 관련기관에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셨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셨는지 여부와 80~90년대 당시에 전북 지역 학생운동 조직을 구축하셨는데 그 활동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답변드리겠다’라고 하셨지만 말씀 주실 수 있는 사안은, 책도 있고 하니까요 그 부분을 저희도 오전 중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면,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맹성규 먼저 천준호 위원님.

○천준호 위원 위원장님의 의사 진행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문회를 준비를 해 왔고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이야기를 듣는 게 필요한데 마치 자료 요구인 것처럼 하면서 의견을 계속 제시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과정이 청문회의 정상적인 진행에 상당히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정리해 주시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가 뭐가 필요한지만 딱 그 해당되는 목록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의견을 거기다가 얹어서, 사실상 청문 절차와 혼돈이 되는 그런 질의들을 계속하고 계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진행을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 자료제출 요구인데요.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권영진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후보자 장녀에 대한 부당증여 의혹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후보자 장녀가 2022년 카카오뱅크에서 대출받은 1억 원을 2023년과 2024년에 전액 상환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봤더니 후보자 장녀의 소득보다 소비지출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에 국민들께서 혹여 부당한 거래나 증여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계신데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2020년 이후 장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그리고 카카오뱅크 대출거래내역서를 자료제출 요청을 했는데 후보자께서 사실상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공직후보자는 국민들 앞에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됩니다. 장녀의 고지 거부 핑계를 대지 마시고 오전 중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맹성규 다음은 신영대 위원님.

○신영대 위원 제가 국토위 와서 처음으로 인사청문을 하게 됐는데요. 당연히 인사청문 시작 전에 자료제출 관련해서 모든 상임위가 그렇듯이 미흡하다, 이 정도면 가능하다, 이런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도 당연히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전의 박상우 장관님 것 한번 봤더니 그때 위원님들이 요구한 건수가 1891건인데 1548건을 제출하시고 408건을 미제출하셨더라고요. 이게 비율은 81%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윤덕 장관후보자를 보면 요구 건수가 2857건입니다. 그리고 제출이 2108건이고 미제출이 749건이에요. 제출 건수가 73%입니다. 박상우 장관보다 낮습니다, 제출 건이.

그런데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찾아봤더니 박상우 장관 시절에 청문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보면 어떤 민간기관 요구자료는 거의 없어요. 다 정부나 관련된 공공기관, 준정부기관에 관련된 자료 요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윤덕 후보자의 자료 요청을 보면 다 민간기관들, 개인의 어떤 사적인 재산에 관련된 부분, DB생명보험·교보증권·교보생명, 이런 자료들은 전부 다 우리 재산신고 하면 다 나와 있는 자료인데 이것에 대해서 다 자료 요청을 해요. 심지어 면세점 자료까지 요청을 하고 계셔서 너무 과도한 자료가 많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김윤덕 후보자 딸의 학적부랄지 사인 간의 채무 이런 게 있는데, 당연히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청문회 과정에서 질의를 하고 질의답변 내용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뭐로 소명할 거냐에 대해서 그때는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일정 자료가 온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청문회 진행하고, 진행한 다음에 부족한 게 있으면 그다음에 또 추가로 요청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저는 자료제출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을 좀 줄이고 이제는 청문회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그러면……

○한준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더 하시렵니까?

한준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간사님 마무리하십시오.

○**한준호 위원** 간사님 하시기 전에 저도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토위에 와서 장관 청문회가 세 번째입니다. 원희룡 첫 장관부터 시작해서 이번
에 김윤덕 장관까지 세 번째 청문회를 하는데 저희가 야당인 시절에도 청문회 할 때, 원
희룡 당시 장관후보 인사청문회 때 쟁점 사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도 비전문성, 특
혜, 후원금, 법인카드 사용, 오등봉 민간특례 개발사업 등등 굉장히 많은 사안이 있었지
만 대부분 저희가 정책질의를 했고 가족 사안에 대한 것은 원희룡·박상우 두 장관에 대
해서 저희가 자료 요청도 굉장히 자중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캐묻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도 상당히 자중을 했습니다. 박상우 장관도 당시에 아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지만 저
희가 굳이 이걸 인청에서 꺼내 가지고 질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국토부장관이 와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택부터 교통까지 굉장히 많은 사안들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저희가 가급적
이면 장관으로서 본인의 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검증을 해
야 되는 것이지 자녀들 털고 다 털어 가지고…… 저희가 과연 이게 장관의 자질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저희가 야당 때 했던 것들을 한번 다시 상기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정
책질의와 장관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좀 검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기왕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하셔서 조속하게 정상적인
회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께서 전문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민주당의 주거복지위원회 회의자료와 횡수에 대한 말씀을 하셔
서 제가 민주당의 간사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보통의 경우에 두 차례에 걸쳐서 상임위 활동을 했다고 하면 일정 정도의 그 분야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졌다고들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정책적 검증인지, 행정적
검증인지 혹은 정치적 검증인지 떠나서 일정 정도 그 분야에서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
는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청문회에서 질의를 통해서 검증을 하시면 될 것 같
고요.

당에 대한 회의자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곤란할 것 같아서 제가 간사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자료에 대해서는 가능한 자료는
얼른 제출을 추가적으로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회의를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위원장 맹성규** 예.

○**김도읍 위원** 복기왕 간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조심스럽지요. 당내의 특위 활동에 대해서 회의 횡수라든지 일시라든지 내용, 그게 대
부분 특위 활동이라는 건 우리 정치 활동이 대부분 공개되어 있습니다. 공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임위 활동을 얼마나 했기 때문에 이게 전문성이 있다 이 부분이 저희들
이 이해하기 어려운 게 벌써 일부 언론 보도도 있었지만 학자 출신 1차관이 대통령실 업
무보고 이후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금 이런 평가가 대통령실 내부에서 있다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분이 장관으로 지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로서는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학습해서 주택 문제 해결하고 국토 균형 개발하고 이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정책을 펼 수 있는, 이게 저희들이 요구하는 국토부장관의 자질과 능력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자질과 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 자료를 안 내시면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 검증은, 본인이 입증은 못 하시는 거고. 내고 ‘이 자료를 보십시오’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당내 회의자료이기 때문에 못 내겠다 그거는…… 우리 국회 대부분이 정보위 등 몇몇 빼고는 다 공개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도 공개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맹성규**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께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운덕** 예, 여러 위원님들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검토해서 추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다만 민감한 개인정보 등은 좀 어렵다는 점도 한편으로 양해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맹성규** 이 자리가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한 청문회인 만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오전 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위원** 위원장님, 그냥 그렇게 러프하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행정실장님,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 리스트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1번 재산에서는 뭐뭐, 세금 관련해서는 뭐뭐, 병역 관련해서는 뭐뭐 그다음에 정책 관련해서는 뭐뭐, 아까 다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제출한다라는 것을 리스트를 정확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위원장님 제가 또……

○**위원장 맹성규** 위원님, 위원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뒤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된 것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

○**위원장 맹성규** 예, 제출 여부는 나중에 판단하더라도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김희정 위원**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감사하고요.

한 가지 더, 아까 여당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자료가 제출이 된 건수 가지고 얘기하는데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기존의 국회나 공직 재산신고 내역하고 이번에 저희가 인사청문회 요청 자료 온 것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수치도 또는 워딩도 다르게 온 게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를 달라고 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장녀에게 빌려줬다는 재산 액수도 보면 재산신고에는 5억 5000을 했다가 이번에 인사청문회 서류 요구에는 6억 5000으로 온다라든지……

○위원장 맹성규 그것은 질의 과정에서 질의하시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희정 위원 그것을 제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증거 자료를 주셔야지요.

○위원장 맹성규 아니, 답변을 들어 보시면 되지요.

○김희정 위원 그리고 또 재산, 채무가 발생한 이유도 과거 재산신고에는 전세권 취득을 위한 채무라고 서류를 냈다가 이번에 다시 지난번에 왜 빌렸나 물어봤더니 생활자금이라고 냈든지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맹성규 그것도 위원님……

○천준호 위원 위원장님, 청문회 좀 해 주십시오, 청문회. 그것들을 답하는 게 청문회입니다.

○김희정 위원 그래서 명확하게 증거 자료를 받아 주셔야지 저희가 원활한 인사 검증이 됩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연희 위원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맹성규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문제는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질의 과정을 통해서 답변이 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은 이 정도로 하고 청문회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재보충질의 3분씩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먼저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인천 중구강화군웅진군 국회의원 배준영입니다.

후보자님, 먼저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감사합니다.

○배준영 위원 열정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과연 후보자의 자격이 있는지 냉정하게 좀 따져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청년들의 주택복지를 챙기시는 주무장관으로서 이 질문을 제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후보자님, 대한민국 청년의 평균 소득이 한 월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잘 모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배준영 위원 아니, 의정생활 오래 하시고 국토위에서 오래 전문성을 쌓으셨다는데 그런 것을 모르신다니 조금 실망스러운데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266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거비·식료품비·교통비, 월평균 생활비가 213만 원이거든요. 그것 빼고 나면은 한 오륙십만 원 손에 쥐는 거예요. 그 돈 갖고 서울의 30평형 전세금 6억 5000만 원을 마련하려면 한 10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대출 없이 서울에서 30평 전셋집을 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따님 관련해서 전세금 6억 5000만 원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매경을 보니까 6억 5000만 원 아빠 찬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합당하게 다 세금을 내셨는지 정당한 절차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좀 따져 볼 텐데요. 여기에 이런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정책도 결국에는 국민의 호응을 얻어야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 장관이 본인 자녀에게는 수억 원대 자금을 전셋값으로 대 주면서 서민과 실수요자의 대출을 규제한다고 나선다면 누가 공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번의 6·27 대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취업 자체도 어렵고 또 취업해서도 여러 가지 급여라든가 이게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 장녀에 대한 전셋값을 저희가 지원한 것에 대해, 차용하고 빌려준 것에 대해서도 우리 서민들이 볼 때는 결국 국회의원 딸이기 때문에 다른 우리 서민들에 비해서 어떤 일정한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저는 그렇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겸허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딸이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딸이 독립을 하겠다고 해서, 취업을 해서 독립을 하겠다고 했을 때 사실 저희 둘째 딸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 막내딸은 휴학을 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세 딸이 서울에서 살아야 될 형편이어서, 그 세 딸이 살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하고 있는 딸 또 대학을 다니고 있는 딸에 대한 부양의무로 제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배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그런데 제가 질의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끊겠는데, 서울에 살아야 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후보자님 따님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배준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해명이나 말씀으로는 우리 젊은이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스스로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에겐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좀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문재인 정부에도 그때 초대 장관님이 계셨는데, 김현미 장관님 계셨는데 사실 그때 스물일곱 번이나 되는 부동산 정책을 바꾸고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이고 그래서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한 6억 원 됐는데 나중에 정권 말기 보니까 10억이나 됐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서울에서 살기, 집을 사고 그런 꿈을 포기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데 지금도 좀 걱정입니다.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상경 차관이 전문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분이 규제 위주 주의자고요. 과거 대장동 개발사업은 획기적인 시도라고 성공 사례로 평가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대장동 사업이 성공 사례라는 이상경 차관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대체적으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동의하신다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배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일반 진보 정권, 이른바 진보 정권에서는 규제 강화를 하고 보수 정권에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에 집중했다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배준영 위원 그런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30.07%가 올랐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20.5%가 올랐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 때는 마이너스거나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적당한 공급 대책에 대해서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것 데자뷔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공급 측면에서 제가 여쭙보겠는데, 서울 지역 주택 착공 실적이 작년에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퍼센티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배준영 위원 아니, 몇만 호 정도 되는지는 아실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실제 수치로는 잘 정확하게……

○배준영 위원 아니, 서울 지역의 부동산 대책을 총괄해서 개선하시겠다는데 1년에 서울에 주택이 몇 개 정도 공급되는지 알지를 못하세요? 모르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배준영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배우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배준영 위원 2만 6000호 정도 되고요, 23년도에는 2만 7000호 정도 됩니다.

제가 시간이 좀 적어서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문성에 좀 문제가 보여져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태영 위원님.

○염태영 위원 김윤덕 장관후보자, 지명 축하드립니다.

오늘 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 정책 역량 이런 것들을 검증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은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하는데, 우려했던 대로 개인사나 또 여러 가지 흠집 내기에 치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선 후보자께서는 국토위 활동 4년 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염태영 위원 그리고 또 당 사무총장을 역임한 중진 의원이어서 저는 국토위에 대한 정책 역량에 대해서도 상당한 훈련을 할 수 있는 기간은 가졌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당 중진으로서 리더십도 일정 부분 검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모두발언을 보면서 국가균형발전이나 주택공급 확대 정책, 교통 인프라 확충, 혁신 성장, 이런 것에 대해서는 후보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대략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조금만 더 덧붙이면 국토부는 우리 경제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처입니다. 국토부가 매년 수십조의 SOC 사업을 사용하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은 경

기순환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요. 그리고 기재부나 금융 당국의 거시경제 정책의 협의 대상이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가 이런 금융 당국이나 기재부와 같은 정책 협의 대상 기관이 되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일에 주도권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동산 정책,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인프라 사업 이런 것들은 예산에 가로막히기도 하지요. 그래서 관계 당국 협의가 국토부가 늘 밀리거나 협의에 애로 사항이 커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아까 같은 정책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일정하게 정치와 정책 양 측면에서 쌓아 오신 경험을 토대로 국토부를 보다 강력한 경제부처로 이끌어 주십사 그리고 이러한 이유에서 관계 당국과 협의에 있어서 보다 정책과 정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주셔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명되신 배경도 그런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하지만 실제 제가 상임위원 하면서도 국토부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겠지만 실제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번번이 좌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또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구요. 단순히 기재부와 마찰을 넘어서서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 여러 가지 국가 시스템을 점검해야만 하는 실태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명된 이유가 과감하게 집행력 있게 하라 이런 입장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점을 잘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저희도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고요. 앞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이나 SOC 사업에 있어서 정책 역량과 정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주셔서 경제부처로서의 주도권을 꼭 갖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염태영 위원** 이번 새 정부 들어서서 6·27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 좀 더 지났어요. 대책 효과가 어떻다고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일단 수도권 주택 과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적절하게 처방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여러 언론상에서도 확인되고 있듯이 상당히 안정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태영 위원** 서울 지역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6월 다섯째 주 0.4%에서 7월 두 번째 주 0.19, 상당 부분 둔화되었고. 그런데 이런 대책이 효과가 지속되려면 공급 대책이 따라야 된다 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저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단순히 수요 대책을 억제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공급 대책에서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국토부에서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고, 아마 제가 장관에 임용되게 된다면 조만간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문재인 정부 5년 연평균 대비 윤석열 정부 3년간의 연평균 인허가라는

지 착공·분양·준공, 모두 감소했습니다. 이걸 데이터로 보면 다 나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실질적으로 입주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공급량이 2021년까지는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겠나 이런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공급 총량을 총망라한 계획과 실제 달성률을 관리하는 자료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공공부문의 정비 사업이라든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든지 공공재 개발 사업을 통해서 매년 몇 호를 공급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민간부문에서는 몇 호를 공급할 예정인지 그리고 실제로 몇 호가 공급되었는지를 끊임없이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허가 물량을 토대로 해서 보면 대략 3년 후 어느 정도가 공급될 것이다, 이런 막연한 대책 말고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집행을 하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걸 준비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다만,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상당히 눈속임성 데이터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착공이 되는 것 또 분양이 완료된 것하고 인허가 이런 각각의 주택 공정 과정에서 어느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착시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입주할 수 있는, 실입주라고 하는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께 가감 없이 그런 대책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그래서 민간부문 공급 활성화도 매우 중요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인허가 부분에서 상당 부분 지연되고 있거나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인허가를 안 내 주고 있어서 공급에 있어서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신속한 인허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일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얘기했듯이 진보는 규제를 강화하고 보수는 규제를 완화한다, 이런 프레임은 절대 적절하지 않다. 우리는 실사구시 정부로서 꼭 주택공급을 충분히 해서 이러한 공급량에 있어서도 우리가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장관님의 의견을 좀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첫 번째로 인허가 지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저는 인허가에 대해 정확하게 하는 지침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현장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행정시스템을 개혁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자체가 반대하는 요인에는 또 주민들과의 갈등·민원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진행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고요.

또 인허가 지연이 가져오는 굉장히, 금융 부담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그게 경기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 측면에서는 아까 규제와 완화 이런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어느 일률

적으로 규제 완화가 좋다, 뭐 여러 가지 일률적인 그런 입장보다는 그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그러한 대책들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태영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인허가 단축 같은 것을 위해서 정부 차원의 신속인허가지원센터 이런 것을 운영해 주시기를 적극 검토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균 위원님.

○**윤종균 위원** 후보님, 지명 축하드리고요.

아까 인사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인사말 중에서 좀 이렇게 느낌이 오는 대목이 있었는데 ‘지방에서 나고 자라고 배웠다. 그래서 그곳에서 국회의원이 되었고 그러기에 균형발전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수도권이기는 하지만 수도권 내에도 균형발전이 필요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주 뜻깊은 인사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몇 명의 국토부장관들이 있었지만 후보님처럼 지역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하신 분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별하게, 지금 우리나라 국가균형발전이 큰 문제인데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 또 기대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보님 지역구가 전주이신데 전북이나 전주에서 싱크홀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는지하고 그 싱크홀 발생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싱크홀 문제는 지금 현재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굴착 공사라든가 지하를 굉장히 많이 파게 되면서 다양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 싱크홀 문제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인지해야 되겠다.

실제 싱크홀의 사고 횟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규모는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심각성이 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대부분 노후 하수관이라든가 이런 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하안전관리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또 그 안전관리를 파악해서 생긴 대책, 대안들이 설계도에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그것들이 제대로 점검되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우선적으로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윤종균 위원**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그런 것들 진행할 때 지하안전평가제도 같은 것을 개선해서 예방·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윤종균 위원**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지하공간 통합지도라는 것을 10년 전부터 근 8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아직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가관입니다.

PPT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에 강동구 명일동, 동대문 또 광명 신안산선 붕괴 이게 다 싱크홀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10년 전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지금 그걸 공개하고 있지 않아요. ‘안전 등급이 부동산 가격 등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어서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게 서울시의 공식적인, KBS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공식 입장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 기사에도 있지만 시민들이 직접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후보님, 국민의 생명과 안전, 부동산 가격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대형 싱크홀, 우리나라처럼 도시가 집중돼서 형성돼 있는 이런 구조일수록 싱크홀이 발생하면 대규모 인사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부동산 가격 때문에 싱크홀 지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일단 서울시에서 우선정비구역도를 제작했지만 현재 비공개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지하안전 정보 관리 현황을 제대로 잘 살펴보는 게 일단 우선적으로 중요하겠다,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관련 법령들을 제대로 고치든지 또 그런 것을 잘해서 현재 공개 정보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향에서 이것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법령 문제 이런 게 있으면 국회에서 의논해서 결정해 주시면 또 그걸 적극적으로 함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일선에서 실천해야 하는, 장관 임명 되시면 되실 텐데 지하공간 통합지도 이것은 국민들의 생명권·안전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가격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다’ 이것은 저의 상식에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말도 안 됩니다.

○윤종군 위원 그래서 장관으로 공식적으로 취임해서 일을 하시게 되면, 민감한 정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부 제외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그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공개해야 된다. 그것이 지금 가장 크게 요구되는 데가 서울시인데 오세훈 시장이 그것을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과 맞짱을 떠서라도 가급적이면 최대치를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님 견해 좀 여쭙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서울시를 만나서, 오세훈 시장을 만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꼭 관철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윤종군 위원 그리고 저도 짧게, 이제 1년 정도 국토위 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국토위 활동하면서 들었던 몇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국토부의 역할 이런 것을 바꾸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전에는 그렇잖아요, 개발시대 때는 철도 많이 깔고 고속도로 많이 뚫고 아파트 많이 공급하고 이게 국토부의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양적인 것보다도 국민의 삶의 질이 중

요한 시대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국토부의 위상과 역할도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는 이따가 질의드리고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반적인 국토부 고위공직자들의 태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단 국토부 공직자뿐만은 아니겠지만 지난해 안성, 포천-세종고속도로 건설하는 구간에서 거더가 붕괴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사고가 난 뒤 한 달 정도가 더 지났던 시점인 것 같은데 그 사고를 발생시킨 시공사 대표가 피해 주민들이 그렇게 만나 달라고 하는데도 만나지를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 상식에는.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를 한 후에나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토위의 오래된 현안 과제들이지만 화물노동자들 문제 또 전세사기 피해자 또 대형 항공사고 피해자, 국토부장관이나 차관이나 이분들이 이분들을 만나 주지를 않아요. 저는 만나는 게 모든 일의 첫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나지 않고 실무자들이 만납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SPC 삼립 방문하셨잖아요. 딱 한 번 만나셨어요. 그 자리에서 야근 12시간 장시간 노동은 안 된다, 그러자마자 바로 삼립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8시간 노동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공직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관님, 청문회 잘 통과해서 되시면 제발 좀 현장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장관이 돼 주십사, 그리고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만나는 것에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자세를 좀 부탁드립니다 싶은데, 어떤 자세로 임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서도 그 현장에 꼭 찾아가겠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정말 현장에 찾아가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도록, 많이 듣고 얘기할 수 있도록……

전문성이라고 하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야에 대한 정교한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어떤 일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일들을 집착해서, 그 일을 체화해서 집행할 줄 아는 것, 아는 능력, 이게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위원님, 오히려 장관이 된다면 장관과 또 의원님들이 같이 함께 협동으로 현장을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정말 역대 비교해서 최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균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12시 반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양 위원** 안녕하십니까? 창원특례시 의창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종양 위원님

니다.

후보자님, 장관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감사합니다.

○김종양 위원 당연히 오늘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정체성·업무전문성 등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도덕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후보자님,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인사 검증 잣대가 도덕성과 능력이 아니라 충성심과 보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김종양 위원 그런데 1기 장관후보자로 지명된 분의 면면을 한번 보세요. 자료도 못 내고 소명도 못 했던 총리, 갑질 여왕 여가부장관, 불법 호화 유학 교육부장관, 음주운전 경력 행안부장관, 병역기록 제출 못 하는 국방부장관, 이해충돌 절정의 복지부장관, 북한이 주적도 아니라고 하는 통일부장관 등 특히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명되고 임명된 것에 대해 상당수 국민들은 충성심과 보은이 이번 인사 기준에 결정적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국토부장관은 예외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출된 자료 등을 분석해 보니 국민 정서와는 영 동떨어진 어떤 신상의 문제 등 또 전문성에도 다소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명된 것은 후보자께서 이재명 대통령, 전 당내의 후보 경선 등등에 있어서 언제나 가장 먼저 손을 들고 지지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대가인가 하는 그런 의아심도 갖게 됩니다. 당연히 후보자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김종양 위원 그래요.

후보자님, 그러면 신상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PPT 자료 한번 올려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자녀에 대한 아파트 전세자금, 증여인지 대여인지 이 부분인데요. 증여하셨습니까, 대여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빌려준 겁니다.

○김종양 위원 빌려준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김종양 위원 2022년도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김종양 위원 2022년도는 당시 국회의원 재직 때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김종양 위원 그러면 자녀에게 거금을 갖다가 빌려줬으면 그것 재산등록 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재산신고 과정에서 실제 제가 우리 큰딸로부터 채권이 있고 또 우리 큰딸은 저에게 채무가 있는 거지요. 그랬을 때 차용증서를 써 놓고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해 놓고 이게 재산신고 과정에서 총액에

변화가……

○**김종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대여에 대한 계약서도 없었고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증여인데도 불구하고, 증여를 했거나 대여를 했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재산 등록 신고를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일 경우에 그것을 누락했을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저촉이 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지요?

22년도에 그런 사실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자녀는 그 당시에 재산을 신고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부모 같은 경우에도 그만큼 채권을 등록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았고, 2023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도에 5억 5000 빌려준 걸로 그렇게 하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김종양 위원** 그래서 실제로 건너간 돈, 실제로 자녀가 아파트를 얻는 데 총지출된 비용은 6억 5000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6억 5000입니다.

○**김종양 위원** 5억 5000 플러스 1억, 금융채무 1억을 결국은 부모가 갚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갚아 줬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위원님.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김종양 위원** 그것도 빌려준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빌려준 게 맞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증여에 대한 저의 능력과 의사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능력 쪽으로 봐도 저희는 가용할 수 있는 저희 부부의 전 재산이나 같은 돈인데……

○**김종양 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직……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능력으로도 좀 안 될 것 같거든요.

○**김종양 위원** 후보자는 국회의원이고요. 후보자 배우자께서도 지금 공직에 계시고 당연히 재산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행위가, 부부간이나 아니면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금전 거래가 있으면 당연히 사실대로 정확하게 등록을 하거나 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맞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재산등록을 허위로 했거나 아니면 증여세를 전락 회피하기 위해 가지고 금전대차로 위장을 했거나 하는 그 두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그 두 가지 어느 것에도, 어느 방안을 선택하더라도 법에 대한 위반행위라든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저는 국회 재산사항의 신고 과정에서 제가 가진 큰딸에 대한 채권과 큰딸의 저에 대한 채무가 정확하게 신고되지 못한 건 분명하게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양 위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종양 위원** 잠깐만요. 국회의원 출마 등록을 할 때 재산신고 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의 채권·채무 관계, 만약에 빌려줬다고 했을 경우에 자녀와의 그런 채권·채무 관계를

정확하게 기재했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김종양 위원 그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김종양 위원 물론 시효는 지났을지 몰라도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징역형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엄청난, 제대로 확인이 됐다 그러면 후보자께서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관련 법률 위반이 된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더욱더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임대차계약 2024년도에 작성하잖아요. 실제 행위는 2022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가짜로 작성했는지 뒤늦게 작성을 했는지 2024년도에 하게 되는데 그 내용 한번 보세요. 원칙적으로 이자 얼마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4.6%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했습니까? 2.25 받는 걸로 했습니다. 부인은, 배우자는 무이자로 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악용했습니다.

원래 사인 간의 금전 관련 대차에 있어서 이자의 비과세 한도액이 1000만 원입니다. 그 1000만 원에 짜맞추기 위해 가지고, 대여 금액도 총 6억 5000이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4억 8000……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보자 배우자는 1억 7000 넘어가도록 하고 그 이자를 각각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그 증여세 조금 아끼기 위해서 1000만 원 초과 안 되도록 그렇게 이율이라든지 쪼개기 증여, 쪼개기 대여 금액을 만든 거예요. 쪼개기 후원은 있어도 부모가 자식한테 쪼개기 대역을 한다는 건 제가 오늘 처음 듣습니다.

과연 그게 지금 국회의원이고 또 후보자 부인께서도 공직에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까? 물론 그게 세무사의 조언을 받았지요. 가장 절세할 수 있는,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찾아 가지고 조언을 받아 가지고 뒤늦게 계약서 작성했잖아요. 뒤늦게 계약서를 작성했다손 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자라든지 그것만은 제대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회피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너무 안타깝고요. 과연 그런 도덕성을 가진 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추가질문은 나중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다음, 손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수 위원 경기 용인시를 손명수입니다.

장관후보 지명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감사합니다.

○손명수 위원 보고받아 보시니까 국토부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굉장히 방대합니다.

○**손명수 위원** 지금 주택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정책이라든가 또 안전문제 그리고 도로 철도 항공 버스 택시 물류, 굉장히 방대한데 사실 집값 때문에 국토부장관으로 가시면 거의 에너지를 집값 문제에 쏟게 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사실은 국토부장관이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주택문제 외에도 역할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래서 주택문제에 대해서 핵심을 파악하셔서 잘 대응하시고 다른 분야도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손명수 위원** 저는 요즘 또 특히 집값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주택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것인데요. 제가 사실은 이 상임위 활동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제도 개선을 하지 않으면 다른 부동산 정책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후보자님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후보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지금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손명수 위원** 굉장히 높고.

총 가계대출이 지금 거의 1800조, 2000조 가까이 되는데 이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62.6%,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손명수 위원** 전세제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사실상 우리나라의 유일한 특이한 임대차 제도입니다. 대부분 주택 렌트는 월세가 전 세계적으로 공통인데 우리나라에는 전세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전세가 내 집 마련의 사다리 역할도 했는데 또 목돈을 받기 때문에 겹투자의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이 너무 급등을 해도 문제고 너무 갑자기 급락을 해도 문제고, 이게 주거 수단뿐만 아니라 재산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전세대출이 예전부터 있기는 있었지요. 그런데 굉장히 소액이고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렇게 특수계층에만 전세대출이 있었는데 2008년부터 이게 대폭 확대가 됩니다, 이런 계층과 상관없이 그리고 액수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그 전세대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전세대출이라는 것은, 은행 대출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은행에 월세를 사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손명수 위원** 전세대출이 돈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은행이 돈을 꾸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자를 내야 돼요. 그러면 이자만큼의 월세를 사는 것하고 비슷한 것인데 이게 대폭 늘어나다 보니까 전셋값이 올라가요. 전셋값이 올라가고 다시 집값이 올라가요. 다시 대출이 증가돼요. 그러면 세입자는 사실 이득을 보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은행에 내는 이자와 주인에게 주는 월세 차익만큼, 약간 좀 싸지요. 그 차익만큼만 이익을 보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전세반환금보증, 이것도 집주인에게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은행이 대출을 해 주겠습니까? 안 해 주지요, 원래 전세대출은 월세를 대출해 주는 은행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대출을 해 줍니까? 국가기관이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다음이요.

그래서 전세대출 잔액이 2008년 이전에는 3000억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200조 가까이, 약 665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013년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까지, 전세금은 집주인이 받았는데 집주인이 그걸 안 돌려주면 국가가 대신 갚아 주는 제도가 생겨요. 그런데 그게 또 한 번 바뀝니다. 이게 원래 13년도에 도입될 때는,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빌라 이런 것들인데, 보증비율이 70%였어요. 옛날에는 빌라가 1억 원짜리면 전세는 5000만 원 내외였습시다. 그런데 2017년도에 이게 100%로 보증비율이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하고 매매가가 똑같아져 버려요, 빌라 이런 게. 여기서 이제 사기가 발생합니다.

다음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HUG가 대신 갚아 준 돈이 약 12조 가까이 됩니다. 이 정도면 2억 5000 정도 되는 빌라 거의 4~5만 채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손명수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래 가지고 많은 전세사기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국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구제특별법을 만듭시다. 지금 하고 있는데, 피해 보신 분들은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피해구제특별법을 만든 이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어요. 결국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편에서는 계속 피해가 발생하고 한편에서는 계속 국가가 구제해 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 그러면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을 할 때, 최소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는 그 집을 담보로 잡고 합니다. 대출 안 갚으면 그 집을 자기가 팔아서 충당해요. 그런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는 그런 장치도 없어요. 그냥 채권을 대신 받아서 경매 절차, 그것도 법원에 신청을 해서 경매개시 절차를 받아서 그것 경매해서 합니다. 되겠습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안 됩니다.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이게 당시 국토부 보도자료인데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정책으로 했지만 사실은 미분양 대책 성격이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 30초만 더 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이게 집값 상승의 원인 또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계속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얘기를 해도 이 제도를 고치지를 않아요. 이게 실무자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한 정책을 쉽게 바꾸기 어렵겠지요,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되니까.

그런데 당시에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는 선의로 했겠지요. 그런데 벌써 10년 가까이

이상 되면서 그 부작용과 제도의 폐해가 충분히 드러났는데, 그러면 바뀌어야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손명수 위원 이 제도를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앞으로 집값 때문에 장관님도 굉장히 애를 쓰실 텐데 이런 제도개선 없이는 다른 정책을 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관님이 의지만 가지면 바로 즉시 개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살펴보시고 즉시 개선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많은 부분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장관이 된다면 이 전세보증제도에 대한 TF 같은 것을 만들어서 위원님의 의견이 쫓겨 가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실제적으로 검토해서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손명수 위원 세입자 보호, 세입자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월세를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차보전을 해 주든지. 그런데 목돈을 이렇게 대출을 해 주고 보증을 해 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손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질의시간이 있어서 가능한 추가질의시간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운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하 위원 황운하 위원입니다.

장관후보자로 지명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감사합니다.

○황운하 위원 부동산시장 안정화 또 주택공급, 건설경기 활성화 또 국가균형발전, 이와 같이 산적한 과제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만 특히 아까 인사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서 학교도 다니시고 또 지방에서 정치도 시작하시고, 명실상부한 지방 출신 정치인으로서 특히 국가균형발전에서 남다른 업적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황운하 위원 먼저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수행하기에 앞서서 국토교통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서울-양평고속도로 건 또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여기에 국토부 공무원들이 공모 또는 공동 실행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고 현재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 또는 영부인이 사적 이익을 위해서 국가 공권력을 부당하게 동원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고 여기에 많은 국민들의 공분이 일어났고 현재까지 아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장관 임명되시면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동의합니다.

○**황운하 위원** 다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후보자님이 19대, 21대, 22대 의정활동하시면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 국회법 개정안에도 공동발의하시고 행복도시법 개정안에도 공동발의하셨더라고요.

또 2021년 6월 2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는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더 과감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런 발언 하셨어요. 이 발언 의미가 뭘니까?

국회세종의사당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국회 세종 분원이냐, 세종에 있는 국회의사당이냐. 뭘 말씀하신 거였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저는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행정수도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어서 약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좀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상징적인 게 국회 아니겠습니까?

○**황운하 위원** 그렇지요,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국회가 좀 능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사와 의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황운하 위원** 그런 의미로 발언하신 거였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황운하 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번 대선 과정에 행정수도 관련한 공약을 하셨어요. 그게 국토부 소관일 수도 있는데 후보자님, 대통령 공약이 어떤 내용이었고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에 만들겠다.

○**황운하 위원** 그걸 임기 내에.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임기 내에 하겠다. 또 하나는 국회의사당을 조기에 하겠다 이런 의사도 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황운하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집무실을 임기 내에 옮기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헌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헌문제가 해소돼야지요. 그 해소되는 걸 전제로, 해소되면 대통령 집무실을 완전히 옮기겠다.

또 국회의사당이 현재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사당에서 11개 상임위만 가는데 실제로는 설계가 공모 진행 중인데 전체 국회가 옮기는 걸 염두에 두고 설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그럼요.

○**황운하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이, 지금 후보자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진도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설계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완공 목표를 언제로 잡고 계신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현재 계획은 2030년 또 2033년 이렇게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운하 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이 2030년으로 돼 있고 세종 의사당은 2033년으로 돼 있는데 세종의사당이 2033년, 너무 늦지 않나요? 이거 좀 더 당기기 위한 방법이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저는 장관에 취임한다면 당길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다, 알아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본질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 이전 이런 걸 목표로 가야겠지만 그건 상당히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상징적 활동이라도 능동적으로 진행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님도, 또 당장 국토부장관이 된다면 국토부장관이 세종실 집무를 하는 것, 또 대통령 집무실도 어느 정도는 와서 거기에서 보고도 받고 또 중요 행사는 거기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선제적인 행동들을 진행하고 쌓아 가면서 그런 과정에서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국민적 합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중요하게는 이 균형발전은 단순히 어떤 비전을 말하고 또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선제적 행위를 하고 그런 국민적 신뢰를 주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운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건립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와서 집무하시고 그렇게 돼야지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설계공모가 진행 중인데 이제 국제공모하지 않습니까? 국제공모는 해야 하지만 그러나 국제공모를 했을 때 건축사협회에서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한국적인 멋 이런 것들을 좀 살릴 수 있는 설계가 과연 선정될 수 있을지 그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공모의 취지는 잘 살리되 그 선정 과정에서 한국적인 멋, 지금 세종의사당 청사도 그렇고 한국적인 멋을 잘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 점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청주시 흥덕구의 이연희 위원입니다.

먼저 장관으로 지명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감사합니다.

○**이연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대체로 정치인 출신 장관이 부처 장악력을 높이면서 많은 성과를 냈다는 것이 공통된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3선 국회의원을 하시고 제1당의 사무총장을 역임하신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이번 국토부장관에 지명된 배경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에서 전 분야의 국정교과서 교체와 파행과 후퇴가 있었는데 국토부도 그 쓰나미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공급 절벽, 특히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반토막 난 공급 절벽 그리고 빗내서 집 사라, 빗내서 전세 구해라라고 하는 금융 대출규제 완화 이런 걸로 인해서 서울 집값

이 사상 최고로 폭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과 상실감 이런 것들이 매우 커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양평고속도로 중점 변경 특혜 의혹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에 국토부가 연루되고 동원되는 그런 의혹 때문에 국토부 직원들의 사기가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과 국토균형발전의 주무부처로서 국토부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김윤덕 후보자가 지명된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량을 발휘해서 국토부를 하루빨리 정상화시켜 주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결국 국민께서 지금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그리고 또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부동산인데 지금 서울 집값이 제가 아까 사상 최고치로 폭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인은 첫 번째가 반토막 난 공급 절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준공이나 인허가 물량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착공을 보면 2021년에 6만 8000호 정도였는데 윤석열 정부 2024년에는 2만 6000호로 급감을 했고 준공도 역시 2020년도에 8만 1000호에서 2024년에는 4만 4000호로 40%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 이런 후유증은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바로 공급 절벽으로 인한 주택 폭등 조건이 형성됐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대출규제 완화해서 작년 한 해만 해도 42조 원의 금융이 풀리는 이런 사태로 인해서 대출은 풀리고 공급은 없으니까 당연히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지요. 특히 서울의 집값 폭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그래서 보면 문재인 정부 때는 임기 말에 1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270만 호 공급하겠다고 이런 공급대책들을, 사인들을 시장에 계속 내보냄으로 해서 시장을 좀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그런 것을 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추진은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집값 폭등 때문에 많이 불안해하는 서민들께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 주택공급을 어느 규모로 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주택공급을, 임명된 이후에 주택공급에 관한 대책들을 발표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관후보자에게서 생각하고 있는, 구상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적절한 규모의 주택공급을 어느 정도 규모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어느 정도 규모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6·27 대책으로 인해서 수요 억제 차원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다만 지금 공급물량이 거의 절벽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절한 공급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거냐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지요. 특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좀 늦어지고 있는 이유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현재 보상금 문제, 이주 문제 또 문화재 조사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서 늦어지고 있고 또 재건축 그다음에 재개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이 안 되고 있고 이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연희 위원** 후보자님, 시간이 짧으니까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부가 첫 번째로

는 공공주택 분양에 대해서 확고한 스케줄, 로드맵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100만 호 이상의 공공주택들을 분양하는 것이,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은 정부부처에서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부문에서도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규모의 공급이 필요한데 제가 국토연구원의 자문을 받아 본 결과로는 1년에 전국적으로 약 52만 호가 공급됐을 때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숫자인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50만 호 이상의 주택들이 민간·공공 합쳐서 안정적으로 꾸준히 공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량에 대해서 공급 시그널을 줘야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장관에 임명되시게 되면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이차명 정부 임기 동안 민간과 공공 합쳐서 총공급물량을 얼마 공급하겠다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것이 시장 안정화에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또 한 가지는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공시지가 현실화하고 공정시장가액 현실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시간이 짧으니까……

공정시장가액 변동 부분을, 현실화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일단 현재는 멈춰 있고요. 그게 공시가격이라는 게 말하자면 굉장히 경직성이 있는 거고요 또 실제 시장의 가격은 유동성이 굉장히 심한 그런 갭들이 일정하게 국민적 부담으로 작용되는 측면으로 보기 때문에……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 의견은 부동산 세제나 그런 공시지가 현실화나 공정시장가액 변동과 관련해서 시장 안정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향과 세수 확대 목적이 있는데 우선 세수 확대를 목적으로 해서 공시지가 현실화나 공정시장가액 변동을 하는 부분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하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더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혜 위원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러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두신다는 거예요, 후보자님?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2020년 기준 정도로 그렇게 안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후보자님, 제가 검증을 해 보니까 다행히 후보자님께서도 보좌진에게 갑질을 하지 않으셨고 검사 사칭이나 음주운전 같은 전과도 없으시고 코로나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주식 투자로 사적 이익을 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또 국회의원 시절에 입법 권한을 이용해서 가족이 관련 사업의 이익을 보게 했던 그런 정황도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앞서 통과했던 국무위원후보자와 달리 후보자님께서도 기본적인 도덕성을 갖추고 계신 거라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자녀에 대한 쪼개기 대출, 대여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입장을 견지해 주시고 밝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모두발언에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했다고 진단하셨는데 왜 오른 것 같습니까? 어렵지 않은 질문이니까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일단 중요하게는 대출 규제라든가 금리 이런 게 낮아지면서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린 수요적 측면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단가 문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공급에 대한 부족함이 예상되는 그러한 조건이 맞물리면서 수도권의 집값이 과열된 그런 형태로 드러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그러니까 공사비 급등이라든지 재건축 사업성 악화라든지, 또 보통 통화량이 늘어나면 집값이 따라 오르지요. M2(광의통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집값이 급등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김은혜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유독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 보면 보시는 것처럼 M2가 올라가면서 집값이 함께 따라 올라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6·27 대출 규제가 나온 것 아니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김은혜 위원** 그러면 6·27 대출 규제는 아까 적절한 처방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집값은 내려갔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강남이나 마용성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강남과 마용성에서 신규 아파트 30평형대의 평균적인 가격을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가격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요.

○**김은혜 위원** 제가 앞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정답을.

30평형대, 평균 2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6억으로 틀어막으면 14억이나…… 저기 25억이면 기본적으로 19억 정도 풀 캐시를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지요. 결국 서울의 실수요자들이 ‘내가 이 대출 규제로 집을 살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들고 있는데요.

이런 면에서 아까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씀드려서 여쭙습니다.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주택도시기금, 즉 정부 정책기금에서 서울에 배정되는 게 몇

%인지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서울에 배정되는 비중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김은혜 위원** 4.2%입니다. 그러면 237조 원 중에 서울시민이 대출 등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4.2%, 10조밖에 안 돼요.

그러면 대출 규제로 집을 못 사고, 그런데 정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수요자들은…… 또 정부 대책도 대출을 못 하게 하면 어디 가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만 더 여쭙볼게요.

지금 청년들이 제일 많이 의지하는 것이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입니다. 지금 이게 매입할 경우에 얼마까지 되는지 아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구체적인 수치는……

○**김은혜 위원** 후보자님, 이 정도는 좀 알고 오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후보자님이 적절한 대책이었다고 이야기한 6·27 대책으로 상한이 바뀌었습니다, 3억에서 2.4억으로요.

그러면 이것도 모르세요? 청년 버팀목 대출 같은 경우에 전세 상한액은—제가 말씀드릴게요—1.5억으로 낮춰졌습니다. 그러면 청년들, 신혼부부들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대출까지 이렇게 틀어막으면 아까 말씀하신 맞춤형 주택공급, 서울에서 어디다 하신다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위원님, 정책대출이 일단 제대로 보장되어서 우리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 당연한 정책적 지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책대출이 좀 과하게 진행이 되면 그게 일정하게 시중의 현금 유동성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또 그게 장기적으로 집값과 연동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것을 조정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고요.

○**김은혜 위원** 이따 제가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대출 규제는 오히려 이런 청년들과 같은 실수요자에 타격으로 다가옵니다.

아까 재건축에 대한 과정 점검 이야기를 하셔서 말씀 올리는데요.

재건축에 대해서는 사실 주체가 누구입니까? 국가입니까, 지자체입니까, 아니면 조합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조합이 대부분……

○**김은혜 위원** 조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재건축이 오히려 대출 규제로 인해서 중도금에 대해서 대출받지도 못하고 이주비 대출도 못 받아서 지금 이사도 못 가게 생겼어요. 결국 재건축의 활로가 막혀 버린 거지요. 이를 위해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 저는 폐지가 맞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서는 답변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재초환에 대한 합리적 대안이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일단 재초환제는 법적 검토를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 점을 강조하면 일단 진행하고 평가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어찌 됐든 장관후보자 입장에서는 그 문제를 둘러싼 국회의 논의가 여러 가지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불리 저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국회의 의견을 지켜보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답변……

○**김은혜 위원** 장관님, 재초환은 시행이 됐습니다, 2006년에 제도가 만들어지고. 다만 징수된 금액이 16억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해화된 법이고 주택 공급에 있어서의 예측 불가능한 요소를 남겨 놔기 때문에 나쁜 규제지요.

더더군다나 보유세를 냄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했다는 이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설경기가 안 좋아서 재건축도 멈춰서고 있는데 재초환 같은 이중과세 성격으로 주민분들에게 추가로 부담하게 한다면 그 재초환은 의원들에게 맡기실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일단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주비 문제나 이런 문제는 또 다른 형태의 해결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역까지 폭넓게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 재개발·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굉장히 길게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간소화하거나 또 융적률 같은 것을 좀 조정한다면 여러 가지 형태의 활성화시킬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하기 때문에 고정화된 몇 가지 대책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대책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이따 다시 여쭙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천준호 위원님.

○**천준호 위원**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먼저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감사합니다.

○**천준호 위원** 앞서서 동료 위원께서 6·27 대책과 관련해서 그로 인해서 지금 재건축 이주비를 대출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사실관계를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곳은 일단 아무 제한 없이 대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예정인 곳도 사업장의 퇴거자인 경우에는 기존 주택이 멸실됨으로써 사실 무주택자로 간주가 돼서 전세자금대출 같은 것이 일정한 금액 제한은 있기는 하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 최대 저희가 계산하기로 한 11억 정도까지는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일단 이주비 대책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대책 마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맞습니다.

○**천준호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또 실제 제도를 운영하다가 보면 빈틈이 발생할 수 있고 보완책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추가로 잘 살펴서 가지고 보완해 주셔서 정책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잘 챙겨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국토부가 참 여러 가지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 앞으로 많이 필요한데요. 특별히 김건희 일가가 최근에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실체가 드러나면서 상당

히 많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건인데요. 이 특혜와 관련해서 민중기 특검팀이 지난 22년 3월 말에 체결되었던 국토부의 타당성조사 용역계약 과정에서 당시 도로정책과 직원들이 수사 상황을 공유하면서 말을 맞춘 정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 중에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보좌관을 통해서 국토부의 수사 상황을 공유해 달라고 하고 국토부2차관 출신이었던 김희국 전 의원이 도로정책과 직원들과 이달 초에 회동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후보자님, 보고받으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고 있습니다.

○**천준호 위원** 이건 수사 방해를 넘어서서 공직사회의 기강 자체를 흔드는, 뿌리째 흔드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국민의 신뢰를 받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내부 단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일단 전체적으로는 특검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는 그렇다고 보는데요, 이 문제에 참여한 또 이 문제에 대해 뭔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옥석을 구분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특검 결과를 지켜보겠지만 그 옥석이 구분이 된다면 보다 명확하게 엄격히 처리하는 게 원칙이고 또 특검 진행 과정에서도 국토부가 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준호 위원** 그런데 장관님께서 분명히 아셔야 될 부분들이 있고 사실은 이게 생각보다 가담의 정도, 개입의 정도가 심각하다라는 취지에서 몇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요.

윤석열이 당선되고 20일 만에, 그러니까 2022년 3월경에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 팀장이었던 김 모 서기관이 경동엔지니어링의 강 모 회장 그리고 동해종합기술공사의 김 모 대표를 만나서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마치 최종 노선인 것처럼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면 용역계약 수행의 편의를 봐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용역사 오너들은 수용을 했고 다시 김 모 상무 또 이 모 부사장에게 그걸 전달을 해서 강상면 종점안이 이미 예타를 통과했던 양서면 종점안에 비해서 더 우수한 것이라는 내용의 타당성조사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지시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지시한 이후에 현장에 가 보지도 않고 제대로 된 현장조사도 없는 상태에서 일주일 만에 강상면으로 종점안을 변경하는 안을 만들어 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이미 여러 위원들이 이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또 이런 분들을 증인으로 불러 세워서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때 답변 내용이 ‘외압은 결코 없었고 기술자적 양심을 갖고 한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원희룡·박상우 장관 이런 분들도, 당시 차관 이런 분들도 그리고 심지어는 이 자리에 계신 국민의힘 위원님들조차도 민주당의 주장은 가짜뉴스다, 괴담이다, 날파리 선동이다, 조작이다, 왜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저는 그 책임으로부터 모두가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무리하게 개인의 사익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벌여 냈고 이것이 계속해서 의혹이 커지고 국정감사라든지 실체가 밝혀지다 보니까

결국 저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12·3 계엄과 같은 무리한 조치를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 이것을 옹호했던 분들의 책임이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반성도 필요하다. 그 과정에 국토교통부 안에 관계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모든 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똑같이 물을 수는 없다고 보지만 핵심적으로 관계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엄히 책임을 물어서 도려내야 한다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그 서기관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용역업체에게 지시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분에게 그것을 지시한 윗선이 반드시 있을 건데 그 윗선을 밝혀내기 위해서 국토부 안에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특검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국토부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위원님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국토부 공무원들이…… 저는 옥석을 구분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또 그런 일부 부역한 공무원들에 대해 어떤 결과에 따라서 단호히 대처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다만 공무원으로서 정말 선량하게 열심히 일한 국토부 공무원들의 사기라든가 의지 이런 것들이 꺾이지 않도록 그 점도 충분히 고려해서 균형감 있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송기현 위원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대 위원님.

○**신영대 위원** 후보자님, 국토부장관 지명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감사합니다.

○**신영대 위원** 지금 미국과 통상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하나 있는데 아시다시피 구글·애플이 우리 정부에 5000 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승인을 계속 요청해 왔고요. 이 문제를 그 기업만 요청한 것이 아니라 실제 미국 트럼프 정부도 이런 고정밀 지도를 반출하는 것을 승인해 달라는 것이 통상의 과제로 들어갔다는 보도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국토부는 반대 입장을 죽 취해 오셨는데 이것이 만약에 반출된다고 한다면 드론, 자율주행, 로봇, 위치 추적 서비스, 심지어 식당, 카페 이런 정보까지 다 넘어가서 단지 군사적인 문제, 치안뿐만 아니라 재난관리 또는 우리 기업의 어떤 이익의 침해 이런 것까지 나올 수 있는 결과라서 이런 데이터들을 반출하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 정부 내에서 꾸준히 협의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맞습니다.

○**신영대 위원** 그런데 이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보니까 국토부를 비롯해서 산업부·외교부·과기부·국방부·행안부·국정원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회의체는 만장일치제지요? 한 부처라도 반대하면 반출 승인이 어려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신영대 위원** 그런데 어쨌든 최근에 통상 당국 고위 관계자가 관세협상을 위해서 반출을 허용한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실제 국토부의 관계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입장이 나온 것이 ‘안보·기술 문제가 결합돼 당장 긍정적인 답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후보자님 생각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일단 공간 정보에 대한 책임은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국방부·국정원·외교부에서 여러 협의체가 있고 거기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통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뭔가 진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보다 우선하는 문제는 어떤 국방 문제라든가 또 국민의 안전 이런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1 대 5000 정도에 상당한 지도는 굉장히 정밀한 지도이기 때문에 실제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도 그것을 공개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대 위원** 철저하게 국민의 이익 중심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신영대 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 얘기이긴 하지만 새만금은 역대 정부에서 항상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정국적으로 정치권의 논쟁이 있었던 사항인데요.

아시다시피 2023년 8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이후에 그 책임을 지역에 돌리면서 실제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가 국회의 노력에 의해서 일부 복원되었던 경우가 있고요.

그 시점에 새만금 MP 계획을 새로 조정하자라고 해서 그때 용역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2024년 4월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이 착수되었고 11월에 중간보고까지 이루어졌고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 연말에 용역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사이에 정부가 바뀌면서 새만금을 바라보는, 새만금 내측 개발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만금의 해수유통을 통해서 수질 개선을 하겠다는 해수유통의 확대 공약도 대통령님께서 하셨고 또 새만금에 추가로 수문을 만들고 조력발전 하는 것도 공약을 하셨고 또 RE100 산업단지 공약도 하셨고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정부에서 임명된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같은 경우들은 그냥 이런 새로운 변화된 환경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실제 입찰들을 진행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최소한 용역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그리고 특히나 최종 용역 같은 경우들은 새 정부, 이재명 정부 기조에 맞게끔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신영대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다면 그 용역 결과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선 용역을 멈추는 것이라든지 또는 그 과정에 새 정부의 정책기조, 국정위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것을 담아서 용역의 방향들이 정해져야 될 것이다, 용역 과제의 지시사항이 달라질 것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새만금 MP에 대한 그 계획도 실제로 좀 더 진보적이고 전향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실

상 시간 끌기에 가까운 형태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약한 그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담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개발공사 같은 데서 상당히 지금 그런 구체적인 기반에 관한 내용들이 부실한 채 어떤 발주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잘 살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중단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그 내용과 관련해서 MP 그럴 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국토부에서도 요청을 해 온 내용인데요,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로 저희 정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새만금에 국제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가 있는데 그 앞에, 바로 앞에 활주로 끝부분이 농생명용지입니다. 여기에다가 뭘 하려고 하나면 복합곡물단지, 유기농업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기억하시다시피 얼마 전에 조류 충돌 때문에 무안에서 큰 참사가 일어났는데 활주로 주변에는 가능하면, 조류들이 접근을 할 수 있는 이런 농업용지를 조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MP를 새로 할 때,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대하고 있는데 농림축산부하고 직접 담판을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나아가서 국무회의에서 논의 과제로 올려서 함께 토론을 한번 해 보시는 데 대해서 이런 것들은 좀 미리 대비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이번 제주항공 참사에서 보듯이 조류 문제가 사실 심각한 항공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있고요. 저는 군산 새만금 공항과 연동돼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서 해결책이 있다면 해결책을 꼭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재옥 위원님.

○**윤재옥 위원**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후보 지명되고 나서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모든 계정을 폐쇄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준비 과정에서, 좀 갑작스럽게 임명되는 과정에서 청문회 준비에 집중하고자 그런 걸 하게 되었습니다.

○**윤재옥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서면답변으로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관후보자께서는 의정활동을 쫓 해 오셨고 또 거기에서 남긴 글, 사진은 사실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인데 이게 사생활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무자들이 잘못 건의한 것 같아요. 아니, 당당하게 의정활동을 했었고 올릴 때 이미 의원들은 어느 정도 검증은 해서 올리잖아요. 그런데 굳이 폐쇄하고 이러니까 무슨 큰 비밀이라도 있는 것처럼 괜히 의심의 눈초리를 받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 같고요.

다음, 장녀 문제 자꾸 거론이 되는데 올 초에 재산등록 할 때는 고지거부를 안 했어요. 그런데 후보자 되고 고지거부를 했단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그러니까 저희 딸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국회의원인 것에 대해서 주변에 거의 알리지 않을 정도의 굉장히 소극적인 성격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장관까지 된다고 하니까 사실 큰딸은 자기는 정말 그렇게 안 하고 싶다, 이런 아주 굉장히 강한 의사를 가지고 있고요.

○**윤재옥 위원** 자녀들의 뜻을 존중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윤재옥 위원** 그런데 조금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실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또 독립적으로 주거를 가지고 있어야 고지거부가 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윤재옥 위원** 그런데 독립적으로 생활을 한 것은 이미 2022년부터예요. 그때는 쪽 이렇게 신고를 하다가 갑자기 장관 되고 또 고지거부를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SNS 폐쇄한 것과 마찬가지로 괜히 의심을 받게 되는 요인이 된다 이런 입장이 있다는 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리고 재산신고와 관련해서 2020년도에 후보자 재산이, 순수 재산이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윤재옥 위원** 2025년도에 이렇게 순수 재산이 13억 4000으로 5년간 9억 4000만 원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게 한 푼도 안 쓰고, 두 분이 맞벌이를 하고 계시는데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한 7억 5000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지금 소명이 잘 안 돼요, 그것 소명을 하라 그래도 자료도 안 주시고. 이런 부분은 설명할 수 있으면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리고 후보자가 재산이 많지는 않은데 지금 신고 관련해서 좀 특이한 사항이 2006년도부터 도의원을 하시고 죽 공직생활을 해 왔는데 스물여섯 차례나 사인 간 채권·채무가 있어요. 보통 공직자들이나 또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이하게 스물여섯 번이나 사인 간 채권·채무가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기재된 것 자체가 좀 특이하고요.

보통 사인 간 채무라는 것은 금융기관에 빌리기 어렵거나, 또 채권·채무 관계가 사실 소명이나 규명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특징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윤재옥 위원** 사인 간 채권·채무 이것 하면 공직자들한테는 결코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가능한 있는 그대로 신고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윤재옥 위원** 있는 그대로 하시는데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공직에 있는 사람이 사인 간 채권·채무가 스물여섯 차례나 재산등록사항에 기재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별로 바람

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구경북 신공항 문제 이것 어려운 지금 현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하셨어요. 이것 지연이 되고 있는 사유를 조기에 해소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지난번 광주를 방문했을 때 광주 민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다, 그래서 TF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TF도 만들고 앞으로 6자 협의체 구성도 하겠다고 또 그 이후에 발표도 했습니다.

지난 6월 26일 날 민주당 대구시당하고 대구시가 당정 협의를 해서 대구도 TF를 좀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답이 없어요. 장관후보자한테도 서면질의를 했더니 그냥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만 있고 TF를 만들겠다는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만들어야 되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윤재옥 위원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이 사업은 재원이 워낙 많이 들어가요. 10조 이상 들어가는 사업을 지자체에서 어떻게 합니까? 국가 책임이 맞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광주 공항, 광주에 가서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대구하고 광주가 다를 바가 없잖아요. 후보자께서도 즉 지역민의 입장을 대변해 오셨잖아요, 특히 지역 발전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윤재옥 위원 다 마찬가지로입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다면 똑같은 조건인데 광주만 TF 만들고 대구는 TF 안 만들면 대구·경북의 시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후보자가 언젠가는 이런 말씀 하셨어요, 박근혜정부는 경상도 정부라고. 그러면 대구·경북에서는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전라도 정부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균형발전이나 국민 통합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윤재옥 위원 그러니까 유념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윤재옥 위원 지방의 지금 미분양 해소 이것 정부가 아직까지 답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아서 오후에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같이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준호 위원님.

○정준호 위원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출신의 정준호 위원입니다.

우선 후보자 지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감사합니다.

○정준호 위원 오전에 저희가 주택 정책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해 왔었는데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염태영 위원님은 LH 매입 실적과 관련해서 신속한 인허가 증가하는 것 주문을 해 주셨고 또 이연희 위원님께서도 공급절벽과 관련된 내용으로 3기 신도시 속도를 내겠다라는 후보자님 답변에 확고한 스케줄로 분양과 관련된 내용을 국민들이 체감되게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인허가·착공 실적 기준으로 보면 착공 기준으로……

지금 PPT 한번 보면서 얘기할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도에 38만 호, 23년도에 24만 호, 24년도에 30만 호 했다가 지금 상반기에는 7만 4000호 정도로 딱 떨어져서 절벽이 실제로 확인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연희 위원님께서 대책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지명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표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우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5년 동안 얼마 정도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목표 제시를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270만 호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정준호 위원 270만 호라고 제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체감을 전혀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분양원가가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존경하는 이연희 위원님께서도 확고한 스케줄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저는 이걸 약간 표현을 바꿔 가지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실적 관리와 통계 발표가 수반되는 공급 계획을 발표를 해 달라라고 제가 우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장선상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지 않은 부분을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LH 나 SH, GH 등 공공기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와 관련해서 토지임대부와 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분양 아파트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정준호 위원 토지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건물 부분만 소유자가 소유를 하거나 공공기관 지분을 몇십 년간 소유자에게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이 기발하기도 하고 참신하기도 했었는데 후보자께서 이와 관련해서 장관으로 임명되신다면 이런 공공분양 아파트가 새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떤 부분이 특히 또 돋보여서 발전이 될 것인지, 새로운 형태의 뭔가 대안이 제시가 될 것인지 의견을 한번 간단히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그러니까 제가 새로운 제시안을 여기에서 이렇게 제시하는 건 좀 그럴 것 같고요.

저는 아파트 공급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확실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확실하게 진행한다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매우 공공적 성격이 계속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거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지분적립형도 있고 이익공유형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은 좀 더 추후에 다양한 것들을 개발하면서 특성에 맞게 다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공공분양 아파트를 제가 좀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주택이라든지 실제로 지금 체감되는 수요가 있는 부분에 맞춤형 공급책이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방 미분양 관련해서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윤재옥 위원님께서도 오후 질의에 하신다라고 했는데 우선 저는 광주와 관련된 통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말 들어 보니까 불 꺼진 새 아파트라고 표현을 하던데 미분양 아파트가 4년 만에 최대치로 증가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좀 있었고요.

PPT 보면서 한번 볼까요.

광주하고 전남 지역 보면 2021년 하반기에 27호에 불과하던 미분양 주택이 25년 3월에는 1366호로 무려 50배 넘게 증가한 통계가 확인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대책으로 내세운 게 LH 통해서 미분양 매입 제도를 선보이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PPT 보시면, 현재까지 전국에서 매도 신청 건이 3500건 정도인데 매입 심의를 통과한 건이 한 730호밖에 안 됩니다. 실매입은 아직 한 채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미분양 심의 통과율이 저조한 이유를 후보자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일단 미분양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고 정부의 의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적극적인 대책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서 되고 있다. 오히려 의지를 가지고 좀 예산도 투입해서 진행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준호 위원** 저희가 더 세부적으로 좀 분석을 해 보니까 제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LH의 주택 산정 가격이 실제와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매입 상한가가 감정평가액의 한 83% 수준으로 설정이 됐는데 이 상한가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실제로 있긴 있습니다. 매입 상한가 현실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지방의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속에서 저는 재정 투입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을 적극적인 면에서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조건에서 계속한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그런 담보 상태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준호 위원** 다음 PPT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단가하고 평균 분양가가 변동된 수치를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 아래쪽 보면 전국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2011년도에는 840만 원에서 2025년도에는 130% 정도 증가해서 2000만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호당 매입단가는 거의 차이가 없고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현실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의견 있으면 잠깐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

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리고 시간 잠깐 남아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보면 건축단가가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분양원가도 그것 따라가고 거기에 건축단가를 떨어뜨릴 만한 건축기술도 속도가 더디다라는 지적들이 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건축단가가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안이 있다고 하면 의견 한번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일단 취임하면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잘 살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예, 나머지는 오후 질의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점식 위원 경남 통영시고성군 출신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장관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감사합니다.

○정점식 위원 오늘 후보자님의 모두발언에서 ‘균형발전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장관이 된다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5극 3특 경제생활권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지역구가 전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정점식 위원 저 역시 굉장히 남쪽 끝인 통영·고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토의 균형발전이 절실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님과 저의 생각이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 5극 3특에서 3특이 전북, 강원, 제주라고 명시는 하셨는데 5극은 어디를 지칭하시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수도권, 부울경, 충청권 그다음에 광주·전남권 뭐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렇습니다. 각 권역별로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후보님이 만약에 장관에 취임하신다면 장관 임기 내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정점식 위원 잠깐 PPT를 보면서, 소위 국무위원으로서 헌법 수호와 법치주의 실천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후보자님의 범죄경력조회 등 회부된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은 87년 3월 15일에 집시법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받으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정점식 위원 그 당시에 대학 학내시위와 관련해서 총장 차를 방화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한 열다섯 분 정도가 제명 처분을……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제적당하고 구속되고 그랬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경력을 보면, 99년 12월 17일에 검찰에 송치된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사건을 2000년 10월 달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지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소위 말하면 민혁당 사건입니다. 민혁당에서 활동을 한 게 맞고요. 민혁당 활동하는 과정에서 실제 전체적으로 논쟁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친북적 성격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당시 민혁당 내부에서 논쟁이 벌어졌고요. 상당히 긴 시간, 거의 1년 정도의 논쟁이 있었고 결국 현재 우리가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 사회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사회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혁당을 자체 해산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자체 해산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게 민혁당 중앙위원인 김영환 등을 중심으로 한 민혁당 상층 지도부 쪽에서 조금 전에 후보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가지고 민혁당 해산 결정을 내리게 되고 거기에 동조한 소위 지역위원회, 민혁당은 3개의 지역위원회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석기를 중심으로 하는 경기남부위원회 그리고 박경순을 중심으로 하는 영남위원회, 그리고 후보자님을 중심으로 하는 전북위원회였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3개, 전국적인 성질을 띠고 있었지요.

○정점식 위원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다만 조직을 해산하는 결정에 반대한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이석기 이런 분들이 반대한 것이지요.

○정점식 위원 그렇지요. 경기남부위원회와 영남위원회 쪽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반대했지요.

○정점식 위원 반대를 했고 전북위원회는 민혁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지고 해산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동의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참여했지요. 당시 전라북도에서는 거의 전국 유일하게 한총련을 전북총련이 탈퇴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렇습니다. 9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서 한총련과 전북총련이 소위 이념대결을 벌이게 되고 그 과정에서 후보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게 결국 전북총련이 한총련에서 탈퇴하는 계기가 된 거고, 그게 이어져 가지고 결국 민혁당 전북위원회에서도 소위 민혁당 상층 지도부의 해산 결정에 따라서 해산을 하게 됐고 이 사건이 결국은 그 이후에, 99년에 국정원과 검찰에서 민혁당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돼서 송치가 되고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00년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좀 더 부연설명 드리면요 위원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조직이 해산되고 활동이 없어진 거지요. 그리고 저는 다른 형태로 당시 공개된 시민운동으로의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부 계속적으로 친북 활동을 해야 된다고 고수했던 사람들이 일정한 수사를 통해서 다시 포착이 된 겁니다.

○정점식 위원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자체 해산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런 것들이…… 해산했지만 수사는 받아야 된다고 해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겁니다.

○정점식 위원 후보자님이 이 사건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독재정부에 저항하는 과정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당시 민혁당의 실체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하고 북한 노동당 강령에 나오는 NLPDR, 즉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을 한국사회변혁운동론으로 받아들여서 활동하고 가장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환 씨 등은 조선노동당에 입당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 가서 김일성과 같이 접견했던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그런데 오히려 김영환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얘기를 해 봤는데요 오히려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의 실상을 보고 온 계기가 실제 자신의 활동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당시에 운동 진영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이 어떤 명약관화한, 이견 친북 주사와 조직이다 그렇게 해서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독자적 활동과 많이 섞여 있고 혼동되어 있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적이고 입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점식 위원 결국 중요한 거는 후보자님의 지금 생각, 그 당시에 전북위원회를 해산할 때의 생각은 주체사상과 이런 부분을 완전히 버렸다, 아니다라는 생각은 확고하신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저는 그걸 절연해야 된다, 그래서 진보 진영이 이 문제와 절연하지 못한다면 이후에도 심각한 후과를 남길 것이다, 그리고 그걸 분명히 절연하는 데 기초해서 행동 방식, 활동 방식을 바꿔 줘야 되고 당시 한총련 뭐 이런 식의 어떤 폭력 투쟁 위주의 활동을 지양하는 것으로 변화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견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의 마지막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님.

○송기현 위원 강원 원주를 송기현 위원입니다.

장관후보자님께서 국토부장관후보자 지명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특히 후보자님께서 지방이 지역구인 의원이시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의 책임자인 국토부장관의 후보로 지명돼서 저는 더욱 반가웠습니다. 특히 전북이나 강원도나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의 우려가 어느 지역보다 큰 지역 아니겠습니까? 더 깊은 이해를 가지시고 이 점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장관 되시면.

지금 국토부에서 해야 되는 가장 큰일 중의 하나가 주택 문제지요. 사실 주택값, 집값의 경우에는 국토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주택공급밖에 사실 없어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송기현 위원 나머지는 대부분 우리 국회로 얘기하면 정무위 소속이나 기재위 소속,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송기현 위원 그만큼 공급 부문에서는 국토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

리 후보자님께서 그동안 장관후보자로 지명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첫째는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는 그대로 한다. 대신 속도를 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활용 가능한 부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부 때 3만 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하면서 수도권 부근에 유희 부지, 공공택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한 500세대 이상 되는 열여덟 곳을 지정했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송기현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곳은 한 곳밖에 없었어요. 여러 곳들 중에서 한 곳만 됐고 나머지는 다 지지부진해요. 특히 1순위였던 태릉CC 부지 같은 경우는 주민 반대로 1만 가구에서 6800가구로 축소가 됐고 대체 부지인 육군사관학교 부지 같은 경우는 국방부가 육사 이전을 반대하는 바람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지지부진해요. 정부과천청사나 국립외교원 부지도 마찬가지로 주민 반대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새로운 공급 부지를 만들어…… 새로 어디 물색을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 가면서 추가로 더 확보하시겠단 생각이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저는 일단 새로운 곳을 물색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고요.

○송기현 위원 그렇습니까? 새로운 후보지를 물색하는 데 상당히 좀…… 간단하지는 않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송기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 내 유희 부지 말씀하셨는데 그게 만만치는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확실하게 살펴보고 로드맵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위원님, 유희 부지 공간을 활용하는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를 했지만 실제 주민 반대나 지자체와의 어떤 이견 이런 게 상당히 복잡하게 꼬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척이 안 된 측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수도권에 어떤 공급이 이루어지려면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도록 만드는 데 저는 중요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유희 부지로 활용한다는 그 방향이 옳으나 그르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면 부지를 잘 선정하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유희 부지에 대해서 과천청사 일대나 여러 가지 부지가 선정돼 있는데 일례로 예를 든다면 과연 장관이 이런 데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주민들과 협상을 해 봤을까, 주민하고 대화를 해 봤을까. 정말 우리가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는 이 정책이 실제 어떤 정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적극행정과 현장행정이 어떻게 작동되었는가까지 같이 봐 주지 않으면 저는 본래의 답을 낼 수 없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기현 위원 어쨌든 장관님 의지 가지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시고, 한편 제

가 걱정하는 것은 과연 장소를 적절히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좀 걱정되는 부분이니까 적절히 부탁드립니다.

한편으로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유희 부지를 통해서 또 어떤 공급지를 통해서 정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된다고 하면 수도권 주택이 경쟁력을 키우게 되면서 더욱더 수도권의 주택 가격을 상승시킬,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이것 지방하고 같이 연결된 문제인데 점점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만 오르고, 실제로 지방 아파트 가격은 그렇게 오르지 않을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주택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도권의 문제인 거지요. 그런 점에서도 같이 관심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의 주택 정책에서는 별도의 기준과 별도의 생각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아파트 경우에 어느 기준에 따라서 똑같이 면적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소형 주택에 대한 신청이 많지만 오히려 지방 같은 경우는 중대형 같은 게, 중형 정도의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방하고 수도권을 똑같이 해 버리면 오히려 지방에는 수요가 많은 부분이 없고 수도권은 또 수요가 많은 부분이 적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방과 수도권의 기준을 다르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아주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후보자님께서서는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지역구 입장을 잘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시고.

또 하나는 지방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 실제로 수도권과의 경쟁력 같은 문제가 있을 때 똑같이 양도소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취득세라는 것을 같은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지방 주택의 경쟁력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미분양 주택을 보더라도 지방이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미분양 주택이 해소가 잘 안 돼요, 지방이. 그만큼 거기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 문제는 마찬가지로 지방경기 활성화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후보자님께서 아마 공감하시리라라고 생각되는데 간단히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을 똑같은 잣대로 진행을 하는 그런 일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세금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규제도 그렇고 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예타 제도에 대해서도 저는 마음 같으면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단순 어떤 경제성만을 따지는 이 B/C 제도의 문제점들이, 수도권과 지방이 다르게 적용되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저는 뭐라고 그럴까, 지방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지방 소멸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좀 노력하겠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떠나서 지방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서 그런 문제의 개혁이 함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성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전에 있었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관련하여 행정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장녀 대여자금 등과 관련한 자료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정회 후 위원님들께 해당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이외에 요구하신 9건 정도의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이 어렵다는 것이 후보자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후보자께서는 그 사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일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일단 현재 상당 부분의 과거 자료는 아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제출이 어렵다는 말씀 올리고요. 또 저를 제외한 우리 가족들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사적인 형태의 관련이 있는 문제여서 또 신상 문제와 관련이 된 문제가 있어서 자료제출 못 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자료제출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희정 위원 제가 요청한 건 안 들어왔는데……

○위원장 맹성규 말씀하세요, 김희정 위원님.

○김희정 위원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얘기했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앞서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도 사인 간 채무가 26건이나 있어서 일반적이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서 특히 저는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두 분에 대해서 짚어서 채무 관련 이자나 원금 상환 내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 중에 뭐 하나라도 제출하면 되는데 제출 불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역시 이해충돌 관련해서 분양권 획득 및 전매에 관련된 자료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제출 불가라고 해서, 이거는 말씀하신 가족 문제도 아니고 신상의 문제도 아니고 너무 과거 자료라서 해당되는 내용도 아니고 그냥 본인 동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는 늘 해 오던,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해 오시던 분이기 때문에 늘 해 오던 재산 부속 자료로 충분히 낼 수 있는 자료인데도 안 주셔서 이걸 어떻게 납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순히 재산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장관으로서 건설업체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충돌과 관련된 내용이라 꼭 검증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 계속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맹성규 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제출 현황을 위원 좌석에 배포

했는데 예컨대 4억 7000만 원 대여 관련해서 제출을 완료했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제출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자금 출처가 없습니다. 1억 8000만 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다음에 5억 5000만 원, 경남아너스빌 전세금 5억 5000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허위로, 이러한 내용의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출 완료했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문제이지 않습니까? 제출 불가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게,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덕목 중의 하나가 청렴성입니다.

그리고 우진건설로부터 후보자가 돈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제출 불가라고 하네요. 지금 우진건설이라는 업체가 어떤 업체냐 하면은 후보자와 관련된 지역에서 관급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예컨대 후보자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서학동 예술마을 정원화 사업, 여기에 66개 업체가 투찰을 했는데 우진건설이 1순위로 수의계약을 합니다. 더 문제는 서원로 위험도로 선형개량 공사 사업을 하는데 371개 업체가 투찰을 했습니다. 1순위가 다른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2순위인 우진건설이 낙찰을 받는, 이런 회사와 전에 금전 거래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드시피 국토교통부장관이라는 자리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자리라는 거는 후보자도 인정하고 다 인정합니다. 특히 대통령실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게 민주당의 주거복지특별위원회입니다. 그 자료를 왜 안 줘니까? 저도 분명히 자료 요구를 하면서 말씀드렸드시피 이것은 후보자에게 호재이고 유리한 면이 있다. 이때 회의했던 자료, 그때 여당이었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내고 이러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전문성이나 자질 면에서 역량이 있다고 입증 되는 그런 자료일 텐데 이걸 안 낸다? 정당이 이 자료를 낸 전례가 없기 때문에 못 낸다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김희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맹성규** 아니, 잠깐만. 지금 위원님들 얘기를 다 종합적으로 한번 듣고요.

말씀하시지요.

○**이연희 위원** 자료제출 요구 관련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계속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물론 조선이긴 하지만 당직생활도 오래했는데 정당의 특위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런 요구는 제가 처음 들어 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상대 당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설사 그 자료를 제출한다 해서 말씀하시는 전문성을 입증하겠다는 거 하는 부분도 저는 선뜻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대 당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자제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아파트 분양권 전매와 관련해서 자료가, 분양이 2006년에 이루어진 건데 벌써 19년 전 사안인데 이 자료를…… 지금 후보자가 얘기하는 것은 ‘없는 자료는 제출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시간이 오래 경과해서 자료가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야당 위원님들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대체로……

○**김희정 위원** 아니,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후보가 아닌 같은 청문위원으로부터 듣고 있어야 됩니까?

○**이연희 위원** 아니요, 의사진행 관련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대체로……

○**김희정 위원** 아니, 청문위원회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위원장 맹성규** 아니, 제가 위원님들한테 문제점을 듣고요. 그다음에 후보자님한테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연희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래서요 의사진행발언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위원장 맹성규** 그렇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연희 위원** 대체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은 윤석열 정부에서부터 제출을 안 했어요. 그런 것이 관행이 되어 왔는데 개인정보, 특히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자료들은 저는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겠단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맹성규** 예.

○**김도읍 위원** 기본적으로 자료제출 요구라는 것은 청문위원들이 위원장님께 제출 요청을 말씀드리고 제출 여부 또는 사유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후보자로부터 들어서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공표를. 그런데 어떻게 민주당 위원님이 나서서 ‘이런저런 사유로 요구하지 마라’, ‘이런 자료는 못 낸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은 회의 진행의 정도가 아닙니다.

○**위원장 맹성규** 아니, 위원님 그렇게……

○**김도읍 위원** 아니지요.

○**위원장 맹성규** 예, 말씀의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쪽 다른 인사청문회도 보고 해도 기본적으로 인사청문회가 가지고 있는 제한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사례로 볼 때……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몇 가지 납득을 못 하시는 면이 있으니까 후보자께서 좀 더 명확하게 왜 어떤 자료는 어떻게 안 되고 어떤 자료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 보시지요.

○**김희정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위원장 맹성규** 아니, 먼저 설명을 듣고 하시지요.

○**김희정 위원** 아니요, 다른 자료입니다, 아까 재산 관련된 말씀 드렸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병적원부 제출했다고 해서 제출된 걸로 알고 지금 봤더니 제목 ‘병적원부’ 그리고 본인 이름만 적혀 있고요. 실제 병적원부에 들어가는 내용은 그냥 가리고 이렇게 병적원부 제목만 썼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이것 누가 제출한 거예요?

○**김희정 위원** 이렇게 주실 거면 왜 주시는 거예요?

○**위원장 맹성규** 이것 자료를 제출한, 보조해 준 사람이 있을 것 아니야.

김 국장이 했어요?

○**국토교통부감사관 김석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이게 병적원부야? 보세요.

○**김희정 위원** 병적원부 제목만 있고 김윤덕 이름만 있고 내용은 다 가리고 그냥 이런

게 주면 이게 무슨 병적원부예요?

○위원장 맹성규 김 국장, 내용은 봤습니까?

○국토교통부감사관 김석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아니, 확인하다니. 이걸 아닌 것 같고 차라리 없다고 그러는 게 낫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아니, 있는데요.

○위원장 맹성규 그러니까 있으면 정확하게…… 이 내용이요, 이걸 제출 안 하느니만 못 한 자료야. 아니, 제목 있고 다 백지로 낼 거면 뭣 하러 내, 없다고 그래야지. 그렇지?
김 국장, 이것 자료 있어요, 없어요?

그것 포함해 가지고, 후보자님 그것 포함해서요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일단 병적기록서는 백지인 부분이 다른 사람 정보여서, 실제 저희들이 병무청에서 가져온 자료 전부입니다, 이게.

○위원장 맹성규 그러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그런데 다른 건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위원장 맹성규 예, 병적 자료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그리고 센트럴파크 분양권 획득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가 아예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낼 수 없다는…… 제가 구두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채무 관련해서는 지금 일단 병원장인 분한테는 빌려서 현재 이자를 갚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진건설은 잘못 표기된 거예요. 우진건설에 다니는 사람에게 빌린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선거하면 선거 때 먼저 돈을 쓰고 나중에 보전금이 나오면 갚게 되는데 단기적으로 일단 선거 때 급해서 빌렸다가 그것을 바로 갚은 거여서, 실제로 가까운 후배인데 계약서 쓰고 차용증 쓰고 한 게 아니고 보전금 나오면 바로 갚은 겁니다. 그래서 그해 빌려서 그해에 갚아 버린 경우여서, 보전금 나오면 바로 갚은 사례여서 실제 기록이 없고.

거기 재운건설 회사에서 빌린 게 아니고 거기에 다니는 회사 대표한테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후배니까 좀 빌리자 해서 갚은 겁니다. 그래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는 거고요. 그런 겁니다.

○위원장 맹성규 지금 후보자께서 분양권은 거의 20년 가까이 돼서 자료가 없다고 설명을 하셨고요. 병원장 채무 관계는 지금 이자를 지급하고 있고, 우진건설은 건설회사가 아니라 관련되는 지인한테 채무를 하고 완료했다는 설명이에요.

위원님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맹성규 예, 말씀하세요.

○김도읍 위원 조금 전에 후보자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 관련해서 답변을 요구했거든요. 답변을 요구하니깐 지인에게 빌렸다, 그런데 지인 근무 회사명을 잘못 기재했다 이렇게 됐거든요. 모두 상환했다 했는데 그 외 구체적인 소명과 관련 자료를 제

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재산신고에는 우진건설로부터 빌린 걸로 돼 있는데 우진건설이 아니고 우진건설 대표로부터 빌렸다 이거거든요.

○위원장 맹성규 거기 다니는 지인……

○김도읍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대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그것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후보자가 다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수의계약으로 2건이나 공사를 한 적도 있다고.

그리고 선거 때 바로 잤다고 하는데 2012년 8월과 2013년 3월이예요. 후보자께서 19대 총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총선 끝나고 한참 뒤에, 또 13년이면 총선 그다음 해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그러니까……

○위원장 맹성규 후보자님 설명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그러니까 김희정 위원님한테는 거기 대표라고 표기해서 제가 보고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자료를 다 일일이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뭘 숨기거나 하는 의도가 없고.

그러니까 제가 선거를 2012년도에 보전금 때문에 돈을 빌렸고 또 선거사무실 쓰던 곳을 의원사무실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이 거의 그냥 임시로 쓰여진 사무실에서 여기저기 돈을 빌린 거지요, 가까운 분들에게. 그것에 대한 정산을 진행했는데…… 그러니까 이 출처가 여기에 맞고 저 출처가 여기에 맞고 해서 빌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걸 좀 심플하게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올리구요.

그다음에 김00이라는 개인 이름을 말해서 참 답답한데요. 건설사와 연동이 되어서 하려고 하는 건 굉장히 무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리한 추측으로 되지 않겠느냐 했고,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그래서 일단 급하게 정리해서 진행하는 상태로 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맹성규 예, 간사님.

○권영진 위원 제가 여섯 가지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제출해 달라고. 두 가지는 완료했다 그리고 네 가지는 제출 불가거든요. 제가 후보자 및 자녀 학력 관련 자료 이 부분들은, 자녀 학력 관련해서는 이 부분들은 자녀들의 신상 문제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제출 못 하겠다라는 건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조금 아쉬워요. 이게 다른 것보다도 이걸 털 수 있는데, 자녀들 초중고등 학력 그것만 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의혹들이 풀릴 수 있는데 이걸 안 주니까 조금 아쉽긴 아쉬운데 이걸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김 모 씨에게 4500만 원…… 사용한 사유도 이걸 배우자 문제니까 배우자의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들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두 번째, 후보자가 장녀인 따님에게 2024년 4월 15일 4억 7000만 원을 전세자금으로 빌려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금이 후보자가 가지고 있던,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준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빌렸던 건지 또 한편으로는 금융기관에서 빌렸든지 이 부분들은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후보님? 이 부분들이 재산신고를 내가 꼭 다 봤는데도 이게 없어요. 재산 변동사항으로도 설명이 안 돼서 그러면 4억 7000만 원 그리고 밑에 있는 배

우자께서 1억 8000만 원 무이자로 대여한 것도 지금 재산신고상으로는 해명이 안 되기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한 건데 자금 출처와 관련해서는 이걸 주시지도 않고 제출 완료했다고 하니 이것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두 가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자금 출처와 관련해서 이 부분과 관련된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달라고 요청해 주십시오.

○위원장 맹성규 장관님, 지금 권영진 간사께서 얘기하신 것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일단 관례적으로 금융거래를 다 공개하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사실 저희가 돈을 빌리고 이리 맞추고 저리…… 영끌을 한 거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과정이 상당히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금융계좌 전체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린 장 모 씨 이런 분들이, 장 모 씨는 장모님이시고 김 모 씨는 저희 처남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리저리 돈을 맞추는 과정에서 병원장인 후배한테 빌린 돈도 다 그 집값을 마련하는 데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런 이야기 좀 뭐하지만 제가 2012년 당선되고 2016년에 낙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선한 이후에 굉장히 어렵게 살았고 또 토지 매각에 대해서 다운 계약서 의심도 했는데 사실 선거 떨어지고 팔아서 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집사람은 이번 작년 선거에서 저에게 질지 모르는 상태가 될 수 있으니…… 하여튼 재선 하고 2020년부터는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영끌 하면서 사실 그렇게 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복잡한 과정을 설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런 것들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 돈을 어디 부정한 짓을 했거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김00 씨 우진건설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 저도 그 사업체에서 뭘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계약 탄 것에 대한 일정이나 이런 것을 보시면 제가 관여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김희정 위원님.

○김희정 위원 후보님이 아까 지역 건설업체, 업체가 아니고 저한테는 지인이라고 수정을 해서 보냈는데 대표라고 했고요. 그랬는데 빌리게 된 경위 그리고 서류가 없는 이유는 선거 때 빌리고 보전금 받아서 그해에 갚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거짓 답변임을 말씀을 드리는 게 2012년 8월 29일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 우진건설로부터 5000만 원 빌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4월 선거 전에 돈을 빌렸고요, 6월 달에 선관위로부터 보전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8월에 다시 채무가 있다라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신 내용과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당해에 갚았다라고 얘기를 해 놓고서 다시 2013년 3월 29일 공개에 채무 상환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증거 자료도 없지만 본인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도 상당히 이제……

○한준호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김희정 위원 상당히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준호 위원 위원장님, 청문회를 진행해 주십시오, 청문회를.

○한준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리고 아까 병역기록 관련해서는 병적기록 원부와 방위로 판정이 된 신체검사 내역을 같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출 완료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제출했다고 동그라미가 쳐서 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위원장 맹성규 지금 위원님들이 제출 자료에 대해서 말씀들을 주고 계신데요.
전용기 위원님.

○전용기 위원 청문회를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구로 시간 끝 만한 내용들이 아닌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해명된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후보자 청문회 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야 그냥 자기 돈 팍팍 써 가면서 정치하고 그러다 보니 클린하겠지요. 그런데 멀리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장모나 처남한테 생활비가 없으니까 조금씩 빌려 가지고 그것 보전금 나오면 갚고 한 내용들을 ‘당신 클린하지 않으니까 이 돈 어디서 났냐, 출처를 밝혀라’라고 하는 방식으로 청문회가 계속 진행되니까 이렇게 공회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께서 좀 끊고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위원장 맹성규 예.

○전용기 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료 요구 그리고 자료제출 내용이 퍼센티지가 낮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 주시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초등학교 어디 나왔는지, 중학교·고등학교 어디 나왔는지 학력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국토부장관 하는 데 무슨 의미가 있어서 요청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자료가 굉장히 무리하고 하는 부분들은 맹성규 위원장님께서 좀 막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부친인 고 김 모 씨의 경찰 근무 이력이랑 징계 기록, 훈장 기록, 포장 기록 이런 게 왜 필요한 겁니까? 이런 걸 요구하니까 도대체 낼 수 없는 자료들이 많은 겁니다.

저도 당연히 인사청문회 과정 중에서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고 참아 왔던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과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낼 수 없는 자료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인지를 해 주시는 거고. 포괄적으로 낼 수 없고 개인 자료다, 개인정보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적절하게 정리를 해서 청문회 진행하는 것이 옳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한준호 위원님.

○한준호 위원 저도 전용기 위원님 말씀에 짧게 엮어서 말씀드리면 자료 요청을 할 때는 보통 자료가 뭐가 필요하다 정도로 요청하는 것이지 자료 요청을 빌미로 위원장을 통해서 질의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청문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위원들의 질의시간을 뺏기도 하고 전반적인 운영에 굉장히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은 지금 내신 것들에서 못 받으신 것들은 다시 자료 요청을 하시면 되는 거고 후보께서는 이것 관련해서 제출할 수 있는 내에서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전체 진행을 좀 빠르게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또 추가로 더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천준호 위원님.

○천준호 위원 신속한 진행을 요청드립니다. 청문회가 시작이 안 됐는데 좀 전에 후보자가 답변도 하시고 이게 저는 정말 잘못된 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좀 공정하고 명확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권영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맹성규 예, 간사님.

○권영진 위원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지나치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자꾸 상호 동료 위원들끼리 자극하는 얘기를 하시면 청문회가 오히려 잘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대로 추가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 제출 완료라고 한 2건인데 제출 완료가 안 됐습니다. 2024년 4월 15일 후보자가 장녀에게 4억 7000만 원을 대여한 자금의 출처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가 아니라, 지금 계약서나 이런 부분들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자금의 출처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라구요.

그다음에 같은 해 2024년…… 28일 날 후보자의 배우자가 또 장녀에게 1억 80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합니다. 그 자금의 출처 부분들도, 이게 금융기관에서 빌려서 준 건지 예금해서 준 건지 아니면 지인에게 빌려서 준 건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완료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맹성규 어떻게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자료에 대한 시각차도 있는 것 같고 자료를 바라보는, 그리고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위원장 맹성규 지금 권영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4억 7000만 원과 1억 8000만 원에 대해서 아까 영끌 해 가지고 진행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위원장 맹성규 그게 소명이 좀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복잡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맹성규 여러 가지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제가 책임지고 권영진 위원님에게 소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권영진 위원님께 좀…… 그리고 다 뒤져서 해야 되는데요. 그런 문제가 좀 꽤 있다는 말씀 올리고요.

다만 아까 ‘속였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 아까 우진건설도 그다음에 갚은 게 아니고 2012년 재산신고 연말 기준으로 해서 3월 달에 신고하니까 서류상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2012년 말 기준으로 신고한 내용이다라는 것 말씀드리면 아마 김00 대표한테 받은 것도 해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가 없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병원장 문제도 사실 금융거래를 다 보여 주면 가능하겠는데 그것도 좀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권영진 간사님한테는 보여 줄 의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지금 먼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출 완료가 됐다는 그런 기준하고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바라는 수준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지금 문제가, 계속 이의 제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위원님들, 후보자님께서 지금 이게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소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까 청문회를 진행을 하고요. 준비가 되시는 대로 자료를 받아 보고 저기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후보자님, 자료 지금 말씀하신 거요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과정도 좀 복잡한 건 이해가 되겠는데 그것을 정리하시는 데까지는 한번 정리를 하셔서 저희 청문회 종료까지는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데까지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위원장 맹성규** 일단 그렇게 하고 청문회는 오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후보자님, 먼저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감사합니다.

○**이종욱 위원** 국토교통 분야 같은 경우에 사실 국민들 관심도 굉장히 많은 내각의 핵심 부처입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이슈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도 굉장히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국토부장관 지명도 제일 늦게 된 것도 사실 그런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문제인 정부 시절 김현미 장관을 예를 들면서 전문성이 부족한 보은 인사 논란이 있고요. 후보자 본인도 ‘이 분야 전문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약간 겸손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말을 했는데, 대통령이 후보자를 이렇게 중요한 국토부장관으로 지명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 개인의 능력을 떠나서 역대 국토부장관은 주로 수도권 출신들이 또 수도권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임명돼 온 게 전체적인 과정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지방에서 중요한, 지방 출신인 분이 장관에 지명된 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토교통부가 지방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 중의 하나라고 봤고요.

○**이종욱 위원** 예,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또 하나는 특히 부동산 문제는 어떤 누군가 한 개인이, 똑똑한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실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형태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 이런 것들을 잘 이끌어 내는 사람이 더 적임자 아닌가라는 판단 했지 않나 싶습니다.

○**이종욱 위원** 알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5주간 1.75% 급등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역대 최고인데요. 새 정부 들어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는 게, 물론 최근에 공급 부족 문제도 있고 과거 진보 정권처럼 부동산 가격 폭등이 또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겹쳤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다음 자료 보시지요.

매매가격지수도 보면 역대 정권별로 비교해 보시면 노무현 정부가 42.9%, 문재인 정부가 46.9% 증가했구요.

그다음 화면 보시면 이것은 지난달에 경실련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만 서울지역 30평 아파트 시세를 추적을 해 봤더니 노무현 정부에서 2억 3000, 80% 늘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거의 두 배가 넘지요, 119%가 늘었습니다.

후보자님, 이렇게 진보 정권에서 반복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일단 지난 정부 문제보다는 이재명 정부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 사실 잠깐 시간에 집값이 늘어나는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다만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을 때 적절한 대책을 내놓은 게 6·27 대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받아 본 통계 자료를 보면 6·27 대책 이후에 수도권의 부동산이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종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했습니다. 스물여덟 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는데요.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이 지목하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진보 정권의 확장 재정 경향에 따른 유동성 확대, 두 번째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 세 번째가 수급 불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과거 과오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차별화 주장을 하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이종욱 위원 규제 완화라든지 공급 확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등 진보 정권의 과오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확장 재정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출범 때부터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31.8조 원 바로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국가채무가 400조 원이 늘었는데 이재명 정부도 국가채무를 얼마나 증가시킬지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확장 재정에 따른 유동성 공급이 부동산 폭등의 거시적인 환경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규제를 안 할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정책위의장님이 ‘세금 규제 조치도 필요하면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고, 또 중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오전에 답변하시면서 2020년대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60에서 한 80~90% 인상을 검토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퍼센티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이종욱 위원 어쨌든 이전 문재인 정부로 다시 복원하는 걸 검토하고 계신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아니요, 일단…… 위원님, 질문 도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재정 확장이라는 측면은 그 재정 확장된 것들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는 경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예, 맞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재정 확장을 부동산시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오히려 그런 돈들이 건강한 기업이라든가 주식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다면 다른 문제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종욱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그래서 6·27 대출 규제도 대통령이 ‘맛보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추가 규제를 시사했고요. 그래서 당초 약속하고 달리 손쉬운 규제 강화 쪽으로 초점이 넘어가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급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될 거고요. 공급을 확대해야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하시면서 예를 든 게 3기 신도시 일정 가속화라든지 유희부지 개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것 하나하나 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공급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역대 정부 같은 경우에는 출범 후 1~2개월 내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는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오전 답변에 조만간 하시겠다고 했는데 벌써 좀 늦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리 늦어도 8월에는 발표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지금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어떤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주택문제에 대한 이 정부의 공급 정책에 대해서 꼭 책임성 있게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나중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견태 위원님.

○이견태 위원 경기 부천시병 이견태 위원입니다.

후보님, 장관님 지명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감사합니다.

○이견태 위원 저는 원도심 재정비 문제를 여쭙보려고 합니다.

장관님, 서울·경기 포함한 수도권 전체 주민 중에 원도심 주민 비율이 제 생각은 한 30%는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지금 정확한 정보는……

○이견태 위원 통계를 제가 구해 봤는데 못 구하겠더라고요, 그 통계만 나오는 건 없어

서.

작년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1기·2기 신도시를 특별 지원을 해서 재정비하는 법인데요.

그런데 1기·2기 신도시보다 주거환경이 훨씬 열악한 게 원도심입니다. 그런데 원도심은 지금 그런 특별한 조치가 없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1기·2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왜 제정됐을까. 그것은 그 법 이전에 일반적인 재정비 지원하는 법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만들어졌을 텐데 그렇다면 원도심도 똑같은 이치로 보면 당연히 원도심 재정비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치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원도심 주민들은 어떻게 국가가 1기·2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저렇게 재정비를 위해서 지원과 특별한 조치를 해 주고 원도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이 원도심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 장관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저희 지역구도 원도심 지역입니다. 전주갑 지역입니다. 대표적으로 한옥마을 지역이어서 한옥마을을 빼놓고 나머지는 대부분 원도심 지역인데요. 그래서 원도심 지역도 노후계획도시처럼 뭔가 일정한 배려를 통해서 개발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태 위원 제가 표를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부천 지역 상황인데요. 부천의 노후주택 건축물 비율은 매년 증가를 했고, 23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 1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노후주택 비율이 전국이 53.69%인데 부천시는 62.61%입니다. 원도심 재정비가 안 되니까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도 내의 소규모정비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소규모정비사업, 그러니까 가로주택과 소규모 재건축 합쳐서 경기도가 639개 사업이 진행 중인데 부천시가 자그마치 325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지역에 따라서 원도심 문제가 심각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로주택 정비, 소규모정비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일정 부분 신규 주택 공급 등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나홀로 공동주택이라든지 기반시설, 그러니까 주차장 공원 이것이 없는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원도심 전체를 놓고 보면 이런 소규모정비사업만 가지고는 오히려 도시 전체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적인 원도심 재정비 계획이 국가 차원에서 마련돼야 된다, 이게 국토의 균형발전이 수도권과 지방 간의 문제기도 하지만 수도권 내부에서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이것도 역시 균형을 맞춰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이것처럼 거기에 동등한 수준의 원도심 지원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원도심 지원 특별법을 이미 법안 제출을 해놨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후보자님의 지역구도 역시 원도심 문제를 가지고 있듯이 원도심 주민들은 밤이 되면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이웃집 사람들과 주차 전쟁을

별이고 있고 공원이 제대로 하나 없어 가지고 코딱지 만한 공원에 노인들이 거기서 모여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라면 그곳에 서 있으면 아주 강한 죄책감 같은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른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응하는 원도심 지원 특별법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의원님께서 원도심 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할 당시에 도시재정비 촉진법을 위한 법도 일부 진행이 된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장관이 된다면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도심 정비 특별법을 검토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도시재정비법을 더 손을 봐서 현재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의 1.2배까지 개발한다든가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제대로 점점을 찾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건태 위원 아마 지금 청문회 과정을, 이 장면을 원도심 주민들이 눈여겨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국토부의 입장은 기존의 법제 가지고 원도심 재정비가 충분하다고 하는 입장이 일부 있는데요. 저는 그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법제 가지고 충분하면 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만들었겠습니까? 1기, 2기를 지원했듯이 원도심에 대해서도 국가가 똑같이 지원하는 게 형평에 맞고 국민의 평등권 차원에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되시면 정말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감사합니다.

○김도읍 위원 식사는 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조금 했습니다.

○김도읍 위원 고생하십니다.

우진건설 이야기 조금 더 합시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김도읍 위원 후보자님께서 우진건설 대표와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김도읍 위원 그런데 서학동 예술마을 정원화 사업하고 예수병원 앞 서원로 선형변경사업 말씀을 드리니까 후보자님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업자 선정에 제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김도읍 위원 PPT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냐 하면 후보자님 2020년 의정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빨간

박스를 쳐 놔는데 이게 서학동 예술마을 정원화 사업입니다.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후보자님 의정보고서에 이렇게 이런 일을 했노라고 지금 자랑거리로 올려놓은 건데 이거 후보자님과 관계없고 모르는 일이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리고 또 띄워 보세요.

서원으로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 사업, 이거 21대 국회의원 때 선거공보물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관계없고 모르는 일이라고 하시면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그러니까 이 사업을 모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김도읍 위원 그러면 뭘 모르신다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아까 말씀드린 모 회사와의 연동성 문제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한 거고요. 이걸……

○김도읍 위원 아니, 분명히 이 사업은 모르는 일이고 연관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거 한번 속기록 보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김도읍 위원 이렇게 본인께서 스스로 의정보고서하고 선거공보물에 버젓이 자랑까지 해서 놓고 우진건설과의 관련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모르는 사업이라고 하시면 됩니까?

후보자님, 21대 총선 1년 앞두고 2019년 5월 13일 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특임교수로 임용됐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김도읍 위원 1년 동안 월 300만 원 받았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그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김도읍 위원 이 특임교수로 계시면서 한 일이 뭐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제일 실제 많이 한 일은 그때 당시 전북대 총장님과 더불어서 지방대학 살리는 문제에 대한 큰 틀의 어떤 정책적 내용 그리고 전북대에 관한 업무들을 사실상 국회 내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고 또 이런 업무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이게 국회의원 아닐 때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김도읍 위원 그런데 후보자님 말씀 답변과는 달리, 연간계획서하고 업무보고 자료를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성과가 있다고 그러면 분명히—저 자료 한번 보십시오—성과를 업무보고 자료에 반영을 했을 건데 전혀 없습니다.

하나 한다고 한 게 문제인 정부 민선 7기 지자체 창업지원 정책 방향성 반영한 창업지원체계 재설정하겠다고 했는데 업무자료를 보면 4개월가량 자료 수집만 하다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했다는 자료조차가 없습니다. 또 교육 분야, 연구 분야, 산학 연계 분야, 각종 특강, 간담회, 연구정책협의회 운영 등을 계획하셨는데 하나도 이행 안 했어요. 창업 분야에서 간담회 1회 했는데 또 문화·예술·체육 분야 간담회 2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 참석자가 누구인지도 보고서에 없습니다. 후보자 성과물 12페이지 분량의 업무보고 자료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구체적 자료나 결과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북대 모교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김도읍 위원 그런데 임용서류를 보면 임용날짜가 달리 명기되어 있어요. 아예 명기가 되어 있지 않은 문서도 있고요. 저 자료들 보십시오. 국립대학교 교수 임용서류가 맞는지 두 눈을 의심케 합니다. 공교롭게도 후보자가 이렇게 임용된 3개월 뒤에 전북대학교는 비전임교원 채용은 공개 채용, 심사위 심사 의무화 등 임용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투명하게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특임교수로 임용되고 월 300만 원씩 1년간 받은 것 저는 특혜라고 봅니다. 만약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월 300만 원씩 1년간 보수를 받고 정말 전문가가 열심히 일했다면 전북대학교와 전북대학교 후배들이 창업 지원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정치인이 그것도 선거 1년 앞두고 1년 동안 300만 원씩 받아 가면서 아무 일도 한 게 없다, 저는 전북대학교와 전북대 후배들에게 폐를 끼쳤다 이렇게 봅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겸허하게 인정할 부분 인정하는데요.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당시에 전북대 총장님께서서는 월급 300주고 일을 너무 많이 시킨다고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요. 제가 21대 국회의원……

○김도읍 위원 후보자님, 말을 잘라서 미안한데요.

국립대학의 특임교수로서 300만 원씩 월 보수를 받았다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일을 시켰으면 그 자료가 남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적이 아무것도 없다니깐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위원님, 제가 초빙교수 일을 하면서 상당히 정무적인 활동도 많이 했고요. 제가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서 실제 혁신도시에 있는 회사, 그 공기기업들에 대한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서 제가 거의 발의해서 실제 다 통과시키고 그랬거든요. 당시에 지역인재……

○김도읍 위원 그러면 1년간 보수받은 그 대가로 뒤에 일을 해 준 겁니까? 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준비와 토론 또 알아보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실제 진행되었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전북대학교 일을 하게 된 거고요. 오히려 좀 달리 접근하면 전북대학교 출신들 국회의원이 거의 없는 조건에서 전북대 출신으로서 전북대 관련된 일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정말 더 성실하게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도읍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홍철 위원님.

○민홍철 위원 후보자님, 일단 장관 지명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아까 모두발언 하신 것 보니까 모두발언대로만 하시면 하여튼 국토부 정책이나 업무

제대로 수행하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감사합니다.

○민홍철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3선 의원이시고 그래서 오늘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런 문제들은 아마 선거 과정에서도 다 유권자들께서 판단하셨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토부장관의 업무가 여러 가지 주택 문제라든지 국토균형발전 문제 그다음에 교통, 서민, 어찌 보면 국민 전 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특히 국토균형발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민홍철 위원 그래서 지방 출신으로서 국토부장관에 지명된 이유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뜻을 소임을 다하실 때까지 잊지 않고 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현안이 되고 있는 가덕신공항 문제, 지난 7월 25일 대통령께서 부산의 타운홀 미팅에서도 부산 시민들에게 또 부울경의 시민들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까라는 차질 없이 제대로 시행을 하겠다, 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취임하시면, 여러 가지를 지금도 보고받고 계시겠습니까라는 현대건설이 수의 계약을 하려고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는데 왜 6개월 만에 포기를 했느냐…… 지금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고 한남동 관저 공사 문제까지도 논의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자체 조사를 해서 정부 계약법 위반의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당제재 반드시 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감사를 실시해서 공사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취임하신 후에 제일 과제로 이 문제를 좀 풀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현재 기재부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제재 여부에 대해서 법리적인 판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검토를 먼저 진행하고 있고요.

○민홍철 위원 이 문제는 아마 현대건설 CEO 차원에서 결정하지 못했을 겁니다, 분명히. 최고위층에서 계약도 했을 거고 사업 포기하는 것도 그런 결단이 없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국정감사 때도 제가 다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안공항 12·29 참사 이후에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잠정 조사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민홍철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어찌 보면 조종사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발표가 된 것 같아요, 중간발표라 하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단계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이 됐고 그렇게 몰아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조종사는 정말 잘했다고 봐요. 동체착륙을 비롯해서 그 위기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착륙을 했고 마지막에 사고가 난 게 로컬라이저, 방위각 설치 문제 때문에, 저는 그게 사고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공항시설 안전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았는가. 그래서 내년에 최종적인 결과가 나올 겁니다라는 유가족들의 가슴에 두 번 다시 못을 박아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할 때도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데 어떻게 최종적인 결과처럼 이렇게 발표가 되느냐, 그 측면에서는 후보자께서 정확하게 한번 판단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살펴보고 계시겠지만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민홍철 위원 그리고 현재 항공산업과 관련해서 지금 경남의 사천을 중심으로 해서 우주항공청이 와서, 아마 항공도시 특별법이 발의가 돼 있고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국토교통부와 관련되고 있는 게 한국공항공사에서 출자한 항공 MRO 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파악을 하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고 있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 지역에 항공 MRO 단지를 조성해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너무 저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특화시키고 그 항공산업을 육성할 것인가, 국토부가 지금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우주항공청을 그쪽으로 갖다 댔으면 연관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민홍철 위원 그리고 지금 부동산 문제가 수도권 문제라고 저는 봐요. 지역은 미분양에다가 부동산 개발이 안 돼서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이 되는데 비수도권은 오히려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된 이 정책을 어떻게 맞춤형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민홍철 위원 그리고 현재 또 심각한 게 국토교통부장관의 입장에서는 주택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우리의 건설산업 생태계가 지금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GDP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건설산업의 비중이, 거의 지금 아마 13% 정도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의 업무 영역이 통합돼 가지고 종합으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지금 상법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금지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 건설업체들이 오히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업계의 생태계를,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혁신 방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태영 위원님.

○엄태영 위원 충북 제천·단양 출신 엄태영입니다.

장관님 지명 우선 축하드리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감사합니다.

○염태영 위원 문체위에서 22대 때 계셨데요. 문체부장관 하실 줄 알았더니 국토부장관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국토위에도 장관 하실 분이 줄줄이 대기하고 계셨는데 좀 의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국토부장관으로서 아까 서두 발표도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국토부장관 지목하시면서 어떤 주문이 있으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특별한 주문은 아니었고요. 국토균형발전에 좀……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여러 의견을 종합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 주셨고, 국토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신경 써 달라,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중의 하나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염태영 위원 하여튼 저도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장관님 과거 이력을 보니까 2022년 대선후보 당시에 이재명 캠프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으셨데요. 그리고 대장동 논란이 거뒀던 2021년도 국토부와 경기도 국감에서는 후보자는 당시 국토위 간사로서 도지사를 아주 적극 옹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 걸로 이렇게 기록에 돼 있습니다.

이상경 1차관도 잘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 인사를 드렸습니다.

○염태영 위원 그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민주연구원에서 같이 이사 활동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사실 면이 없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장관 지명받고 대화를 했습니다.

○염태영 위원 차관님 이력을 보니까 2017년도에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도 하시고 이상경 차관 대학교수 시절에는 경기도연구원 보고서 등에서 여러 차례 대장동 사업은 획기적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칭송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보은인사, 장관님하고 같은 그런 코드인사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동의 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제가 좀 답하기는 곤란한 질문 같은데요.

○염태영 위원 하여튼 보은인사 정무적으로 얼마든지 있어 왔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차관님도 내무행정에 대해서는 전혀 경력이 없으시고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와 철학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도읍 위원님부터 여러 분들이 지적하셨어요. 장관·차관이 전문성이 미비한데 앞으로 국토부의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 또 1차관은 국토법안소위에 늘 출석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법안을 함께 다뤄야 되는데 참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저희 내부적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인사를 보니까 아주 절묘한 인사도 많이 있더군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장관, 이분은 민노총 출신에다가 철도노조위원장에다가 완전히 평생 노조만 하신 분인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임명하셨어요. 물론 여러 가지 노동현장에 대한 식견이 많다 보니까 임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차관은 고용노동부 내부에서 아주 열심히 잘하시는 그런 관료를 차관으로 앉히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참 절묘한 인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국토부는 여러 가지 기우를 가지고 있다, 위원님들이.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앞으로 장관에 임명되시면 이런 위원님들의 기우가 기우로 그칠 수 있도록 장관님, 차관님이 더 열심히 더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모두발언에 ‘우리에게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귀에 아주 쏙 들어왔습니다. 또 ‘서울·수도권은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양극화 문제, 미분양 문제, 여러 가지를 바로잡는 근본 대책도 결국 국가균형발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뉴스 검색해 보니까 국토부장관후보자께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이런 타이틀로 기사가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소신, 평소에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제가 19대 의원 시절 국토위원 할 때 처음으로 제기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진행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상당히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을 막고 지방의 발전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었고 그게 일정하게 성과가 있는 데에 기반해서 서둘러 준비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해야만 성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대가 되어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상 이걸 상당히 속도감 있게 하루빨리 진행해야 될 요소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속도감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이 더 중요합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했는데 분산효과는 있었어도 균형발전의 효과는 없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주변에 보면 어떤 지역은 완전히 그냥 거의 암흑도시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21대에 이어서 22대에서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낸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꼼꼼히 더 살펴보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살펴보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이것은 혁신도시가 아닌 인근 지역에도 공공기관 이전이 되어서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그런 이전이 돼야지만 중소도시의 마중물 역할도 하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어떤 생활 여건이 되어야지만이 정주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중소도시를 시범적인 지역으로 선정해서 비혁신도시에도 이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내용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장관이 된다면 제가 세부적으로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장관 되시면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갑 위원님.

○박용갑 위원 김윤덕 국토부장관 지명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감사합니다.

○박용갑 위원 먼저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서 한 내용을 보니까 꼭 필요한 현안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두발언에서 말씀하신 그대로만 하면 아마 성공한 국토교통부장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역대 국토부장관님들이 계셨지만 제가 죽 보니까 사실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전문성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의지하고 열정, 이것 중요하고.

그리고 국토부장관으로서 수많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열의와 의지는 있지만 예산 부처라든지 이런 것들에 걸림돌이 많이 있겠지요. 국토부장관님이 기획재정부장관이나 또는 국무총리나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으시면 아마 이런 것이 다 처리가 될 겁니다. 그 정도 힘을 가지고 계셔야 될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아까 엄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하고 똑같은 질의인데 단계를 하셨기 때문에 국토균형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똑같습니다.

사실 1차 노무현 정부 때 2014년부터 국토균형발전을 했는데 어느 정도 분산 효과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러다 2018년부터는 다시 역유출이 되는, 다시 수도권으로 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 원인이 뭐가 했더니 그게 바로 어떤 정주여건에 대한 문제들이 많아요, 의료라든지 학교라든지 교육, 문화생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2차 공공기관 이전하는 데는, 사실 지난번에 2024년도 국토부 질의답변에서 보니까 한 500여 종, 그러니까 공공기관들이 500여가 좀 넘는다고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업이 가야 되고 거기에 학교가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 지역에서 사실 학교를 나오고 그 지역에서 취업을 하고 거기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어야 이게 일극체제인 수도권을 분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박용갑 위원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것을 분산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박용갑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나 학교나 거기에 국가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진짜 과하게 줘 가지고 스스로 그런 기업들이나 학교가 내려가서 지역이 소멸되는 것을 막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 게 장관님의 뜻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적극 공감합니다.

○박용갑 위원 지난번에 의원 하시면서, 국토위원 하시면서 질의하신 것도 제가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임태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참 생존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균형발전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낀다 이 정도까지 말씀하셨으면 그리고 모두발언에서 하신 말씀들이 그 내용들이 장관후보자와 또 실·국장, 실무자들의 머릿속에서 다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박용갑 위원 그러면 그건 어느 정도 그런 의지를 다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과연 이런 것을 어떻게 이제 추진해 나가느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갖고 추진할 수 있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박용갑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도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진건설에 대해서 보니까 연 매출액이 1년에 한 27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2006년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6건에 한 20억 정도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대아수목원 전시 체험 시설공사 하는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제한경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렇지요? 제한경쟁이지요? 수의계약이 아니지요?

그런데 아까 두 건이 다 수의계약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바로잡아 드립니다. 그것 맞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혹시 카카오모빌리티 아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박용갑 위원 알지요? 택시들이 영업을 하는데 거기 가맹점이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니면서 길에서, 배회 영업이라고 하지요, 배회 영업. 그리고 타 앱에서 받아서 돈을 벌었는데 이것 수수료를 다 떼 가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박용갑 위원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지금 현재 호출 영업도 배회 영업으로 해서 카카오T하고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 이게 카카오하고 결부된 곳에서만 수수료를 떼야 되는 데……

○박용갑 위원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전체 매출에서 수수료를 떼면서……

○박용갑 위원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것은 과징금을 매기고 하지 않습니까? 이 건 좀 바로잡아 줬으면 좋겠어요. 카카오와 같은 그런 경쟁회사인 우티(UT) 같은 경우는 자기 앱에서 받은 것만 수수료를 땡니다, 20%를.

그런데 카카오는 내가 다니면서 손님을 내가 태웠는데 이것을 갖다가 수수료를 떼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박용갑 위원 또 다른 앱을 이용해서 내가 손님을 태웠는데 여기서도 수수료를 받아 가고,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바로잡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공정위에서 불공정으로 지금 했다고 알고 있고요. 또 소송 중에 있는데요 소송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떤 입법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태준 위원님.

○안태준 위원 후보자님, 안녕하십니까?

경기 광주시율의 안태준 위원입니다.

먼저 장관 지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감사합니다.

○안태준 위원 이렇게 뵙게 되니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후보자님, 위원님들 많은 질문 하셨는데 어쨌거나 이제 국토부장관님 되시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마 주택 문제일 것 같습니다. 주택 문제가 사실 지난 6·27 조치 이후에 이제 가격은 좀 잡힌다 이런 생각은 있는데, 그러니까 일견 그래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런데 소위 겹투자 형태로 전세대출을 통해서 서울의 뾰뾰한 한 채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 상승을 견인했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금지함으로써 겹투자를 막으니까 단기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막는 것은 주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또 전세대출 금지로 인해서 전세 매물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는 또 꾸준히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시장의 재상승 위험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아까 후보자님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공급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심리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국토부에서 공급과 관련해 갖고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을 활용한 주택공급정책을 세우고 공공주택의 공급을 빨리할 수 있게는 할 수 있지만 민간은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거든요.

결국은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기재부나 환경부나 자치단체와의 관계를 통해서 또 할 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공공이 좀

주도를 할 수 있는 방안 몇 가지 말씀하고 그다음에 금융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제가 항상 주장하던 게 있었는데 국토부나 기재부가 연석회의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주택과 관련해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이고요.

그리고 공급과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주택시장에서의 공급을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점을 공급으로 현실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7년에서 10년 후에 공급될 물량을 가지고 우리가 숫자놀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도표로 제시하면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실제로 이번에 입주할 수 있는 물량들을 얘기를 하고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물량들도 사실은 벌써 5년, 10년 전에 이미 계획됐던 물량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공공 물량의 입주를 조금 빨리 당기는 문제 그다음에 민간 부분에서 진행이 되지 않는 것들을 빨리 해결하는 문제 정도로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엄청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신호를 어떻게 줄 수 있느냐? 대통령님께서도 4기 신도시는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3기 신도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양한 방식의 주택공급 방법을 계속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가도 멈춰 있는 것들이 많은데 도심복합사업이나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이익공유형, 분양전환 공공임대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주택공급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여러 문제로, 사실은 이게 지자체와의 문제가 가장 큼니다만 유희부지 활용 문제나 도심복합사업을 통한 공공주택 방안도 다시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또 한 가지는 폐교들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폐교 문제는 교육청과 또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 이게 지자체에서 협의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부처 간의 협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잘 좀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안태준 위원 그다음에 아파트로만 너무 몰립니다, 사실은 이 공공주택도. 그런데 부동산리츠 등을 통해서 비아파트로의 수요 분산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건설경기도 좀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 드리자면 장관으로 취임하신다면 주택 공급 활성화에 직을 건다는 일념으로 장관직 수행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안태준 위원 그냥 제가 계속 말만 하고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제가 이것 뭘 하나를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기 보시다시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6억대 아파트, 서울 최저가 반값 아파트, 초역세권 내 집 마련 찬스’. 제가 이 비슷한 질의를 그 전 장관님에게도 했었는데요. ‘아들 집 딸 집 장만해 주자’.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면 혹할 만한 문구들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그렇지요.

○안태준 위원 특히 ‘아들 집 딸 집 장만해 주자’ 문구는 중장년층 대상으로 한 아파트 분양 광고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안태준 위원 그런데 해당 광고는, 이게 잘 봐야 보이는데요 맨 밑에 안경 쓰고도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사실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광고가 읽은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대로 고지하고 있지 않다 이런 내용이고요.

시간이 그런데, 이게 19년 전부터 조합원 모집 신고를 했고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받은 사업장입니다. 8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되는 조합설립인가조차도 못 받았고요. 조만간 만약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업대지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사업계획승인까지는 또 몇 년이 더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큰 문제네요 사업을 완성시키지 않아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게 본인이 사업의 주체가 되는 조합원이 되는 줄도 모르고 단순히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는 줄로 알고 분양을 받았다가, 사실 대구 지역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몇 군데서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방문하는 과정에서도 일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민들이 와서 대구에서까지 찾아왔다 그러면서 이 지역주택조합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도 대책 마련을 두 차례나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고민도 고민인데 사업 존치 여부까지도 포함해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아까 그 존치 여부를 고민한다고 했는데요. 정말 심각한 문제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성공하기가 아주 어려운 사안이고 또 실제 지금 현재 분쟁 중인 게 한 30% 또 아예 모집을 반절도 못 해서 해매고 있는 게 실제 50%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좀 논의해 주서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존폐 여부를 고민해 주시면 저는 뭔가 더 이상, 거의 준사기에 가까운 이것들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태준 위원 그런데 이게 다 나쁜 사업자들은 아니거든요. 이게 민간이 주택을 공급하는 좋은 방안 중의 하나인데 이것에 대한 공공에서의 명확한 관리가 안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재 위원님.

○**김정재 위원** 국민의힘 김정재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금 현역 불패, 장관후보자들이 현역 불패라고 하는데 이번에 강선우 후보자께서 낙마를 하셨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국민들 공분도 있었지만 뭐 갑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짓말을 한 것이 결정적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이 자리는 적어도 지금 거짓말을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김정재 위원** 제가 사실은 오늘 정책 질문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온 자료들을 보니까 너무나 의심스러운 데가 많아서, 아빠가 영끌까지 해 가지고 딸들의 전세자금을 어떻게 댔는지, 정말 정확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딸이 지금 현재 29세 27세 26세, 세 딸이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김정재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2022년입니다. 따님들이 살 아파트 경남아너스빌 전세 5억 5000이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김정재 위원** 여기서 1억은 딸이 대출을 하고 4억 5000을 아빠가 대 줬다고,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김정재 위원** 처음에는 차용증 작성이 있는지 없는지, 현금으로 줬는지, 계좌이체를 했는지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조금 전에 차용증 한 장이 왔습니다. 무이자로 4억 5000을 빌려줬다라고 왔습니다. 2022년 4월 15일 날 차용증을 썼습니다. 이 돈 계좌이체했습니까, 현금으로 줬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계좌이체를 한 걸로……

○**김정재 위원** 계좌이체 자료 낼 수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일단 제가 좀 정확히 기억……

○**김정재 위원** 그러니까 계좌이체는 자료로 낼 수 있습니다. 숨길 일이 아닙니다.

계좌이체로 했다. 현금으로 주신 것 아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김정재 위원** 확실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재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기억이…… 좀 돼서요.

○**김정재 위원** 아니지요. 현금으로 4억을 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딸이 안 되지요. 그럼요.

○**김정재 위원** 현금 아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김정재 위원** 계좌이체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김정재 위원** 계좌이체 내역 주십시오.

자, 이것 4억 5000 줬는데 보십시오. 2022년에 그러면 채권으로 잡혀야 됩니다. 2022년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권은 동생한테 8000만 원뿐입니다. 4억 5000 없지요? 앞엿것 보십시오, 가까운 데. 없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김정재 위원 누락입니다.

차용증 언제 만들었습니까? 그때 썼습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하니까 만들어 온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위원님……

○김정재 위원 아니, 위원님 필요 없고 대답만 하십시오. 만들어 온 겁니까, 아니면…… 그때 갖고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새로 만든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아니요, 갖고 있었던 겁니다.

○김정재 위원 갖고 있었던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김정재 위원 그러면 2022년 재산등록 할 때 국회의원이셨는데 왜 누락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당시에 재산신고 할 때 중요한……

○김정재 위원 누락하셨지요? 대답만 하세요. 질문할 것 많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누락했습니다.

○김정재 위원 누락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맞습니다. 누락했습니다.

○김정재 위원 누락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김정재 위원 누락하셨으면 정확하게 공직자윤리법 위반인 건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김정재 위원 모르십니까?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입니다.

이 돈 출처가 어디입니까, 4억 5000?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4억 5000을……

○김정재 위원 출처만 말씀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아까 영끌해서 이렇게 모은……

○김정재 위원 영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저기 다 나와 있으니까. 2021년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입니다. 그 앞에 있습니다. 보시고 어디서 어떻게 영끌을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4억 5000.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일단 여기저기서 빌리기도 하고 모았지요.

○김정재 위원 여기저기 어디서 빌렸습니까? 빌렸다고 그러면 채무에 잡혀 있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처남에게도 빌리고……

○김정재 위원 그런데 2021년 채무는 은행에, 농협에서 2억 8000, 전북에서 9700만 원을 2022년에 오히려 다 갚았습니다.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갚았다고요. 농협에 2억 8000 상환했습니다. 전북은행에 약 1억 있는 걸 5000만 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렇지요? 3억 3000을, 돈을 갚았어요.

그다음 본인 당산동 전세권 3억 4000이 있었지요. 그걸 지금 해지해서 줬다고 칩시다. 제가 계산을 해 드릴게요. 제가 영끌을 해 드릴게요, 대신. 3억 4000 가지고 딸 4억 5000 돈 갚고, 농협에 그리고 전북은행에 돈 3억 3000을 갚을 수 있습니까? 약 7억 8000입니다. 8억에 달하는 돈을 아무리 영끌을 해도 이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일단…… 그러니까 위원님이 질문한 요지가 어떤 지금 제……

○김정재 위원 요지는 내 수입이 있는데, 나한테 돈이 전세권 3억 4000인데 나간 돈은 딸 4억 5000 주고 그다음에 은행의 빚을 3억 3000을 갚았다 이겁니다.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돈 빌린 데도 없는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일단……

○김정재 위원 2022년……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아니, 제가 일단 이걸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협력해서 막 여기저기 돈을 모으고 해 가지고……

○김정재 위원 그걸 어떻게 모았냐고, 모으면 당연히 저 재산등록에 2022년에…… 모으면 빌린 것 아닙니까? 빌리니까 채무로 다 들어가야지요. 채무로 들어간 저 지인은요 누구냐 하면 의사입니다. 의사한테 1억 빌린 거예요. 지금도 그대로 1억 빌려져 있어요. 그다음에 장모, 장인, 지인한테 6000만 원입니다. 이걸로도 돈이 숫자가 안 맞는 거예요. 2억 8000이 빚니다. 2억 8000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솟았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일단 장모님한테도 상당히 많이 빌렸거든요.

○김정재 위원 많이 빌리고 적게 빌리고 간에 재산신고 한 게 있지 않습니까. 4500만 원 빌렸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그런데 위원님……

○김정재 위원 위원님이고 저원님이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집을……

○김정재 위원 여보세요, 후보자님!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집을, 전세를 구하는 과정에서……

○김정재 위원 후보자님, 적어도…… 후보자님, 저희는 이러이러해서 했다고 하면 사실은 후보자님께서 충분히 3선 의원의 경험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2024년 보겠습니다. 2024년에……

장관후보자님, 일단 제가 조금 전에 결례한 말씀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화가 나서 그래요, 너무 맞지 않아서. 왜 그런지 아세요? 조금 전에 자료 이것만 안 받았어도 제가 화가 안 나는데……

잠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2024년 딸이 이사를 갑니다. 6억 5000짜리로 이사를 갑니다. 5억 5000 집에서 6억 5000으로 가는데 후보자님께서 6억 5000을 딸에게 다시 빌려줍니다. 차용증을 씁니다. 맞

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그때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요 위원님, 일단 제가 처음에 우리 딸에게 증여가 아니라는 점에서 차용증을 써서 빌려준 게 맞고요. 다만 제가 이자받을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재 위원 좋습니다. 원래는 이자를 받지 않으면요 그것도 증여세 위반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지금 그것은 얘기 안 했습니다. 지금 증여세 위반인 것이 4억 5000에 대한 이자를 4.6으로 곱하면요 2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2024년 얘기를 하겠습니다. 2024년 6억 5000인데요.

○위원장 맹성규 위원님.

○김정재 위원 잠깐만요. 이것만 얘기하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인사청문요청안에 있는 차용증 2개를 받았습니다. 6억 5000을 하나는 아빠가 4억 7000, 하나는 엄마가 1억 8000을 썼다고 차용증을 이렇게 썼노라고 이 공식적인 문서에 주셨어요. 저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믿고 특별히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차용증이 다시 왔습니다. 6개가 왔어요, 6개가.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이 6개, 딸한테 빌려줬다라고 하는 이것은 2024년 지금 재산신고에 하나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딸한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썼으면 채권에 잡혀 있어야 됩니다. 하나도 잡혀 있지 않아요. 딸에게 6억 5000을 썼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는 우리 딸에게 채권이 있는 거고 우리 딸은 저에게 채무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재산신고 할 때 제가 깊이 있게 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채권과 채무가 사실 뽕뽕인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것을 살피지 못한 게 있고요.

이자 문제는 제가 딸이 셋이 있는데 딸이 그 집에서 살아야 되는 형편이어서……

○김정재 위원 후보자님, 그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 알겠고요.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다음 5분 질의를 위해서 답변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그 돈의 출처가 어디냐는 겁니다. 2022년에는 2억 8000이 아무리 후보자가 갖고 있는 채권, 채무, 가진 돈, 예금 다 합쳐도 그걸 해 줄 수가 없다는 거고요. 2024년은 뭐냐 하면 전세금을 2억이나 더 썼습니다. 그것도 어디서 나온 돈인지 알 수가 없다는 그 뜻을 제가 전해 드리고, 다음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맹성규 후보자님, 정리하셨다가 나중에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위원장 맹성규 다음은 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호 위원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오전부터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가 상당히 겸손하시고 그리고 역시 선배 의원으로서 침착하게 잘 대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후보자님과 함께 당내에서 활동을 꽤 오래 했지요. 우선 장관 지명과 아울러서 제가 후보자님을 봤을 때에는 상당히 조율 능력도 뛰어나시고 그리고 단호한 리더십도 있으시고 특히 현장형 의원이셨고 또 특히 문제 해결에 굉장히 뛰어났던 점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장관이 되신다면 국토부를 끌여가는 데 그런 경험들을 크게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질문들도 있지만 청문회가 또 야당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답변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한준호 위원 조금 전 질의에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의 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다 끼어들 수는 없고……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앞선 질의에 대해서는 잠시 뒤 또 있을 김정재 위원님 질의에 충실히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만 4.5억에 대한 무이자 대여, 이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여 드린 자료처럼 적정 이율인 4.6%를 적용해도 4000만 원 정도이고요. 이게 10년간 5000만 원 미만으로 비과세 한도 이내인 건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한준호 위원 또 장녀에게 2차로 했던 4억 7000, 또 배우자께서 장녀에게 했던 1억 8000 이 부분도 연간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 원 미만이어서 이걸 또 증여로 볼 수가 없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토부에서 원희룡 장관 당시 가장 큰 실기 중의 하나는 정권이 무너지는 데 큰 빌미를 제공했던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좀 띄워 주세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익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을 테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들이 최근 특검의 조사를 통해서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잘 보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한준호 위원 뒤로 넘겨 봐 주세요. 뒤로 넘겨서 처분요구 제목…… 다음 거, 죽 넘겨주세요.

저희가 그래서 국토부의 자체감사를 하겠다라는 말씀에 박상우 장관 당시 국토부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를 했었는데 매월 작성을 해야 되는 월간진도보고서도 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것도 부랴부랴 급하게 만들어서 제출했던 부분들, 용역업체가 100% 준공인정을 담당 실무자 선에서 해서 저희가 결국에는 징계를 내리고 3억 3000 정도를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들에 대한 제출도 굉장히 부적절해서 특히 공문서 위조, 즉 만들었던 과업수행계획서의 네 쪽을 삭제하는 일도 벌어졌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런 걸로 공무원 네 분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내렸는데 징계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중대한 오류들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문경고 이런 것들은 사실 징계로 보기도 어렵습니다만, 대부분 견책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특검 사항이라서 저희가 여러 자료들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자료가 제대로 오지 않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 봐 주세요.

특검 수사 중인 사안으로 제출이 곤란하다라고 했지만 이거는 다 국토부가 현재 가지고 있는 내용이고 지난 국감 그리고 현안질의를 통해서 이미 상당수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해서 제가 장관후보자님께 부탁을 드리건대 장관이 되시면 국토부에서 이 현안과 관련된, 즉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서 이 안에서 벌어졌던 공무원들의 행태들에 대해서 내부 감찰을 다시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일단 특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도 좀 특검 진행 상황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어쨌든 국토부 내부의 옥석을 구분하고 또 문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단호한 조치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치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호 위원** 국토부 내부의 기강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다만 지금 일 잘하고 있는 또 많은 우리 국토부 공무원들의 사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런 점들을 또 한편으로 고려하겠다는 말씀도 덧붙이겠습니다.

○**한준호 위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관후보자의 그간의 활동들을 보건대 그러한 리더십을 충분히 갖추셨기 때문에 균형을 잘 맞춰서 진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는 정책질의를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만 3기 신도시 계획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착공이라든지 현안들이 굉장히 좀 늦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공급계획과 아울러서 3기 신도시란 결국 서울에서 30분 권역 내에 직주근접의 도시를 만드는 것인데 두 가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광역교통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몇 군데 같은 데는 인구수가 근 8만~9만 이상 느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로 들어가는 광역교통대책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번 다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직주근접이다 보니 자족용지가 설정되어 있는데 자족용지가 현재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 사안으로 실제 자족용지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3기 신도시들의 자족용지를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는가, 지금 현재는 공업용지 물량을 배정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법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특별법을 만들거나 둘 중의 하나의 방법밖에 없는데 우선 선제적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발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좀 논의를 할 테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제가 꼭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준호 위원**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오늘 남은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감사합니다.

○한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정 위원님.

○김희정 위원 안녕하세요? 부산 연제구 김희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사인 간 채무 중에서 이해충돌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진건설 관련된 내용을 그중에서 하나 달라고 했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차용증도 남기지도 않았고 또 이자를 주지도 않은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김희정 위원 그런데 그 업체는 의원님이 당선되기 전에는 의원님 지역구의 관급공사를 맡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하고 금전거래가 그런 식으로 몇 개월에 걸쳐서, 차용증도 없고 이자도 없이 금전거래한 이후에 그 지역의, 전주의 관급공사를 짹 짹 맡아서 갑니다. 누가 봐도 명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토부장관이 되시면 이런 데 있어서는 정말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이런 행적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진건설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특히 토착 건설업자와의 비리 이런 게 정치인들과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당연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진건설이라는 이름을 피하려고도 했을 법한데 그런 게 방치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김희정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사람 이름을 썼어야지 실제로는 업체가 아니라 업체 대표에게 빌렸었는데 재산신고 할 때는 업체라고 썼다가 그다음에 이번에 자료제출하라고 했더니 지인이라고 했다가 다시 그 지인이 그 업체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결국은 그 지인이 업체 대표라고 했다가 이렇게 서류 제출마다 답변 과정에서 말이 바뀝니다. 뭔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남들이 보기에 클리어한 장면이 아니라는 말씀을 재차 드리고, 앞으로 장관이 되시면 이것보다 훨씬 국가 단위의 관급공사에 관여를 하셔야 되는데 더욱 조심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아울러서 분양권 전매 관련해서도 역시 이해충돌의 여지가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 전북 도의원 당시 첫 재산신고에 보니까 전주 센트럴파크 분양권 신고가 되어 있던데 이것 어떻게 가지게 되신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당시 제가 모 건설회사에 보일러 납품을 했습니다. 보일러 납품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방의 건설업 차원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그 당시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회사에서—대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대물로 아파트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김희정 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가 미분양이 있어서 돈 대신에 분양권 받았다는 얘기

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이치적으로 보자면 그렇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희정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다음 넘겨 보세요.

이 아파트, 미분양 아니었습니다. 제일건설의 센트럴파크 청약률 2 대 1 기염, 지방 업체로서는 드문 사례, 분양현장에서 1200만 원 프리미엄 약속됐다는 아파트인데 무슨 미분양이 돼서 돈 못 받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어떤……

○김희정 위원 아니, 지금 거짓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아니, 거짓이 아니고요. 이것은 확인을 해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실제 현장……

○문진석 위원 기사 내용과 실제 다른 경우가 많아요.

○김희정 위원 왜 이러십니까? 지금 후보 아니시잖아요, 문진석 수석님.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위원님, 이 문제는 세 치 혀로 장난치고 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김희정 위원 그러면 다시 첫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가요 당시 전주에서는 주상복합으로 입지도 좋고 호남 최대 주상복합아파트로 특급 입지 이러면서 분양이 아주 일어났고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미분양이라서 못 받았다는 식으로 답변 잘못하고 있는데 이 시간 끝나도 정확하게 답변 주세요.

그다음에 하나 더 읽겠습니다. 500세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맞습니다.

○김희정 위원 뭐가 맞다는 얘기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그 당시 센트럴파크가 미분양되어서 실제 저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것을 팔아서 현금화를 해야만 상당히……

○김희정 위원 아니, 저층 아파트를 떠나서, 그러면 이 기사 전부 다 엉터리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제가 지금 답답한 건 제가 이 기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기사 하나로 예를 들면 지방 건설……

○김희정 위원 이 기사가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러 건을 계속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한준호 위원 홍보성 기사인데……

○김희정 위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저에게 사실관계 명확하게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김희정 위원 그다음에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해당 아파트에 보일러 들어가게 된 게…… 그러면 못 받은 돈이 얼마라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그러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실제……

○김희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못 받은 돈이 얼마냐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워낙 오래된 일이다 보니까 돈을 얼마큼 빌렸고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 기억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김희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인이 그때 보일러 사업을 했고 아파트에 보일러 들어갔는데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본인이 사업을 하면서 돈을 얼마 못 받았는지를 얘기를 못 하고 있고, 얼마를 못 받았기 때문에 얼마짜리 분양권 받았는지 답을 못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국토부장관 하실 분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위원님, 제가 대물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대물……

○**김희정 위원** 잠시만요, 제가 그래서 아까 서면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말로도 대답이 엉터리고 서면자료도 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해당 업체는요, 다른 사람 돈은 안 줘도 후보님께 돈을 안 주기가 이상한 상황인데, 보십시오. 해당 업체는 제일건설인데요, 이 제일건설에 후보자의 외삼촌이 상무고요 그리고 그 회장의 여동생이 외숙모예요. 그런데 후보자님한테 돈 안 줘 가지고 돈 대신에…… 돈을 안 주고 있어서, 돈 받을 게 있어서 분양권 받았다고 말하는 게 납득이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제가 그 문제에 대해 좀 설명을 하면요, 대물이라고 하는 아파트 변제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내가 너한테 얼마를 줘야 되고 얼마 못 받으니까 이 아파트로 주겠다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납품하고 또 대금을 지불받고 하는 연속선상의 과정에서 그 아파트 회사에서 대물로, 대물을 변제하는……

○**김희정 위원** 상당히 부당 취득의 느낌이 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못 받은 돈이 얼마인지 왜 말을 못 합니까? 보일러 업체에서 돈을 얼마 못 받았는지 왜 얘기를 못 하나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아니, 그러니까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위원장 맹성규** 아니아니, 위원님!

○**김희정 위원** 예.

○**위원장 맹성규** 후보자님 얘기를 한번 들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후보자님, 설명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그러니까 그 메커니즘이 내가 1억 원어치 보일러를 납품했으니 시공회사에서 1억 원을 납품해야 되고 현금을 3000 받았고 7000을 못 받았으니 아파트값으로 7000을 가져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이 연속선상인 것이지요.

아파트에 보일러를 납품하고 그 납품한 대금을 회사에서는 줄 의무가 있고, 하지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꼭 그 센트럴파크 아파트에 보일러를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가 아니라 다른 것은 다 잘되지만 특정 지역의 아파트가 미분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미분양된 것을 저희가 법적으로 구매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구매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로 보는 게 당시의 그 메커니즘이고, 다만 그 당시에 제일건설 관계에서 어느 정도 돈을 주고받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사실 20년 전 얘기여서 어떤 서류가 있거나 또 기억이 있거나 그러지 못한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다음, 전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기 위원 화성정 전용기입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부분을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전용기 위원 거기가 송천동에 있는 센트럴파크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송천동 소재입니다, 전주시.

○전용기 위원 제가 지금 기사들이 막 있다 그래 가지고 방금 검색을 해 봤는데요, 2008년도에도 한 80가구가 못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2005년도에는 이게 2 대 1 경쟁률이다 막 이렇게 홍보성 기사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전주일보 2008년도 기사만 봐도 아직까지 입주가 안 됐어요, 2008년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성 기사에 속아서 이것이 분양이 다 완료된 것처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전국적으로 미분양 사태가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더 미분양 사태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검색해 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혹시 후보자님, 어떠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실제 지방은 그때나 특정 시기를 제외하면 늘 아파트를 지으면 미분양 사태 그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떤 투기 목적의 전매는 결코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또 건설회사가 어려우면 사실 업자들에게 떠넘기기식 강매도 참 많이 있어 왔습니다.

다만 아까 제일건설의 어떤 친인척 관계에서 말씀드리자면, 지금도 좀 기억나는데 ‘2개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자네는 특별히 하나 준다’ 이런 표현이 지금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실제 제일건설 센트럴파크를 전매받아서 그 과정에서 사실은 부도날 위기까지 몰릴 정도로 그게 팔리지 않아서 상당히 심각했고 그래서 결국 그것을 좀 다운시켜서 싸게 매각을 해서 겨우 팔아서 그렇게 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위원 제가 2008년도…… 오해 없이 볼 수 있게끔, 기사를 근거로 드니까 저도 하나만 들겠는데 전주일보에서 뭐라고 적어 놨느냐 하면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송천동 센트럴파크 단지는 몇 평, 몇 평이 있고 잔여 물량 80여 가구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게 미분양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2005년도에 인기가 많아 가지고 이미 다 팔렸는데 그게 어떻게 미분양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안 맞는 것 같다. 지금 검색만 해도 바로 나오거든요. 그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

우진건설이 후보자님이 당선된 이후에 수주를 많이 했다 하는데 우진건설이 어떤 공사를 수주했는지 후보자님 아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사실 전혀 모릅니다.

○전용기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거기 직원이 돈 빌려…… 그 직원하고 금전적인 관계 그것 다 샅샅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후에 수주를 했다고 그걸 후보자님한테 의심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딸한테 빌려준 돈을 채권으로 잡냐 하는데 저는 사실 부모님한테 돈 빌리고 나

서 채권으로 잡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존경하는 한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그것을 증여로 잡는다 하더라도 증여세 대상 한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오히려 더 명확하게 밝혀 주시면 해당 부분들을 클린하게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제가 좀 설명……

○전용기 위원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그러니까 일단 큰딸에게 이자를 받지 않겠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직자로서 상당히 문제 있는 생각이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늘 고민이었던 것은 큰딸에게 전셋집을 얻는 데 빌려주고 나서 실제 큰딸은 굉장히 독립을 원했기 때문에, 다만 저희 둘째 딸 막내딸이 실제 그 집에서 같이 살게 되는데, 둘째 딸은 취준생이었고 막내딸은 휴학 중이어서 같이 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세무사에 확인해 보니까 정확히 계산하자면 제가 부양의 의무가 있는 둘째 딸 셋째 딸이 그 집에 기거할 경우에는 그 집에 들어가는 월세를 내야 되고 또 월세를 받으면 우리 큰딸은 그 월세를 받은 것에 대한 소득세를 또 신고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과정에 놓여 있어서…… 제가 둘째·셋째 부양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좀 편하게 생각해 버린 게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희 회계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출산이 끝나고 와서 이러면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지 모르니 이 문제는 깔끔히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서 사실이 청문회와 상관없이 저희들이 작년 말부터 자발적으로 준비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무사의 조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처리를 정리해서 마무리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버지가 돈 이만큼 빌려주고 어머니가 이만큼을 빌려준 게 아니고 실제 부부간에 어쨌든 모아 가지고 그걸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정하게 여러 가지 비판적으로 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자를 받을 생각이 없었거나 또 그걸 재산신고 과정에서 명확하게 정리해서 신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부실한 점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저에게 불찰이 있다고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이걸 증여하려고 했거나 또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굉장히 탈법적인 방법을 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까 그런 의사와 능력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재산이 많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을 증여할 경우에 사실 저희도 약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능력도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용기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명확하게 말씀을 주시면 저는 클린하게 문제 해결이 될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우진건설과 연계성도 크게 후보자께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고.

센트럴파크와 관련된 내용도 2008년 4월에 해당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했는데 당시에는 전매 제한이 완화되는 등의 전매가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시기였다고 하는 부분들을 밝혀 주시면 오히려 더 깔끔하게 해소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이 다 소모돼서요, 다음 질의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다음, 윤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오 위원 후보자님, 축하드리고 오늘 고생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감사합니다.

○윤종오 위원 오늘 LH 개혁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LH 개혁을 강조하셨는데 이게 LH 사업의 공공성 실현을 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LH가 민간 토지를 대규모로 수용해서 막대한 보상금을 시중에 풀고 또 이게 다시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있었고 또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LH가 오히려 부동산 투기에 일조했다 이런 비판마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LH 사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공공택지의, 공공개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서 생긴 개발 이익을 공공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공주택이 약간 낙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주택이 공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거의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제는 그걸 좀 더 공격적으로 전환하고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기초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고통을 받은 국민 누구나 이렇게 따진다면 저는 건설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건설노동자들은 부실 공사를 막아 내고 또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과거에 노가다로 불려졌던 그런 일터를 일할 만한 일터로 만들어서 청년이나 여성들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산업 현장으로 만드는 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를 건폭으로 매도하면서 실제로 경찰들에게 일계급 특진을 걸고 좀 무자비하게 탄압했던 기억들이 선합니다. 이때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조에 대해서 스물두 차례 압수수색하고 무려 2250명 정도 조합원이 연행돼서 조사를 받았고요. 42명이나 구속되었고 지금도 4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당한 조합 활동에 대해서 폭력배·공갈범·협박범 이렇게 건폭으로 내몰리면서 양회동 열사가 분신하게 됐고 벌써 2주기가 지났습니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건설노동자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좀 잘 살펴보라고 지시도 하셨거든요. 후보자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질의에 대해서, 양회동 열사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도 표하셨고 유가족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이런 건폭몰이가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협약 위반이다’ 이런 지적도 받았는데 이것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렇게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 임금 체불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겠다는 입장도 밝히셨는데 이런 건폭몰이에 대해서 정부의 대표자가 되신다면 어떤 입장

을 견지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일단 건설노동자들의 활동을 조폭과 결합시켜서 건폭이니 건폭물이니 이런 식의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적절한 단어에 대해서 저부터가 또 우리 모두가 좀 절제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또 함께해 줘서 그런 불법적이고 이런 행동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윤종오 위원** 하여튼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제약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이들의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러려면 당사자들하고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취임하시면 대화할 용의가 있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윤종오 위원** 그래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얼마 전에 택배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그 장소는 어떤 공간이나 하면 고속도로가 뿔뿔이 달리고 있는 도로 하부였습니다, 천막 가림막도 없었고요. 비가 오면 흥건하게, 지금 저기 영상에도 나오고 있는데 빗물이 바닥에 고여 있고 택배노동자들이 신발이 다 젖은 가운데서 택배 물품이 젖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제가 봤는데 도저히 택배 안 됩니다, 여기서. 현재 실태 파악하셔서 가지고…… 아무리 좋은 뜻에서, 이런 곳을 빌려주셔서 가지고 업체는 상당 부분 임대료도 절약했는지 모르겠지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전수 파악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윤종오 위원** 그리고 지금 택배 현장이 물류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창고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허가를 받아서, 만약에 건물을 지어서 운영한다손 치더라도 24시간 일하는 곳이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맞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러면 냉난방시설이나 휴게시설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정관에 고시하거나 이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윤종오 위원** 해 주시고요.

지금 택배 속도 경쟁이 정말로 심각합니다. CJ·한진 7일 배송이 막 시작되고 있거든요. 이래서 과로사가 지금 계속 생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2의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전히 지금 로켓배송 때문에 그리고 클렌징으로 생활물류법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태를 좀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CJ O-NE 배송 여기 같은 경우는 4단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탁, 재위탁, 재재위탁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중간에서 다 착취하고 실제적으로 노동자들은 가장 열악한 조건 속에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빠른 시간 안에 법 개정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께서 어떤 생각이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택배시설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현장에 더 찾아가고 택배노동자들의 업무 강도 이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꼭 살펴서 대책을 내놓고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문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석 위원** 후보자님,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후보자님이 이렇게 장관후보로 와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감사합니다.

○**문진석 위원** 아까 우진건설이 전주시와 계약을 한 것 보니까 한 몇 건 되더라고요, 6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존경하는 김희정 위원님께서 후보자가, 2013년 이전에는 1건도 없다고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한 2건 있고요, 그것도 8억짜리하고 1억짜리 이런 것은 수의계약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우리 입찰계약 시스템에 의해서 다 전자 입찰을 통해서 계약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은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아까 기사 광고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분양 관련한 기사들은 사실상 약간 거품이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1200만 원 프리미엄 붙었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런 아파트는 거의 미분양에 가까운 아파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200만 원 프리미엄 붙은 아파트는 거의 없어요. 다 분양이 되면 보통 아무리 지역이라도 3000만~5000만 원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건 또 사실과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좀 그런 의혹 제기를 하면 후보자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워낙 기억이 오래돼 가지고 약간 우물쭈물하니까 보시는 분들도 약간 오해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때 현물로 받았고…… 과거에는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공사 대금 대신에 대물로 안졌거든요, 공사업자들한테.

그래서 사실은 2012년이면 그때 가장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입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덮치면서 부동산 경기 굉장히 안 좋을 때예요. 그래서 지방은 말할 것도 없이 서울·수도권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후보자를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울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문진석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후보자의 다른 문제를 검증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흠이 없는 후보 찾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이런 의혹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몇 가지 정책적인 질의를 좀 해 보고 싶은데요.

용산 대통령 집들이 행사 하시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고 있습니다.

○문진석 위원 그런데 국회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서 감사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국토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고 사실 배임으로 처리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은 김용현 경호처장이었어요. 그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이 ‘하라면 해라’ 그래서 이제 2억 5000을 LH에서 대 가지고 진행된 행사인데. 사실 감사원은 문제를 삼으려면 김용현을 문제 삼아야 되는데, 국토부라든가 LH 실무자들을 문제 삼아서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야 강압에 의해서 일한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나중에 장관으로 취임하시면 반드시 다시 감사원에 문제 제기하셔서 바로잡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문진석 위원 그다음에 후보자님, 지방은 사실 교통 인프라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받고 그러는 것 잘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고 있습니다.

○문진석 위원 대한민국 철도가 종축으로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서축에 철도가 없는 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지역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데 후보자님도 아마 동의하시지요, 지방 출신이시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문진석 위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그러니까 울진에서 서산까지 철도 공약을 하신 것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고 있습니다.

○문진석 위원 우리 대통령께서도 충남도 공약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5차 철도망 계획에 꼭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일단 지방에 있는 철도라든가 도로를 철도망에 반영하는 데 가장 걸림돌은 B/C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경제성만을 계속 고려해 나간다면 제가 볼 때는 좀 지역균형발전에 많이 역행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 어떤 효과성을 지금 일부 넣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파격적으로 지방에 어드밴티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다만 이게 어쨌든……

○문진석 위원 장관님은 B/C 가지고 얘기 않으시고 좀 제발…… 그렇게 B/C 가지고 계속 SOC 문제를 접근하시면 지역은 영원히, 지역소멸의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 좀 명심…… 잘 하시잖아요, 누구보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고 있습니다.

○문진석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문진석 위원 그다음에 저희 지역 충남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저희 충청남도는 사실은 1차 공공기관 이전할 때, 공공기관이 153개의 기관이 이전을 했습니다마는 충남은 1개도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다시 돌아가 보면 세종시가 있기 때문에 충남은 대상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차별을 받았는데요. 사실 세종시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충남은 오히려 손해를 봤어요, 세종시로 인구가 빠져나가고 충남의 면적도 좀 줄게 되고. 그래서 세종이 들어오면, 세종시가 들어오면 충남이 시너지를 내면서 더 발전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반대로 진행이 됐거든요. 거기다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혜택도 없었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말씀하셨는데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문진석 위원 아직 그건 파악 못 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일단 준비를 좀 해 가야 할 것 같은데요.

○문진석 위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되시면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된 것 플러스 그다음에 이번에 저는 해수부가 부산으로 가는 거 100%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충남·대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충청민들의 박탈감이 있어요,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특별히 배려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고민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지금 대통령께서 충남 광역 공약에 이번 대전·충남지역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공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취임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특히 충남지역의 어떤 소외감 내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보겠습니다.

○문진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진 위원 제가 할 차례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하시겠습니까,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시지요.

○권영진 위원 장관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동료 위원들 질의하는 거 답변하는 거 들으면서 장관후보자께서 좀 겸손하시고 또 지방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또 국토균형발전의 의지도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은 제가 평가를 합니다. 다만 청문회 준비가 부족해서 그런지……

솔직히 한번 말씀하시지요.

후보님, 2022년도에 따님에게 5억 5000 전세 줄 때 그때 이거 신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 하신 거지요, 국회의원 재산신고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권영진 위원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권영진 위원 그러다가 이번에 장관후보자가 되고 나서 돌이켜 가지고 지금 이 재산 신고 부분들을 다 하시면서 전에 신고할 때 없었던 돈들이 툭툭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위원님, 아닙니다.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 담당 비서관이 출산하고 와서 작년에 ‘이거 전체적으로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 자칫’……

○권영진 위원 그래요. 그랬을 거라고 봐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그렇게 됐습니다.

○권영진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후보자님 2023년도 신고한 게 있어요. 이 2023년도 신고한 거는 2022년 말 기준이기 때문에 후보자의 따님이 영등포구에 있는 강남아너스빌 5억 5000 전세 들어갈 때의 재산 신고예요. 그런데 이걸 장관후보자께서 다 잘 보시면, 저도 사실은 오해를, 입출금이 맞아요. 입출금은 맞는데 다만……

장관후보자께서 돈을 마련하기는 영등포 당산동에 있는 전세 들어갔던 거 전세금 3억 4000 빼고 이걸 5000만 원의 오피스텔로 옮기고 해서 2억 9000 여기서 만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면 예금이 본인 예금 6000만 원 줄고 배우자 예금 6000만 원 줄어요. 그리고 채무를 이게 아마 의사 양 씨로부터 이때 빌린 것 같은데 1억 빌리고 부인도 6000만 원을 또 빌려요.

이렇게이렇게 따지면 그때 딸에게 5억 5000 전세금 주고 그다음에 농협은행하고 전북은행에 3억 2000만 원을 또 갚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또 오피스텔 5000만 원 필요하니까 전체적으로 돈이 지출이 된 건 8억 500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저것 다 해 가지고 끌어모은 돈 따지면 8억 2000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재산신고 안 하신 거예요, 그때. 재산신고를 안 하고 이때부터 되니까, 이번에 후보자가 되고 나서 돌이켜서 옛날 돈 빌려준 거 채권·채무, 딸에게 전세금 준 것까지 여기 새로 후보자 재산 공개에는 넣으니까 이게 지금 아귀도 안 맞고 본인도 그때 2022년도 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끌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영끌은 맞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청문회에 임하는 준비는 좀 부신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재산신고…… 후보자님도 그렇고, 2023년·2024년도에는 후보자님도 딸에게 5억 5000 전세금 준 것에 대해서는 신고 안 했어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부인이 1억 8000, 여기 후보자 재산신고에는 나오는 1억 8000 신고 안 했어요. 이런 신고 누락으로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항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들을 2023년도 본인이 신고한 재산들 한번 보면서 해명을 분명하게 하

세요. 이렇게 가면 의혹이 있는 것을 덮고 우리가 동의해 줄 수 없잖아요. 쉬는 시간이라도 2023년도 본인이 재산신고 했던 것 해서 돈이 얼마나 나한테서 나가고 나한테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책질의 할 시간 다 뺏겼네.

하나 물어볼게요.

지방 미분양 해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권영진 위원 주택 정책은 한쪽으로는 수도권 공급 확대고 그다음에 다른 한쪽은 비수도권의 미분양인데 수도권 공급 확대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무리 장관이 용빼는 재주가 있어도 시간이 필요한 건데 비수도권의 미분양 해소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면 지방 다 죽는 것 아니지요, 이대로 두면?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권영진 위원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방 미분양 대책?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일단 지방 미분양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매뉴얼대로 나와 있는 안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세제 혜택 같은 것 좀 하고 또 LH에서 좀 비싸게 사 주고 또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권영진 위원 장관님, 장관님 서면답변 보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매입, CR리츠 활용, 세제 특례, 아마 저 뒤에 있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적어 준 것 같은데요. 이것 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어요. 그런데 미분양은 해소가 하나도 안 되고 계속 쌓여요.

이 대책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장관후보자에게서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과감하게 해야 돼요. 세제 특례도 지금 주고 있는 것은 취득세의 부분적 감면 밖에 주고 있지 않아요.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와 가지고 이보다 지방 미분양이 더 많았을 때 했던 재산세 감면도 안 들어가 있고 지금 CR리츠 활용이나 그다음에 실제로 지방 미분양을 해결하려고 보면 양도세 감면해 달라는 요구를 하거든요, 양도세를. 샀다가 팔 때 미분양에 대해서는 양도세 좀 감면해 달라, 이런 세제의 과감한 혜택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국토부를 통해서 금융감독원하고 금융위원회를 설득했던 게 미분양 주택에 한해서만,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만 DSR 규제 좀 완화해 달라 했는데 이것은 말을 듣지를 않아요. 이러니까 지금 1년, 2년째 하나도 변동은 없고 지방은 죽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하시려면 특단의 대책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지방 미분양 해소는.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말씀 드린 이 유도 그런 정책적 방향에 있어야 될 게 정책 관철의 의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특단의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다음에 이따 다시 묻겠지만 국토균형발전에 대해서 후보께서 강조하셨는데 공공기관 이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장관님 임기 내에 이것 마무리하실 자신 있습니까, 공공기관 2차 이전?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권영진 위원 이따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다음, 복기왕 위원님.

○복기왕 위원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어떠한 청문회 자리보다도 그래도 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후보께서 덕을 많이 쌓으셨나 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에 대해서 강조를 하셔서 저는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본관도 지방인데요. 충남 먼 천이라는 곳이 제 본관인데 1300년 동안 충남을 벗어나지 못하고 산 사람인데요. 그곳에서 지역 일꾼으로 뽑아 주셔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국토위에 와서 보면 국토 정책, 주택 정책 얘기하는데 지방 이야기는 사실 거의 안 들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서울 이야기입니다. 서울, 특히나 강남 3구의 집값 이야기 그것이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주택의 문제인 것마냥 지금 확대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방을 바로 알고 애정을 갖고 있는 후보가 국토부장관이 된다면 지금부터는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기왕 위원 우리가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서울·수도권, 지방 가리지 않고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그 가운데서 특히 우리가 건설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바로바로 현장에서 체감을 하게 되는데 건설경기가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방의 건설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라는 고민들을 좀 해 봤는데요. 사실 답답하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고민들을 좀 해 오다가……

실제 국토부장관께서 수도권과 지방 도시의 1가구 2주택 세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독으로 결정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그렇지요.

○복기왕 위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모색을 좀 해 봐야 한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실 생각 있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일단 세제 문제는 관계 부처가 있지만 중요하게는 어떤 건설경기와 연동돼 있는 그것은 사실 국토부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차원에서의 어떤 정책을 진행하는 데에 따른 기재부와 또 다른 금융 당국 이런 데와 협력이 필요하다면 국토부 입장에서 강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특히 지방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복기왕 위원 관련해서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임대주택 사업이 민간과 공공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니까 민간 분야가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 40% 정도가 임대주택인데 이 가운데서 공공보다도 민간이 약 8 대 2 정도 비율로 차지하고 있어서 저도 이번에 조사를 해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런데 우리 정책을 보면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형평이 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 의무기간이 공공임대는 5년, 6년, 10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임대기간의 2분

의 1이 경과되고 나면 임차인과 합의가 됐을 때는 분양이 가능해요. 그런데 민간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러면서 문제가 뭐냐면 민간임대 같은 경우에는 임대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돼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곧바로 분양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임대 연장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경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분양 시기를 조절해야 되는 민간 업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돼 있는…… 지금 상황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를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약간 부족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요. 취임하게 되면 좀 구체적으로 살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북기왕 위원 당장 중요한 것이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서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잃어 버리는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 보충이 필요하다는 말씀 하나하고.

그리고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분양 전환 시점 이 부분도 형평을 좀 맞춰야 한다. 이 부분이 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냐면 이 사업장에서 빠져나왔을 때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업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앞당겨 준다는 의미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만 맞춰 준다면 지방에서의 여러 가지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사업이라고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 뉴스테이 사업으로 시작된 것이 지금은 명칭이 그렇게 바뀌었던데요. 택지공모 사업은 LH에서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HUG에서 하는 공급촉진 사업과 민간제안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지난해 2024년도에 윤석열 정부하에서 민간임대에 대한 우선사업자들을 굉장히 많이 선정을 해 봤어요. 기금이 약 2조 원 정도가 필요할 정도의 사업자 선정을 해 놓고 현재 기금은 얼마가 남았냐면 3000억 정도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한 4개 정도만 기금이 출자가 되었고 일종의 출자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 이 회의조차도 못 열리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 이 사업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풀어 줘야 되는데 기금 준비는 안 해 놓고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선사업자만 선정해 놓고 이들은 이런 것 때문에 땅을 확보해 놓기 때문에 브릿지론이 이미 발생되어서 이자는 발생되고 있고 결국은 건설경기를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국토부에서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 기금에 대해서 빨리 나갈 수 있게 해 줘야 건설경기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장관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장관으로 취임하면 잘 살펴서 꼭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기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5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성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에 이어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오전부터 계속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와 제출자료의 부실 및 후보자 소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금까지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완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전세자금의 출처와 근거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 4월 5.5억 원 전세는 원래 제 명의로 있었던 4.5억 원과 저희 딸 앞으로 받은 대출 1억 원으로 돼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세 종료되었던 반환 보증금 3억 4000만 원 그다음에 예금 1억 1000만 원 그다음에 원래 제가 채권으로, 돈을 받아야 할 게 있었던 돈에서 회수된 금액이 1억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유 자금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차후에 장녀가, 큰딸 앞으로 채무 1억 원이 있었는데 그걸 저희 집사람이 처남에게 돈을 빌려서 갚아 준 거지요. 그렇게 해서 갚게 된 거고요.

그 후 24년도 4월의 6억 5000 전세의 근거는 기존 전세금 5억 5000만 원에다가 제가 2000만 원 또 집사람이 8000만 원을 빌려준 거고요. 그 소득원은 저희 동생의 채무 상환액이 2000만 원 있었던 거에다가 보유 자금을 합쳐서 진행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김00이 제 친동생입니다. 그래서 동생과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없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금액을 그 자리에서 바로 동생이 급히 필요하다고 해서 준 거고요.

사실 상속하면 총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총량을 아들 둘이니까 정확히 나누려다가 동생이 많은 걸 양보해서 빌려서 갚겠다 해서 동생이 지금 거의 다 갚고 한 이삼천만 원 정도,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 정도 지금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동생한테 이자라든가 그런 건 없이 계속 동생이 돈을 보내 줘서 갚은, 그렇게 해서 그런 돈이 모여져서 진행이 된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후보자의 보충설명을 들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우리나라의 주거복지·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교통 정책 등에 대한 장관후보자의 정책 비전과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이고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계시는 만큼 후보자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다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촉구하면서 인사청문회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후보자님, 제가 교통 정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왼쪽 뒤에 보면 인천국제공항 사진 보이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배준영 위원 지난번 2014년도에 보도자료를 내셨는데 호남·전라선 이용자들이 경부선 이용자보다 인천공항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 개선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맞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은 도로와 철도의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공항에 가는데 통행료 없이 공짜로 가실 수 있습니까, 후보자님? 못 가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배준영 위원 첫 번째 영종대교, 두 번째 인천대교가 있는데 다 도로 통행료를 냅니다. 지난 정부에 반값 정도로 깎았고 이제 진행 중인데 세 번째 다리가 제3연륙교라고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 비용 중에 대부분을 영종·청라 양쪽에 사는 주민들이 분양대금에 포함해서 냈고 나머지도 인천도시공사하고 인천경제청에서 냅니다. 그러면 사실상 재정도라고 봐도 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배준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배준영 위원 그러면 좀 헛갈리시는 모양인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아닙니다. 제가 근거가 약해서 그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안 받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준영 위원 안 받는 게 합리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1번 영종대교가 있고 2번 인천대교가 있는데 모두 돈을 내니까, 3번은 말하자면 공공이 돈을 내서 하는 거니까 무료로 해야 된다는 건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두 번째 다리 민간사업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간에서 투자했으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배준영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혹시라도 세 번째 다리가 생기면 자기들이 통행료를 좀 덜 받게 돼 갖고 손해를 볼까 봐 경쟁방지조약이라는 것을 국토부랑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 번째 다리를 만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보전을 해 달라는 조항을 넣어 갖고 덜컥 사인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3연륙교를 만들려고 하는데 국토부가 그 조항 때문에 계속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인천시가 나서서 ‘그 돈을 좀 메꿔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러세요’ 해 갖고 손실보전협정을 국토부랑 인천시랑 맺었거든요. 그런데 인천시가 손실보전을 해 주려니까 이 돈이 수천억에 이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제3연륙교의 요금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두 번째 다리의 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당연히 재정도라고 안 받아야 되는데 국토부와 민간사업자 간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돈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민간사업자와 국토부 간에 손실, 그러니까 저는 경쟁방지조약

을 변경하거나 말소시켜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요.

보시면 이재명 대선후보도 당시에 ‘한강 건너는 다리가 수십 개 있는데 왜 우리만 돈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했는데 이것은 민자도로거든요. 민자도로도 무료화한다는데 사실상 재정으로인 제3연륙교를 유료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이게 법 위반입니다.

후보자님, 유료도로법이라고 들어 보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배준영 위원 유료도로를 만들려면 반드시 무료도로가 옆에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맞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런데 대한민국에 도로가 있는 곳 중에 무료도로가 없이 모조리 유료도로만 있는 곳이 인천공항이에요. 그런데 인천공항이 왜 중요하냐? 전 국민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이번 상반기에 3636만 명이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도로를 유료로 하느냐, 무료로 하느냐는 지역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교통복지와 관련된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들도 억울해서 헌법소원을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이걸 기각했는데 기각하면서 이유가 뭐라고 그랬냐면 뱃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료도로로 해도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 배 타고 다닐 수 있습니까, 장관님?

그래서 헌법소원을 다시 할 생각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도로 얘기만…… 여기서 마쳐야 될 건데 이것 좀 조정하고 그래서 재정으로니까 무료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지금 연륙교 그 문제에 대해서 통행료 책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천시가 어쨌든 주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국토부가 할 역할이 있다면 살펴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준영 위원 국토부의 역할은 민간사업자와 잘못 맺은 경쟁방지조약에 대해서 그것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정당하지 않으니까 무효화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간사업자들이 건설비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이미 거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 차원에서 노력해 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다음, 염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태영 위원 수원무 염태영입니다.

지난해 10월 국감 때 제가 명태군 게이트와 관련된 창원산단의 국토부 차원의 조사를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PPT 좀 띄워 줄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때 명태군 씨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창원산업단지는 내가 기획했다. 정진석, 정우택,

원희룡, 이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그 바쁜 분들 50여 명을 다 사진 찍고 이곳이 지정되도록 하는 데 협조를 구하게 됐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개입한 정황들이 무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증거들도 많이 드러났고요.

그래서 그다음 PPT 보시면 그 결과 2023년 3월 15일 창원산단 발표 직전 1~3월의 거래 내용과 그 전년도를 비교해 보면 거래 건수는 3배, 거래 면적은 10배 그리고 거래액은 6배 이상 증가했고 또 거래 건수의 90% 이상이 그린벨트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의혹이 짙고 투기와 사전정보 유출이 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국토부로서는 처음에는 개인정보 관련돼서 조사하기 어렵다고 그랬다가 그 일이 계속돼서 '책임 있는 조사와 자료 확인을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와 관련해서 그 이후에 파악된 것은 김영선 전 의원의 동생들이 이곳에 땅을 사기도 하고 일부 팔기도 하고요. 또 명태균 지인이 산 것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 너무 의혹이 짙은데 이에 대해서 국토부가 전면적인 조사를 해야 되고 이제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왔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실한 장관님의 의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이 창원산단 사건에 대해서 특검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서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특검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취임하게 되면 국토부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이런 후속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그때 사전조사 시에 국토부 직원들과 같이 다니고 사전정보를 교환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국토부가 특검 과정 중이라도 자체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그리고 후보자님,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아실 겁니다. 10여 명이 이미 목숨을 스스로 끊기도 하고, 하여튼 우리 사회적 재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서 관련 법이 2023년 6월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2024년 8월에 개정안이 통과됐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경매 차익을 통한 주거비 지원사업이 작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표 하나 보시면 피해자로 결정된 것이 3만 1000건 그리고 LH를 통한 매입 사전 협의된 게 1만 2000건, 그런데 현재 매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4750건 그리고 매입이 완료된 것은 1184건입니다. 올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8개월이나 지났는데 전체적으로 3.8%밖에, 이와 관련된 매입 완료돼서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회복이라도 되게 한 것이 이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으니까 피해자들의 심정으로 보면 애가 타는 그런 심정으로 너무나 속도가 느린 거예요.

이에 대해서 원래 법이 통과된 것을 21대국회 말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돼서 못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전적 요인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인 기준에 따른 최우선변제금 규모로 최저보장 방안을 제시했고 그것이 그때 법안에 담겼는데 그 이후에 이것은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지금의 방식으로 했더니 너무 속도가 느려서 다양한 방법을 더 써야 되는데 지금 경

매 회복률이 일단 3.8% 진행된 것에는 80%까지 회복률이 된 게 있다 하지만 실제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방어 입찰로 인해서 경매 차익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0%도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걸 보면 다양하게, 이 최저보장 선택 방안을 추가적으로 같이 봐야 된다, 선택할 수 있게 해서 속도를 높여야 된다 하는데 그에 대해서 장관님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일단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좀 놀랐고요. 저는 전세사기, 80% 이런 얘기 듣고 ‘상당히 진행이 잘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전세사기 구제에 대해서 제가 실태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저보장 선택 방안에 대해서는 실제 물권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진행될 경우에 정확하게 어떻게 추계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번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정부가 책임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말씀 주신 속도 그다음에 최저지원 기준치 선택 또 하나는 형평성도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예, 다양한 선택지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종군 위원 오전 질의 때 싱크홀 관련해서 질문드렸는데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민감 정보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공개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윤종군 위원 감사드리고요.

싱크홀 예방대책 중의 하나로 국토안전 관련해서 지자체별로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해서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지하공동 복구를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법적 권한이 부재해서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토안전관리원 점검을 통해서 발견된 지하공동이 총 266개소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조치가 확인된 곳은 절반도 안 되는 132개소뿐이에요. 나머지 절반 공동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더니 답이 어떻게 왔냐면 ‘조치나 회신을 강제할 수가 없어서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회신해 주지 않으면 확인할 길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도 공동이 메워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부재하대요, 국토부조차도.

그래서 제가 국토부가 지자체의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강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이런 법안 필요하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윤종군 위원 장관 되시면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윤종군 위원 안전점검을 하는 인원도 대단히 문제인데요. 지반탐사 요청 구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1386km, 23년에는 1665km 그리고 작년 24년에는 1951km를 점검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몇 명이 하나면 GPR 탐사가 가능한 지하안전관리실 인력이 13명뿐이에요. 그런데 이 기계 1대당 3명이 붙어서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네 팀에서 전국을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토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기재부에서도 이해해서 새로 신규 인력 18명을 추가로 구성했다고 들었습니다. 배나 증원시킨 것이기는 한데 싱크홀이 한 번 발생하면 이것은 국민안전과 대단히 직결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인원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식을 좀 뛰어넘어서라도 파격적인 인원 증원 이런 걸 통해서 안전을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윤종군 위원 장관 되시면 잘 좀 챙겨 봐 주시고요.

그리고 후보님하고 저하고는 동병상련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북 출신이신데 중앙정부에서도 일하다 보면 호남을 지원하자 그러면 사실 대부분 전북이 아니고 광주·전남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외감을 느꼈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역구가 경기도 안성인데 수도권이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중의 소외·차별 이런 걸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에서도 발전이 안 된 지역이 있거든요. 경기도 북부, 동남벨트가 대표적으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중차별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철도나 도로를 놓으려고 해도 수도권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요구되는 B/C 경제성을 요구를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도권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발전을 못 한 지역들이거든요, 경기도 북부 또 동남벨트 이런 지역들이.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평택-부발 철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1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돼서 20년 동안 끌어왔던 일인데 얼마 전에 이게 예타를 통과 못 하고 탈락이 됐어요.

평택에 있는 삼성반도체, 안성에 추진되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국가산업단지, 용인에 추진되고 있는 SK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그다음에 이천에 있는 SK 반도체까지 연결하는 반도체 철도였는데도 B/C를 통과를 못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수도권은 정책성이 40점, 경제성이 60점 정도로 평가를 해요. 그런데 지방은 잘 아시겠지만 국토균형발전 가중치가 삼사십 정도 독립적으로 추가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이지만 발전을 못 해서 인구도 없고 기업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데 철도나 도로를 추진하려고 하면 수도권에 필요한 이런 B/C 경제성을 요구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평택 안성 용인 이천 이 벨트하고, 충북선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 조금 아래 동서축으로 충북에 오송부터 충주까지 가는 충북선이 운행

중입니다. 2005년도에 전철화까지 완료를 했어요. 이게 더 많은 승객들이 이용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반도체 철도가 더 많은 승객들이 이용하겠습니까?

그런데 수도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을 추진한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지방이었으면 100% 될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도권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중의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꼭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윤종균 위원 그런 차원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서울 잠실에서 광주 용인 동탄 또 안성을 거쳐서 청주공항까지 이어지는 중부내륙을 관통하는 민자철도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조만간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다고 들었는데 장관 되시면 이 사업을 꼭 좀 추진해 주셔서 가지고 중부내륙 이쪽, 수도권이지만 여기도 발전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거든요. 이런 지역까지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관련 절차 이런 것을 잘 챙겨서 상황을 꼭 잘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단 김은혜 위원님까지 진행을 하고 저녁 식사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양 위원 후보자님,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김종양 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 코스피 5000 공약 내걸었던 것을 통해 가지고 주식시장의 호전으로 인해서 지금 지지율도 많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주식시장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일등공신이 어떤 업종인지 혹시 아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

○김종양 위원 물론 아직 전통적인 조선 해운 자동차 반도체 등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방위산업하고 원전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방산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올 상반기보다도 거의 한 3배, 현대로템도 한 4배 그다음에 원전기업인 두산에너지빌리티는 거의 3.5배 정도 지금 연초보다도 주가가 높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수출 증대하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국내 방산·원전 산업의 메카가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잘 모르겠는데요.

○김종양 위원 경남 창원입니다. 창원하고 그 주변 지역에서 거의 원전의 60%, 방산의 60% 수출을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원전·방산을 주도하고 있는 현 창원국가산단이 사실 50년 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노후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R&D 기능도 취약하고 그리고 아주 많은 업종들이 혼재해 있어 가지고 지금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2년 전에 새로운 원전·방산 국가산단 후보지로 창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장관후보자님 잘 아시겠지만 전북 지역은 2개 있잖아요. 그렇지요? 보니까 전북 익산하고 완주에 수소특화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어 가지고 이것은 지금 신속예타를 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종양 위원 틀림없이 장관후보자께서도 여기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또 같이 동시에 지정되었던 용인 지역의 반도체 국가산단은 지금 아주 신속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원전·방산은 반도체 못지않게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 여부에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산단은 지금 다소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후보자님 장관 되시는 것 같으면 이 부분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김종양 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 하면 K-방산 관련 대선 공약으로 경남을 글로벌 G4, 세계 4강 방산 집적지로 육성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원전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환경부장관이나 산자부장관께서도 결국 전력 수요 등을 감안해 가지고 원전 건설 수요를 갖다 줄일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시고 그랬잖아요.

다만 아쉬운 건 생각지도 못하게 존경하는 염태영 위원께서 지금 창원의 원전·방산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되고 그 주변의 그린벨트에 대한 거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투기세력 등등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제 경실련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 하는 것 같으면 국가산단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가지고 거래 건수를 갖다가 발표했는데요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던 지역이 용인입니다. 그리고 전북 지역의 익산·완주 두 곳 신규 국가산업단지 거기에는 지금 900여 건의 무더기 토지거래가 있었다고 이렇게 지금 언론에 오늘 보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경실련에서는, 어제 보도된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지난 2년 전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열다섯 곳 중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지역의 토지거래를 조사했는데 가장 많은 게 용인이었습니다. 용인이었고 사실 창원은 네 번째였습니다.

물론 거기에 사전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투기를 했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산업 추진에 차질을 빚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히 수사를 해 가지고 적발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시켜야 할 이런 산단 추진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취새끼 한 마리 때문에 농사 포기할 수 없잖아요. 반대 잡느라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잖아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는 원전·방산 산업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창원 지역의 방산·원전 최첨단 국가산업단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후보자님께서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존경하는 염태영 위원께서 하신 그런 예상치 못한 발언에 대해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 투기세력 철저히 차단해 가지고 잡아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책임 묻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이 산단 추진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위원님, 저는 투기세력에 대한 철저히 조사하는 건 조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현재 창원산단의 어떤 확장의 필요성 내지는 요구 이것은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그래서 국가가 한번 약속한 것은 흔들림 없이 집행될 수 있는 그런 기조 위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임하게 되면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감사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참고적으로 ‘익산·완주 두 곳 신규 국가산단 발표 직전에 900여 건 무더기 토지거래’ 이렇게 발표됐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전북 지역 국가산업단지 두 곳 중단할 수 없잖아요.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전용기 위원님.

○전용기 위원 경기 화성정의 전용기입니다.

저도 정책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사고 대물보상의 품질인증부품 지급기준 변경이 지금 현재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물보상 지급기준 변경이 2025년 8월 16일부터 변경이 되는데요. 이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인데 OEM 부품보다 35% 저렴한 품질인증부품으로, 보험료를 인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물보상 지급에서 산정기준을 품질인증부품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금을 낮추기 위해서 품질인증부품, 그러니까 저가 부품을 써도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OEM 부품보다, 품질인증부품의 내용은 알겠으나 이게 저가 부품이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크게 된다, 오히려 피해자들은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 왜 정품이나 OEM 부품이 아닌 품질인증부품으로 수리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우

려가 있는 것이지요. 혹시 해당 부분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현재 그런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품질인증부품이 상당히 싸고 또 보급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도 있고 실제 어떤 불안감들이 있고, 또 품질인증부품이 인증되었다고는 하나 검증이라든가 실제적인 것에 대해서는 좀 불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취임하게 되면 좀 구체적으로 따져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안전 문제에 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입각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그러니까 소비자의 선택권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강제적으로 품질인증부품으로만 써야 된다, 그 돈만 주겠다, 너네가 정품이나 OEM 부품을 쓰려고 하면 추가로 돈을 내라라고 하는 부분들은 피해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것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 거고요.

심지어 현재 특약을 통해서 품질인증부품을 선택하면 순정부품비의 25%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정책을 시행 중이기도 한데 2023년 11월 기준으로 환급 특약이 총 20건, 경미 손상 시에는 42건에 불과합니다. 이것처럼 대체부품인증제도는 정책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을 해 왔고 이번에 개정을 앞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해당 부분들의 해외 사례를 좀 살펴보면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사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조금 싸게 수리하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건데 우리나라는 강제로 품질인증부품으로만 해라라고 하다 보니까 저가형 모델만 쓰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취임하시게 되면 해당 부분 적극 검토해서 재검토 수준으로 봐 주실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자체의 사업이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동탄 트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동탄 트램 건설이, 동탄 도시철도 1단계 건설이 사실상 2009년에 최초 입안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16년 지났지요. 그때 건설비랑 지금 건설비랑은 너무나도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기준으로 공사를 해라라고 하니깐 수차례 유찰이 되고 있거든요. 이 사업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트램 같은 경우는 초기 자본 투자가 많기 때문에 실제 물가 변동이 너무 심한 시기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과정이? 그래서 현재 원래 LH가 부담하기로 돼 있고, 하지만 또 복잡하게 그 돈은 입찰이 안 되고 늘어난 돈 때문에 상당히 지자체와 LH가 혼선이 있고 또 트램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교통 쪽하고도 상당히 원래부터 혼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반 문제에 대해

서 일단 화성하고 LH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국토부가 같이 협력해서 방안들을 모색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아마 묶여 있는 돈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묶여 있는 돈이 과거 신도시 계획할 때 묶어 둔 돈인데 16년 가까이 흐르다 보니 현재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 입장에서 그 돈 가지고는 못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도 아마 취임하시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전체 신도시의 교통 문제만큼은 장관님께서 확실히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운하 위원님.

○황운하 위원 후보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분들께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오늘 후보자님께서 그 유가족들을 만나셨더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황운하 위원 아주 잘하셨네요. 어저께 기자회견 할 때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에게 바란다’ 이런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오늘 후보자님께서 유가족들 만나서 ‘취임하게 되면 만나는 시간을 한번 가져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제 개인, 아직 실무진하고 좀 협의가 안 돼 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끝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다만 지금 여러 일정이 복잡하겠지만 어쨌든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일정은 현재 무안공항을 방문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어쨌든 그 사고를 통해서 뭔가 상처를 안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매우 실무적이고 이런 접근보다는 정말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취임하게 됐을 때 어떤 장관의 상징적인 그런 것으로 국민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예방과 또 사후 대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미로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유가족을 만날 생각입니다.

○황운하 위원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현장 꼭 방문하시고 거기서 유가족들 만나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 건하고 삼부 주가조작 관련해서 짧게 또 묻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의 시작이 윤석열 정부 인수위 때 시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황운하 위원 그때 인수위 기간인 3월 29일에 아까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국토부 서기관이 어찌고저찌고 설계 용역 업체에다가 뭐 얘기했다 이런 진술이 나왔고.

그렇다면 인수위 기간 중에 인수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종의 작업을 주도한 걸로 보입니다. 의심되는 사람은 3명이에요. 3명 한번 띄워 보세요, 여기.

(영상자료를 보며)

이한준 LH 사장, 당시 인수위에 자문위원으로 나가 있었어요. 나중에 LH 사장으로 가

지요. 그다음에 인수위의 기획위원장이었던 원희룡, 나중에 국토부장관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인수위에 파견 나가 있던 국토부 공무원 백원국, 이 사람은 인수위 마치고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 거쳐서 국토부2차관 갑니다. 이 세 사람들이 모종의 작업을 주도했을 거로 봅니다.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은 여기에 이용을 당한 거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용당했는지 옥석을 잘 구분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 감사를 하라고 했더니 1년 6개월 만에 감사 결과 내놓은 것이 굉장히 꼬리자르기 식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황운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진실을 덮으려는 세력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거 아니면 좋겠지만 혹시 그런 세력이 있었는지 그래서 총체적인 부실 감사가 됐는지 이에 대해서도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황운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부 말씀 좀 드리면 삼부 주가조작에도 결국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엄청 이용을 당한 걸로 보입니다. 이게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가조작의 공범들과 공모해서 그래서 삼부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의 내부 정보를 흘리고.

주가조작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이종호로 보이는데, 이종호는 아실 것 같은데 김건희의 계좌를 관리하던 주가조작범이고 김건희는 이종호가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협조해 준 그 대가로, 주가조작의 보상으로 적극 이종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국토부장관이 왜 당시 민간 포럼에 참석을 했는지, MOU 체결 등의 내부정보가 어떻게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에게 흘러갔는지, 국토부 관계자가 왜 삼부토건 관계자와 면담했는지, 이걸 다 특검 수사해서 밝혀질 일이지만 장관님께서 취임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사과를 먼저 해야 국토부가 신뢰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맞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제반 문제에 대해서 일단 특검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국토부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일단 국토부 공무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고 또 옥석을 구분하거나 이번에 좀 약간 오해인지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뭔가 말을 맞춘 정황이라든가 이런 구태적인 대응이 있다면 대응대로 할 것이고 또 대다수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정말 의지 잃지 않고 뭔가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만들어 나가는 그런 조치를 꼭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모두발언 하면서 ‘안전은 사전 예방의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항공 안전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PPT를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객기 사고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 PPT 보시면 특히 정비 불량으로 인해서 전원이 사망하는 그런 사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항공기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정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다른 PPT 한번 띄워 줘 보십시오.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일어난 항공기 운항기록입니다, 당일 날. 보시면 당일 날 새벽 4시 15분에 코타키나발루에서 출발해서 무안국제공항 이렇게 오고 다시 나가사키공항, 다시 무안국제공항, 다시 대만, 다시 태국 이렇게 해서 총 하루에 여섯 번을 운항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여섯 번, 그렇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게 시쳇말로 서울-부산 고속버스보다 운항편수가 더 많아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기체 피로도가 높아지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높아지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특히 이착륙할 때 기체 스트레스가 가장 심하다고 하는데, 지금 LCC 항공의 현실이 최소 정비 기준만 맞추고 최대의 수익을 올리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려 있기 때문에 국민 안전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을 기준으로 해서 LCC 항공 9개사를 이렇게 비교를 해 봤는데 정비인력은 대한항공의 68%밖에 안 되는데 운항편수는 두 배가 넘어요. 274%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최소한의 정비인력 가지고 최대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운항편수를 무제한으로 늘리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여섯 차례나 운항을 하다가 결국 사고까지 나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저는 LCC 항공의 운항편수를 제한하고 그리고 정비인력의 최소 기준을 강화시키는 이런 부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그러니까 현재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내놔는데요. 위원님 자료 보면서 제가 봐도 정비인력 대비 운항편수가 사실 굉장히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실제 LCC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서 항공 사고에 있어서 최소한 사람의 도리를 다한 상태에서 좀 늘려 갈 수 있는 기준을 한번 검토해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리고 제주항공 참사 이후에 LCC 포비아가 생겨서 실제로 이용률도 낮아지고 있고 한테 그러다 보니까 부채비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4000%가 넘는 LCC 항공사도 있는데 결국 이렇게 부채가 많고 경쟁력을 상실한 LCC에 대해서는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9개의 LCC가 운행하고 있는데 국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수익성 그리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좀 방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이연희 위원 그리고 KTX하고 SR 통합 문제가 대선 공약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런데 제가 서면질의 했을 때 나온 답변은 ‘교차 운행을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통합하는 데 큰 장애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대선에서 이미 대통령께서 공약까지 하셨는데, 또 오래된 논쟁이었고 사업이었는데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이것을 신속하게 통합할 수 있도록 나서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입장이 어떠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저는 KTX와 SRT 통합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내 일부 기득권의 강한 저항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비용을 낮추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통합 문제에 대해서 장관께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위원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 한 말씀드리면요……

○**이연희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지난 19대 시절에도 강력히 통합을 주장했던 당시의 국토위원이었던데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통합의 명분과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합을 안 하겠다든가 미적거리는 차원이 아니라 통합을 하기 위해서라도 통합으로 갈 수 있는 속도, 통합에 대한 속도를 빠르게 하고 통합으로 가기 위한 실제적인 로드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이렇게 통합을 하면 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고요. 이걸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를 해 주시면 취임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모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혜 위원** 장관님, 제가 오전질의에서 추가로 좀 확인해야 될 사안이 있는데요.

제가 당시에 부동산 세제가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계획이 있는지 여쭙었는데 2020년 기준 정도 하겠다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말이지요, 이게 95% 가다가 지난 정부에서 60%로 내렸거든요. 20년 기준이면 90%입니다. 그러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로 올리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아니요, 그건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정확하게는 어떤 내용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논의를……

○**김은혜 위원** 혹시 장관님, 공시가격 현실화율하고 착각하신 것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착각했습니다.

○**김은혜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고 나서 너무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을 주셔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은혜 위원**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정을 해 주시고 오해가 없도록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까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김은혜 위원 그러니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6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그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같은 경우에는 20년 수준, 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9% 수준입니다. 현재 그 상태로 현행대로 간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정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아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의사결정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제가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좀 구체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그 수치에 대한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은혜 위원 뭘 살펴드릴 거예요? 2개 다 살펴드릴 거예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살펴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살펴신다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일단 이 문제에 대한 이해력이 제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논의를 해 보고 답변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후보자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유의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두 번째, 제가 오전질의에서 들었던 것 중에 하나 더 짚어 보겠습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용적률 조정을 하겠다, 그러면 이 용적률 조정이란 상향하신다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그렇지요.

○김은혜 위원 용적률 상향하면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사업성 확보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공공기여를 더 하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저는 핵심은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높이는 기본적인 지향점은 민간에서 보다 많이 참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 그럼으로써 주택 공급,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좀 더 활성화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다라는 거지요.

○김은혜 위원 그러면 사업성을 확보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말씀하신다는 건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그렇지요. 다만 그게 일정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간에게 너무 많은 이익이 가는 또 다른 면에서의 문제도 발생한다는 점도 좀 지켜보면서 공격적으로 나가되 그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정도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은혜 위원 장관님 답변을 보면 정비사업의 이익이 공공의 이익과 균형되게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하셨는데 저는 이게 세상에 없는 얘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도가 둘 다 하는 건 없습니다. 제도라는 건 선택의 문제지요. 법에 입법취지가 있듯이 제도에는 배경이 있는 겁니다. 한쪽은 소유자 이익이 늘고 한쪽은 소유자 이익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분명한지 선택하셔야 되지요. ‘나는 불도 좋고 얼음도 좋아’, 그런데 불과 얼음이 만나면 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올려 준다는 건지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기여를 용적률과 함께 더 넓히겠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일단 제 기본적인 현재 입장은 재개발·재건축에서 용적률 문제에 관해서는 주택 공급을 좀 더 늘려 보자는 취지가 더 강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김은혜 위원 알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다만 이게 말장난 같지만 일방적인 시장에 맡겨서 그런 걸 풀어 버릴 경우에는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고 반발이 있어서 정책이 이도저도 안 돼 버리는, 그러면서 혼란만 있는 상태도 걱정된다는 점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은혜 위원 알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외국인 부동산 구매를 여쭙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대출 규제 시행 이후에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매입이 한 달여 만에 16.2%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동 기간의 내국인 매입은 16.1%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집 사기도 어렵고 대출 받기는 더더욱 어렵고, 그러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돈 들여와서 부동산 쇼핑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후보자님, 투기적 거래에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이것은 공정의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규제가 없는 무풍지대에서 지금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 집주인에 우리나라 국민 월세 세입자 이게 먼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같은 제도적인 역차별 어떻게 시정하실 계획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일단 우리나라의 외국인 구매 현황에 대해서 객관적 데이터를 철저하게 조사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6·27 대책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하게 늘어나는 착시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 구매의 문제와 등기의 문제는, 등기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처럼, 특히 6·27 대책 이후에 외국인이 주택을 구매하면서 결국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역차별이 생긴다면 저는 당연히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은혜 위원 세제를 부과하는 방향으로의 개편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그럼요. 포함돼 있는 거지요.

○김은혜 위원 특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출처를 확인한 다음에 양도세를 포함해서 세금에 대한 중과도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다 폭넓게 보실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그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이게 국회에 법안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회에서 논의해 가면서, 장관에 취임하게 된다면 그렇게 협력해서 논의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마지막 질문 드릴 텐데요.

혹시 ‘공정한 부동산, 지속가능한 도시’라는 책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못 봤는데요.

○**김은혜 위원** 21년 6월에 경기연구원이 기획해 출간한 건데요. 당시에 이한주 현 국정기획위원장, 이상경 국토교통부1차관이 공동집필을 맡았고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추천사를 썼습니다.

여기에는 헨리 조지의 토지공개념이 들어가 있는데요. 주택을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공간으로 보고 개발이익의 공공환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2년 대선 공약 즉 기본주택, 국토보유세와 결을 같이하지요.

이번 정부에서 국토보유세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현재 그것은 좀 이 자리에서 말하기 애매모호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기본주택이라고 하는 이념이 갖고 있는 지향점, 결국 주거복지에 관한 문제 또 양질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키는 그런 식의 기본적인 접근은 저는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기본주택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주는 것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내용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또 어떤 내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살펴서 구체적인 안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은혜 위원** 이상경 차관하고는 이야기해 보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지금 딱 한 번 만나서 10분 정도 수인사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김은혜 위원**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는 다시 정확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만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2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회의중지)

(20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맹성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준호 위원**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지난 1월 14일 오세훈 시장이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서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에 2월 13일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291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허가구역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34일 만에, 3월 19일 오 시장은 입장을 180도 뒤집어서 부동산시장 과열 책임을 인정하면서 강남·서초·송파·용산 전역에 구 단위로 재지정을 했는데요. 기존에 동 단위로 돼 있던 것

을 구 단위로 확대해서 2200개 단지, 약 40만 호를 대상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스스로 정책의 일관성을 무너뜨리고 혼란을 가중시킨 것인데요. 혼란만 가중됐으면 다행인데 이게 투기 수요를 불러오면서 갭투자가 급증하여 가격이 굉장히 급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국토부에서 낸 자금조달계획서 자료를 분석해 보면 2·3월에 갭투자가 급증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주거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 오세훈 시장의 오락가락 정책이 투기 심리를 자극해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장관이 서울시장의 권한범위 내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국토부는 반대 의견조차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가 있었는데요. 물론 현행법상 시도 단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게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토지거래허가제가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정책수단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서울시가, 단체장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토부에 자료 요청을 해 봤더니 박 전 장관은 서울시와 협의가 있었다고 답변을 했지만 국토부 답변에서는 서울시와 협의는 없었고 서울시의 일방 통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아마 당시에 조기 대선이 열리면서 오세훈 시장이 대권후보로 급부상했고 아마 대권욕에 사로잡힌 오세훈 시장이 부동산 정책을 정쟁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하다가 이러한 사달이 벌어진 게 아닌가. 결국 투기 세력의 대규모 유입을 초래했고 시장이 과열되었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확대와 같은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자체가 사전에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장관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토지거래허가구역 문제는 사실 집값에, 부동산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심대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관이 된다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가 있는 이 권한을 최소한 국토부와 신중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중앙정부 또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력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준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전의, 조금 전의 앞선 질의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많이 구매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사실은 현행, 2023년인가요 이미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법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하면. 그걸 통해서도 충분히 그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협의 절차를 갖고 그것을 좀 체계화하고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신고가 공포 마케팅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6·27 가계대출로 인해서 집값 상승세가 진정 추세에 들어섰다고 하는 것이 중론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을 통해서 신고가가 속출한다고 하는 공포 마케팅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신고가라고 부동산 커뮤니티나 이런 데 널리 알려졌는데 실제로 보니까 계약조차 되지 않은 가짜뉴스인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6·27 대책 이전에 이미 계약된 사안인데 그것이 대책 이후에 신고가가 이어진 것처럼 보도되는 사례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부동산시장을 교란할 목적으로 신고가 계약을 한 후에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장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혼란을 초래하고 불안을 가중시키는 수단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2021년에 이 문제가 한 번 제기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반짝 국토부가 아마 그것과 관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시와 조사를 한 이후에 그 뒤에는 그것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조작하고 왜곡하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현장조사도 좀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처벌하고 고발도 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 후보자님, 저녁 드셨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저녁 먹었습니다.

○박용갑 위원 200년 만의 폭우 또 40도가 넘는 폭염, 요즘 기후재난이라고 그러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박용갑 위원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늘, LH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박용갑 위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 하셨는데, 폭염 피해 철저히 대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약 13만 가구 정도 됩니다. 되는데 여기에는 아직도 에어컨이 없이 그냥 뜨거운 선풍기 하나로 의지하고 있는 주민들이 참 많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많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래서 작년부터 에어컨을 좀 설치해 주십시오 해서 LH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보면 지난번에 LH 담당자를 같이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2026년 여름까지 약 4만 7000세대 정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는 1만 90세대 정도 이렇게 했는데요, 2026년 하반기 것까지 다 당겨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2만 9000세대인데 그 4만 7000세대를 하고 나면 약 8만 2000세대가 이렇게 남습니다. 이것을 2028년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이분들이 사실 기다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빨리 서둘러서 에어컨을 설치해서 그분들이 고통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이게 속도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용갑 위원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부담 비율을 좀 높여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실제 기후 이상 문제 때문에 폭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현재의 조건에서 좀 서둘러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취임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요 LH가 5 대 5 비율로 국토부하고 매칭을 하는데요. 지금 LH도 보니까 사실 예산이 바닥이 나 있어요.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사실 국비하고 LH의 비율이 85%였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로 맞춰 줘서 좀 더 일찍 그분들 고통을 덜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위원님, 제가 에어컨 문제뿐만이 아니고 사실 국토부에서 굉장히 급하고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LH 자체적으로만 해결될 게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재정 투입을 검토해야 되는 사안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비용 드는 게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예, 예산은 조금 듭니다.

제가 저희 진성준 정책위의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시급하다 하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고민을 좀 하겠지요.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는 그걸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국토부에서 지난 5월 전국에 있는 야구장 시설점검을 한번 하라고 해서 시설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박용갑 위원 창원에 사망사고도 나고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대전에 있는 한화생명볼파크도 여기서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볼트가 박은 게 떨어져서 한참 후에, 야구가 시작하기 전에 이런 사고가 아마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그래서 좀 안전하게, 야구 팬들도 안전한 곳에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지금 현재 각 구장에 대해서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결과를 분석해서 전문가들하고 현장을 찾아보고 그런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이상이 없다 그랬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월 달에 점검을 했는데 7월 달에 사고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했는데 2개월 후

에 사고가 난 거니까 그것은 점검을 잘못된 거지요. 육안으로 해야 되는데 드론으로 아
마 했던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옥 위원님.

○윤재옥 위원 후보자님, 지방 미분양주택이 지금 심각한 것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새 정부 들어서 지방의 미분양주택과 관련된 대책을 발표한 게 있습니
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추가적인 준비를 하고 있
는 것으로 지금……

○윤재옥 위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부동산 대책 문제는 수도권은 공급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지방은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일단 원칙을 정하
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어쨌든 정부에서 아직까지 발표가 없다 보니 좀 관심이 부족한 것 아닌
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차 추경 때도 미분양주택에 대한 대책이 되게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요. 우선은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고 준공 전
미분양에 대한 대책으로 미분양 안심환매 대책과 관련해서 2500억 정도 추경에 담기는
했지만 이게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한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6·27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평택이나 이천까지도
이 대출 규제의 범위에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정책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장관께서 좀 꼼꼼히 챙겨 봐 주시면 좋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이게 지금 심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부도가 계속 나고 지방 건설사들이
폐업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지방의 여러 가지 경제가 위축이 되고 또 지금 새 정부에
서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내수진작을 위해서 많은 노
력을 하지만 이런 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인들 지역화폐 쓰는 정도로 해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윤재옥 위원 좀 챙겨 봐 주시고. 관련해서 전문가단체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해 주세
요. 여러 가지 하소연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너무 지금 답답해하
는 것 같아요. 계속 하소연을 하고 다니는데 아직까지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도 내놓
는 게 없으니까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균형발전, 동서화합에 대해서 장관후보자께서 관심이 많으시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윤재옥 위원** 균형발전과 동서화합 차원에서 상징성이 있는 사업이 달빛철도 건설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261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발의를 했거든요. 공동발의를 하였고, 대통령께서도 당시에 당 대표였던 시절에 의총에서 특별법 취지에 동의하면서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후보자께서 이 발의에 참여를 안 했어요, 전북 의원 중에 유일하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윤재옥 위원** 기억이 안 나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윤재옥 위원** 그러니까 어떤 소신하고 반대해서 발의 안 한 것은 아니겠네요, 기억이 안 나는 것 보면?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소신하고 반대된다는 표현은 그렇고요. 일단 달빛철도는 광주·전남 쪽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철도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거의 합의를 넘어서 공동으로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빠진 이유는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날 뿐이고요.

○**윤재옥 위원**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지금 현재 예타 면제 진행 중……

○**윤재옥 위원** 예타 면제 지금 검토 중에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그렇습니다.

○**윤재옥 위원** 관심 가지고 챙겨 봐 주시면 좋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윤재옥 위원** LH 개혁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택지 조성해서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그러니까 일단 LH에서 어떤 공공주택 이런 것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실제 국민들로부터 땅을 수용해서 어떤 택지를 개발하고 그 택지의 한 40% 정도를 민간에게 분양하는 패턴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공공임대……

○**윤재옥 위원** 그러니까 직접 지어서 분양을 하든지 직접적으로 좀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라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그렇지요. 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시공사, 민간은 시공하는 정도로 참여해도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면서 지금보다는 좀 더 한 단계 높은 공공주택을 진행하자는 의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관련해서 제가 다음 재보충질의 때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정준호 위원** PPT 띄워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민홍철 위원님, 황운하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께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된 질의를 후보자님께 주셨고요. 관련된 위원님들께 우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공식적으로 무안공항 방문해서 유가족들 직접 만나 보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제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PPT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조위와 관련해서 항공사 과실로 너무 중간 결론 몰아세우지 말라는 민홍철 위원님 그 지적은 다시 한번 새겨 주시면 좋겠고, 사고 당시에 제가 보니까 부산항공청에서 관할을 하는데 무안공항까지 차로 4시간 넘게 걸려 가지고 그 항공청장이 와서 브리핑하는 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박상우 장관께 ‘이것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호남지방항공청을 무안 쪽에 신설을 하겠다’라는 말씀 하셨는데 후보자님께서도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정준호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항공참사특위에서 특별법이 국회 통과할 때 부대의견 보면 ‘정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인사·예산의 독립성에 대한 보완 조치를 적극 마련해서 신속히 추진한다’라는 부대의견이 있는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정준호 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정준호 위원 그리고 무안공항과 관련해 가지고 유가족 문제도 있지만 이게 올해 10월 10일까지 무안공항 활주로 개항이 지금 연기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사실 방위각 시설이라든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연내 재개항이 투명하게 지금 보장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은데.

무안공항이 지금 호남권역의 유일한 국제공항이고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항이었는데 올해 지금 전혀 개항을 못 하다 보니까 여행업계, 관광업계가 굉장히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안공항 개항이 다시 한번 연기가 된다고 하면 이 관광업계에 대한 좀 대책을, 지원책을 국토부에서 고민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관련된 용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좀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무엇보다 가장 깔끔한 결론은 무안공항이 빨리 재개항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준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정준호 위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PPT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ITX-마을 열차 있지 않습니까? 이게 7월 달 기준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발주했는데 그 업체에서 납품을 완료한 비율이 33%가 채 안 됩니다. 이것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책을 좀 국토부에서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

은데 제가 보기에는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납품이 지연돼서 배차가 좀 늦어진다고 하면 기존의 무궁화 차량을 좀 개량을 해 가지고 사용 연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납품을 지연하는 업체에 대한 페널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상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납품 지연 업체도 포함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이런 관련돼 가지고 그 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KTX 같은 경우에는 정차역이 좀 없다 보니까 정차가 하루에 한두 편만 되는 역에서는 증차 요구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고속철도 차량을 증량해 가지고 배차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광주 같은 경우에서도 광주역에서 광주송정역까지 서틀열차가 있었는데 그게 용도 폐기가 돼 가지고 다시 서틀열차를 부활시켜 달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광주역에서 익산까지 ITX-마을을 타고 가 가지고 거기서 KTX로 환승해서 서울까지 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 배차가 좀 늦어져서 그런 계획을 저희가 못 세우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부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가 좀 지연돼 가지고 지역 언론에서 굉장히 여론이 불편했다는 말씀 들으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정준호 위원 국비가 어느 정도 부활이 됐기 때문에 조속히 착공될 수 있는 부분 후보자님께서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광주 상무역에서 나주 혁신도시까지 운행하는 GTX 노선이 예타에서 탈락을 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5차 철도망 계획에 지금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연말 정도에 예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후보자님께서 잘 챙겨서 5차 철도망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점식 위원님.

○정점식 위원 후보자님, 매입임대주택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점식 위원 매입임대주택 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께서 ‘국토부장관이 되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는?’이라는 서면질의 사항에 대해서 주거복지, 국토균형발전, 미래성장동력, 안전관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들 거의 대부분이 역대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해 왔던 겁니다. 특히 국토의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수십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 왔고 후보자께서도 여러 차

레 그 중요성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정점식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게 국토균형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후보자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일단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우리 전체 현재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점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2019년 12월의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은 이후에 계속 증가해서 24년의 경우에는 50.9%, 청년 인구의 경우에는 수도권 거주 비율이 53.9%에 달합니다. 그에 맞춰 가지고 지역은 그만큼 더욱더 활력을 잃어 가겠지요.

GRDP 기준으로 수도권 비중은 23년에 52.3%에 달하고 경제구조 역시 수도권 중심으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89곳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정점식 위원 지금 전주시 인구는 어느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역구인 전주?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줄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계속 줄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정점식 위원 그게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오는 소위 지역의 비애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전라북도는 전주를 제외하고서는 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정점식 위원 저희 지역구인 고성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인구·지방 소멸 대응 대책은 뭐냐라고 했을 때 후보자님께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저는 인구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결국은 수도권에 있는, 수도권 중심의 어떤 기업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방에 분산되어서 일단 좀 인구적인 어떤 변화를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지방에서는 현재의 여러 가지 지역거점을 성장시키고 또 그 자체의 교통망들을 확충시켜서 그런 노력들이 지역에서 받아 안을 수 있는 시스템들을 지속적으로 늘려 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개별 개별 지역에……

○정점식 위원 그렇습니다.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일자리 그리고 생활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이 소위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방도시들이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후보자께서도 동의를 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정점식 위원 그런데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생활인프라를 구축하고 청년들

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택정책도 역시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정점식 위원 그런데 공공매입 임대주택 공급을 보면 국토부에서 올해 어느 정도 공급하려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점식 위원 예, 뭐 그것을 언제 다 공부를 하셨겠습니까.

결국은 LH가 5만 6000호 정도, 지방공사가 7600호 정도 해서 6만 4000호 정도를 공급하는데 이게 그중에서 수도권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83%가 서울·경기·인천 이 지역에서만 4만 7000호가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상도, 강원, 충청, 전라 등 비수도권 전체를 다 합쳐도 지역별 비중이 1~2%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불균형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해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경기 활성화 문제와도 깊이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점식 위원 맞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우에도 미분양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LH와 함께 소위 청년들이 지방에 머무를 수 있도록 공공매입 임대주택의 지방 공급을 좀 더 활성화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명수 위원님.

○손명수 위원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여름 굉장히 더운데요. 기후위기를, 기후변화를 정말 실감하는 여름인 것 같습니다. 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그렇고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도 그렇고 대중교통 이용이 많이 활성화돼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2018년 42.9%에서 2022년 기준으로 32.7%로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고받아 보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손명수 위원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게 K-패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손명수 위원 비슷한 개념의 제도가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그리고 국토부의 K-패스를 연장해서 경기도는 The 경기패스, 인천은 I-패스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의 서울시·경기·인천이 서로 통합이 안 돼요. 서로 갈등이 좀 있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손명수 위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K-패스를 선택해야 될지 기후동행카드를 선택해야 될지, 자기의 이용 패턴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고민을 해야 돼요, 어

면 게 더 유리한지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49유로 티켓을 선불제로 해서 전국의 모든 지하철·버스·페리, 모든 교통수단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물론 고속철도 이런 건 예외입니다마는—오스트리아도 기후티켓이라고 해서 1년에 1090유로, 월 91유로 수준이면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약간 갈등이 있는데 이런 것을 국토부가 나서 가지고 전 국민이…… 사실 수도권 외에, 계속 균형발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지역에는 이런 게 또 사실 없어요. K-패스 같은, K-패스는 되는데 기후동행카드 뭐 이런 것 있잖아요, 이건 수도권에만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액권 방식의 대중교통이용권 이런 것을 국토부가 3개의 수도권 지자체의 갈등을 좀 없애고 후보자님께서 장관 되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내적으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명수 위원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철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철도는 경제적 타당성 B/C, 소위 예타를 통과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보고받아 보시고. 저는 예타 제도 자체가 이제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전문가도 계신데 사실은 예타 제도 이제 없애야 됩니다. 이제 저는 재검토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철도는 그렇습니다. 철도는 예타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지방만 그런 게 아니고 수도권도 통과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예타 제도 한번 진지하게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여야 위원 모두 제가 보기에는 동의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타 제도 개선을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저도 지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용인 지역구인데 용인이 110만 특례시입니다마는 철도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인 시민들이. 특히 제 지역구인 기흥에서부터 남부 지역은 아예 철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흥역에서 동탄을 거쳐서 오산까지 분당선 연장 사업을 사타까지는 통과를 했고요 이제 예타를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기흥구만 45만 정도 되고요 동탄도 거의 사오십만, 오산도 약 30만, 이 3개 도시만 해도 거의 150만이거든요. 그 위에 수지까지 하면 거의,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좀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손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 후보자님, 앞서 이어서 6·27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에서 6·27 대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 수요 억제에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이종욱 위원 표를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매매가격지수인데요, 주간입니다. 일전에 6월 23일 0.43까지 올라가서 폭등하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뒤에 큰 폭으로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냐 하면 0.17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당한 부분 효과는 있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박근혜·문재인 정부 평균이 0.07이고, 0.17이라고 그러면 연장으로 따져 보면 연간 한 9%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직도 높은 상황에 있는 거다. 그래서 완전히 불씨가 꺼졌다는 평가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단기적인 효과는 거의 다 했고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그런 전문가 평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는 후속 공급대책이라든지 앞으로 나올 규제정책들이 어떤 모습을 띠고 올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의문이고 반면에 부작용은 또 상당히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음 보시지요.

결국은 현금으로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 14.6억 기준으로 보면 8억 6000의 현금이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4억 2000이 더 필요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청약도 국민평형 기준으로 15억이 넘으니까요 현금 9억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부작용이 있습니다. 지금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다음 페이지요.

전세는 줄고 있고 또 월세는 증가해서 어떤 의미에서 서민이라든지 신혼부부 또 청년들의 월세에 따른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그런 다양한 부작용이 또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금 부자만을 위한 시장이 되고 또 월세로 밀려나서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조금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런 평가를 했을 때 저는 어떤 이에 따른 보완대책과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이 빨리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현재 6·27 대책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공급대책으로 일정하게 시장에서 그런 게 되지 않으면 결국 약간 불안정한 상태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임하게 되면 가능한 한 빨리 공급대책에 대해서 시장이나 또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돼서 제시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6·27 대책이나 모든 대책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6·27 대책에서 추구하고 있는 일정한 수요 억제책에 대해서는 좀 약간의 부작용도 있지만 인내심 있게 관철해 나가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과거의 진보 정부와 달리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리고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친시장 정책을 표방하면서 국민들한테 상당한 호응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출범 초부터 대출 규제, 극단적인…… 이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스물여덟 번 한 그런 대책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요. 그런 극단적인 규제대책을 정권 초부터 추진하는 모습에 또 말 모를 그런 불안과 의구심이 가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직까지는 큰 틀에서 보면 기존의 진보 정부에서 생각하던 다주택자를 최악시한다든지 그리고 임대차 4법 등 반시장적인 제도를 그대로 존치시키겠다는 입장이고 확실한 공급대책도 없기 때문에 크게, 큰 틀에서는 기존의 진보 정부와 다를 바 없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전철을 따라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우려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규제로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요를 힘으로 누를 수는 없지요. 그래서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임명되시게 되면 대선 공약에서 제시한 그런 초심으로 돌아가서 시장원리를 충실히 따르는 정책 대전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런 내용이 곧 발표하실 부동산정책에 담기기를 국민과 함께 고대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태 위원님.

○이건태 위원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수도권 광역교통에 대해서 좀 여쭙보겠습니다.

수도권 서남부권에 철도 소외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제2경인선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KDI에서 민자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노선이 인천 청학에서 연수, 논현, 서창, 신천을 거쳐서 시흥 은계 또 저희 지역인 부천 옥길·범박, 서울 온수·목동 이렇게 연결되는 노선이거든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주민이 사시는데 철도가 없어 가지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버스를 타고 1호선 역곡역이나 이렇게 연결해서, 역곡역 아침에 전철을 타 보면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시민들의 고통이 심합니다.

이 사업이 작년 12월 달의 2025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부대의견에도 반영이 돼 있고요. 또 이재명 당시 후보 대선 공약에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수도권의 철도 사각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사업이 시급히 추진돼야 되는데 장관이 되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좀 관심을 가지고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이건태 위원 그리고 연결해서, 철도사업은 한 10년 이상 이렇게 걸리는 장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부천 옥길·범박 지역은 주민이 6만 명이 사는 작지 않은 큰 도시인데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광역버스 한 대도 없고 철도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침이면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전철까지 가서 힘들게 출퇴근 하느라고 거의 파죽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광역버스노선이 필요한데, 부천은 경기도를 기점으로 하는 광역버스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광역버스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의 2025회계연도 국토부 예산의 부대의견으로도 반영이 돼 있고요. 작년에 윤석열 정부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신규 노선을 국토부 대광위가 공모를 하려면 신규 사업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매년 신규 사업이 잡혔는데 작년에는 본예산에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4월 달에 추경을 할 때 제가 예산을 강력히 요청을 하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들, 또 예결위에서 도와주셔서 가지고 다행히 금년도 신규 면허를 줄 수 있는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천에서도 옥길·범박에서

양재역으로 갈 수 있는 신규 노선 면허를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이건태 위원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은 장관님도 아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태 위원 그런데 서울시장님 입장에서는 서울 교통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저어하는 그런 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 서울에 가서 경기도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가서 일하고 서울의 부가가치를 늘려 주고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이것을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결국 서울도 살고 경기도도 살려면 경기도 시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데 편리하도록 해 주시는 게 국가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복지를 위해서 제2경인선과 저희 옥길·범박 지역에 광역버스를 꼭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건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후보자님, 식사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했습니다.

○김도읍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진건설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재차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이 후보자님 돕는다고 그런지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라고 옹호를 하시고 후보자님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한 것 기억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김도읍 위원 그런데 자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진즉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좀 띄워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예술마을 정원화 사업은 이게 수의계약입니다. 이게 나라장터라고 조달청 자료입니다. 금전거래가 있었다라는 우진건설이 수의계약한 겁니다.

그다음 보십시오. 서원대로 선형개량공사 이것도 1순위는 주식회사 아이에스종합건설이고 2순위가 우진건설인데 어찌 된 판인지 나중에 공사는, 이거 지금 전주시로부터 제가 받은 것이거든요. 사업 시행한 것을 보면, 전주시에서 어떻게 왔느냐 하면 사업 시공사가 우진건설 대표 김0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경쟁입찰이 아닙니다. 이것도 제한경쟁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1순위가 빠지고 2순위가 지금 시공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전북대학교 특임교수 이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전북대학교가 국립이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김도읍 위원** 학교가 문제인지 더불어민주당이 문제인지 이것은 한번 짚어 봐야 될 사안입니다.

지금 후보자님하고 똑같이 2019년 5월 13일, 지금 민주당 중앙당 고위당직자도 똑같은 날, 이분은 서울이 지역구인데 21대 때 낙선을 했거든요. 이때 낙선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이때 똑같이 300만 원으로 특임교수를 합니다. 교수 임용일자하고 퇴임일자가 똑같아요. 그리고 김현미 전 장관도 있어요. 보면 더불어민주당 전주 또는 전북의 시의원, 도의원 또 확실하지는 않지만 전 시장님도 여기에……

전북대학교가 문제인지 아니면 당에서 자꾸 이렇게 강요를 하는 것인지, 이것은 교육위에서 한번 분명히 챙겨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인께서 교사로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김도읍 위원** 이제 장관님 되셨습니다. 부인 문제는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할게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한번, 만약에 장관이 되신다면 굶어살피보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김도읍 위원** 후보자님, 예?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김도읍 위원** 가덕도신공항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부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께서 ‘가덕도신공항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김도읍 위원** 그런데 사실 이 대형 국책사업이 ‘걱정 안 해도 된다’보다는 어떻게 하겠다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부산시민들이 안심을 했을 텐데 조금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장관님, 이것 공항 관련해서는 국토부 입장이 어떻다고 봅…… 아니 후보자님, 국토부 입장이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현재 상태에서 일단 첫 번째로는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원래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시기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렇다면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내년 하반기에는 활주로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맞습니다.

○**김도읍 위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주십시오. 저도 기재부랑 협의를 잘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김도읍 위원** 그리고 공항이 원만하게 공사가 진행되려면 선행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지역에 거주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민들 보상, 토지 보상, 지장물 보상 그다음에 이주대책·생계대책, 이게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됩니다. 잘 되어야만 주민 수용성 제고하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김도읍 위원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주신 답변서를 보면 마치 부산시와 건설공단이 일을 하고 국토부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상당히 소극적인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어쨌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도읍 위원 국책사업의 보상 등의 업무는 국토교통부 업무 아닙니까?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김도읍 위원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일단 가덕도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원래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분명히 국민과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약간 세세한, 현대의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 혼란이 있다는 것도 위원님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문제는 미루지 않고 만약에 취임하게 되면 밀착해서 구체적으로 따져서 진행이 가능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예, 잘 챙겨 봐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민홍철 위원님.

○민홍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오늘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시고 의지도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공공 부문에서 지역균형발전에 가장 걸림돌이 된달까요, 저해되고 있는 제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타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민홍철 위원 그렇습니다. 아마 후보자님께서도 국토위원도 많이 해 보시고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예타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500억 이상—현재는 500억 이상이지요—투자 사업 어떤 사업이라도 예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지수를 따지고 볼 때 비수도권은 거의 통과될 확률이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지역소멸이다 또 지역균형발전이다, 거창한 정책은 추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예타제도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변경시키지 않고서는 지역균형발전은 저는 구두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예타제도를 공공의 SOC 부문만이라도 이것을 정책적인 판단 수단으로 변형된, 개혁된 제도로 바꿔 줘야 지금까지 말씀하신 균형발전의 문제를 실행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동남권에 관련된 것도 현재, 지난번에 울산-부산 순환선은 예타가 통과됐고요. 또 하나가 동남권 내륙순환 광역철도 지금 예타 중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민홍철 위원** 아마 11월 중에 예타가 발표가 될 건데요. 그 부분도 동남권에 메가시티를 완성할 수 있는 하나의 광역교통망의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잘 좀 지켜봐 주시고. 현재 기재부에서, KDI에서 하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민홍철 위원** 그래서 역점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아까 가덕신공항과 그 순환 광역철도 그다음에 부전-마산선, 현재 상황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바가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민홍철 위원** 그래서 사상 지역의 대피갱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거의 4년 가까이 준공을 못 하고 동남권에 있어서의 마산-부산 간의 철도가 운행을 못 하고 있는데, 저도 SK로부터 여러 번 보고도 받아 보고 했는데 현재 상당히 공법 문제 가지고 국토부하고 서로 견해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 어차피 거기는 연약지반이고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대안을 제시해서 신속하게……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있고 개통이 안 돼서 불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안을 기술적으로 마련해서 준공해서 개통될 수 있도록 장관후보자께서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구요.

그다음에 동남권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국제물류진흥지역, 경상남도과 부산시가 건의한 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현재 아마 국토부에서도 물류 파트에서 전국에 네 군데 특화된 물류 단지를, 물류 지역을 구상해서 용역까지 실시한 바가 있어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국토균형발전의, 동남권의 발전 측면에 있어서 가덕신공항과 그다음에 북극항로 문제 그다음에 광역철도 완공, 여러 가지가 복합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게 연속성 있는 정책이 되기를 요구하고요. 후보자님께서 살펴서, 아마 그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의 대통령 공약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명칭은 달라졌지만. 그래서 종합적인 그런 과제들이 하나하나 이행됨으로써 진정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지역소멸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후보자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구상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민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태영 위원님.

○**엄태영 위원** 충북 제천·단양 엄태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관님, 신문에 나서 아실 텐데 ‘새만금공항백지화공동행동’에서 ‘김윤덕 국토부장관 지명을 철회하라’ 이렇게 전북 시민사회가 시위한 거 보고받으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봤습니다.

○**엄태영 위원** 여기서 왜 이분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고향 출신 장관님 지명까지 철회를 요구하면서 반대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전라북도의, 저는 개인적으로 소수 의견이라고 봐지는데요. 전라북도 도민들의 대다수가 새만금공항이 빨리 착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 일부 공항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제가 굉장히 공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태영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어떤 이유도 있을 것이고 환경 측면이 있을 것이고 자세한 건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새만금국제 공항에 대해서 지역구이신 신영대 위원님도 오전에 지적하셨는데 조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공포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근에 조류가 서식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많이 인식이 됐을 겁니다. 무안공항의 제주항공 참사도 그와 같은 이유로 사고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말씀 더 드리자면 존경하는 민홍철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중간발표를 했는데 유가족과 조종사들이 아주 상당히 불만이 많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엄태영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자세하게 조사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조종석 녹음 장치에는 조종사가 오른쪽 2번 엔진을 끄자고 말하는 것이 녹음됐는데 실제 비행 데이터에는 1번 엔진이 꺼져 있다. 그래서 이것은 조종사 실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1번·2번이 분명히 확연히 차이가 있어서 조종사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종사도 다 돌아가셨다 보니까 조종사의 실수로 이거를 치부하려고,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유가족들과 조종사 단체에서 엄청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잘 체크해 주시고요. 하여튼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유가족들의 요구 사항을 잘 헤아려 주시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씀드릴게요.

외국인 국내 부동산 쇼핑 논란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한 65%를 차지하는데요. 이거는 국민 주거 문제는 물론이고 국가 안보까지 좀 영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보면서 당시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규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주택 접근성을 현저히 떨어트릴 것이다’, 두 번째 ‘현금 부자들과 외국인 투자자 등에게만 길을 열어 주는 기형적인 부동산시장 구조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지금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6·27 전과 후를 한 달 정도 비교해 봤더니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자가 12.3% 줄어들었습니다. 주로 서민들과 청년들의 생애 첫 집 마련에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분석인데요. 이걸 예상대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외국인의 매입이 더 늘어났습니다.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외국인들이 자국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어떤 제한도 없이 국내 주택을 막 매수하는 것이지요.

대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21~2024년까지 국내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은 총 6만 6850명, 이 중에 4만 3570명이 중국인입니다. 65%를 차지했지요.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중국 정부가, 개인이 아닌 정부가 용산 일대를 직접 매수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태원 일대 1250평에 약 299억, 300억을 들여서 중국 중화

인민공화국 명의로 매입을 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라도 뭔가 좀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거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주요 내용은 외국인이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의 주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반드시 관할 신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증빙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된다는 이런 요지로 법률 개정안을 냈는데 한번 장관께서 살펴보시고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마구 매입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의 의견과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외국인, 특히 6·27 대책 이후에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계속 체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등기 건수는, 이게 좀 시차가 있는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관에 취임한다면 그 문제를 자세히 살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법안이 계류돼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와 함께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대 위원님.

○신영대 위원 존경하는 엄태영 위원님께서 우리 군산 새만금공항에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새만금공항이 지어지는데 후보자님, 무안국제공항 참사 시기에 여러 가지 분석 요인이 있지만 ‘활주로는 너무 짧았다’ 이런 분석도 있었던 건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신영대 위원 그래서 현재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도 길이를 넓힐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도 있다는 말씀 들리지요.

그리고 청주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2744m, 지금 전국에서 제일 짧은 활주로 길이를 갖고 있잖아요. 이것은 충북지역의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인 거잖아요. 이것도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대 위원 꼭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엄태영 위원님을 위해서 또 이연희 위원님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신영대 위원 그런데 우리 군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정된 새만금국제공항이 2500m입니다. 가장 짧게 계획돼 있습니다.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할 때 제대로 만들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만금에 여객 운송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화물 운송이 많을 텐데 화물 운송이라는 것은 그래도 큰 비행기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아요.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영대 위원 그리고 장관후보자께서도 관심이 많았던 법안이었는데 전주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되는 법안이, 대광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소재지로 확대가 됐는데 결국은 이게 인접도시도 가능한 겁니까, 연접도시가 가능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다……

○신영대 위원 둘 다 가능한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신영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구권을 보니까 실제 인접도시는 아니지만 구미시와 의성군도 대도시권의 범위에 포함돼서 시행령을 발표를 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신영대 위원 이번에 전주권이 포함됐으니까, 여기에 지금 군산이 현재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권을 보면 구미시가 교통 통행량이 8.2%, 의성군 0.7%인데 현재 대구권 광역교통망에 포함돼 있거든요. 우리 전라북도 놓고 보면, 전주권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완주군이 27.7%고 익산시가 12.7% 그리고 군산시가 11.2%입니다. 같이 연접돼 있는 김제시가 7.9%밖에 안 된다고 보면 실제 교통량의 대부분은 오히려 군산이 더 많은 거고 향후에 새만금산업단지가 개발이 더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기업 유치가 더 활발하기 시작하면 교통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신영대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행령을 국토부에서 준비할 때 꼭 군산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의견 좀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이번 전주권에 군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도 알게 됐고요. 현재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가 근거 자료가 군산이 포함되는 게 훨씬 더 타당하다는 게 데이터상 입장이고요. 그래서 취임하게 되면 이번 대광위법의 통과 정신을 보더라도 전주권에 군산이 반드시 포함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져서 그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영대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제가 질의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좀 균형감 있는 장관후보자님의 시각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까 대체부품 또는 인증부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부품들은 자동차의 어떤 핵심적인 내장부품이 아니라 외장부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범퍼랄지 또는 옆에 펜더 이런 것들이 사고가 나서 이게 부서졌을 때 부품을 교체하는데 한마디로 현대나 기아차

하고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같이 협력사의 순정 부품을 쓸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 협력사가 아닌 다른 민간기업들이 만들어 낸 대체인증부품을 쓸 거냐 이런 논쟁이 현재 있는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대체인증부품의 세계 시장 규모를 얼마라고 보고 계세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향후에 2025년까지 468조 이상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현대차가 있고 기아차가 있습니다. 대만은 아예 완성차 공장이 없잖아요. 대만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대체인증부품 회사가 BMW 외장 부품도 만들고 벤츠 부품도 만들고 현대 기아 부품 다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어요.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품이 싸니까, 미국 같은 경우들은 부품을 본인이 직접 사서 수리하잖아요. 당연히 싼 것을 선호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품질에 이상이 있냐?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출발이 GM대우가 군산공장을 철수하면서 GM공장의 협력사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이런 대체인증부품을 우리나라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새로운 시장으로 만들려고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국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세계 시장을 보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균형감 있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안태준 위원님.

○안태준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제 지역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광주에 보면 대형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국내 최대 물류기업 중의 하나인 C 기업의 국내 최초의 택배와 이커머스 융복합 메가허브 시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시설에는 아시아 최대급인 43km 컨베이어벨트, 웨어러블 스캐너 등 첨단장비가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을 가 보면요 이 입지에 어떻게 이렇게 물류단지가 들어올 수 있는지도 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인허가 과정에도 사실은 제가 각종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 주변이 좁은 왕복 2차로입니다. 거기 또 지방도이고요. 물론 그게 확장 계획은 있다고 하지만 상당히 요원한 상태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를 통해서 곤지암 인터체인지나 경안 인터체인지로 빠져나가는데 인터체인지로 들어가는 회전 반경이 안 나와서 상당히 곤혹스러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내 구간을 통과해서 대형화물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 물류센터는 통상의 물류단지·물류센터의 입지 여건과는 영 반대의 곳

에 신기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전임 장관님들, 차관님들 많이 와 보셨는데요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문제가 있다, 이거는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가칭 중부 인터체인지 설치에 관한 논의가 좀 시작이 됐고 타당성 검토도 하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개정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항이 아직 적용된 선례도 없어서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물류·교통·환경 정비지구 제도가 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말한 바도 있었고요. 그때 국토교통부에서는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한 바도 있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내년 1월까지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태준 위원** 이 주요 내용과 경과 등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도 조금 보고를 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안태준 위원** 아울러서 가칭 중부 인터체인지가 설치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 좀 해 주시고 세심하게 챙겨 주시라는 당부 말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안태준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규제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대부분이 다 접경지역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경기도 광주가 중복 규제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그중에 세 가지가 물과 관련된 규제가 겹쳐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서도 좀 답답한 게 국토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토부는 입지에 관한 문제를 하기 때문에 자연보전권역 이런 규제가 있지만 나머지 문제는 대부분 환경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에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 중의 하나인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접개발 규제가 개선된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태준 위원** 이게 기존에 산단 개발 면적이 6만㎡까지밖에 원래 안 되는데 우리 지역은 특대고시 지역이라 3만㎡까지도 안 됩니다. 그것도 수도권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도 산업단지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연보전권역은 5연접, 그러니까 30만㎡까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풀리기는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한 희생이 있는 지역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에는 광주만의 문제로 규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물, 수도권 분들이 먹는 물 문제 때문에 그거를 고스란히 광주가 다 갖고 있고요.

지난 2008년에 환경부에서 오염총량제를 시행을 하면 입지 규제는 없애는 걸로 하겠다, 오염총량으로만 하겠다 해 놓고 입지 규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입지 규제 있는 것도 좋은데 그 입지 규제에다가 중복 규제를 하니깐 그나마 있는 규제에 또 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집만 짓고 살아라지 아무 짓도 못 하게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도 광주를 비롯한 경기 동부권역 주민들이 무조건 완화를 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첨단 공장이나 도시형 공장을 허가를 하면 비도시 지역에서는 조금 신규 개별입지를 좀 제한하는 방식으로 합리적 재조정을 해 달라는 거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도권 수질 보전을 위해서 사실 이렇게 묵묵히 희생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기 동부권역 주민들을 위해서 합리적 수준에서 규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도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를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는데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협의를 잘 해 볼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안태준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김정재 위원 김정재입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주택 미분양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방도시 공동주택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지방도시에 지금 미분양 많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김정재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전국적으로 미분양 현황을 보면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5년 6만 6000호, 22년부터 이게 줄고 있지 않습니다. 추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건 전국적인 추세지만 특히나 수도권은 지금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지방은 미분양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만 보더라도 2022년에 공동주택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2년 8개월 만에, 작년 11월에 겨우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천 세대가 미분양인데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지역 경쟁력 저하도 있을 것이고 생활 인프라도 부족하고 또 인구 유출 등등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요 예측 실패가 아닌가.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과잉 공급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30만 도시, 50만 도시, 100만 도시 이런 걸 외치면서 주택 공급에 막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인구 유입은 별도 없는데 계속 신규 주택만 늘어나게 됩니

다. 특히나 외곽지역으로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미분양이 되면서 선거 구호 그리고 지금 도심에는 빈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도시에서 건설되고 있는 민간 주택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인허가권을 지자체 단체장이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의 수요를 예측하고 또 공급을 조절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방의 민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 지자체단체장에게 맡기고 있는데요. 이것을 공공주택처럼 정부가 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려 봅니다.

지방도시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단순히 주택 공급, 미분양이 문제도 되겠지만요 도시의 공동화가 일어나면서 도시의 주택들이 지금 재산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도시 안에 있는 주민들끼리 굉장히 감정도 상하고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는 지방도시 민간 주택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인허가 과정에 참여해서 무분별한 인허가를 좀 막아 주셨으면, 그래야만이 미분양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겠다, 조기 차단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일면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좀 얘기 들으면서 생각을 했고요. 다만 약간 권한이 좀 다른 문제에 대한 조정 문제이기 때문에 취임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그 구체적인 안을 준비해서 좀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꼭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김정재 위원 그다음에 택시 월급제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택시가 어려운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김정재 위원 그래서 지금 수송률도 굉장히 감소하고 있고 또 고령화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자율주행이 되면 더 어려워질 거고요. 그래서 정부가 2019년부터 이런 택시기사님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주 40시간 일해야 되고 월급제 204만 원까지는 보장한다라는 모토의 법을 만들고 서울지역에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이것을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려 그랬는데 아직까지 조정해야 될 부분이 많아서 일단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토부가 택시산업 발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택시사업자들 또 법인노조, 서울시 등등 노사정 TF를 구성해서 굉장히 열심히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 내용을 보면 일단 이 제도를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기사 1명당 500만 원 이상의 수입은 올려야 한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지역으로 무조건 시행하는 게 아니라 수입에 따라서 각 지역을 고, 중, 저로 수입 지역을 나누어서 30%, 20%, 10%만 월급제를 먼저 시행을 해 보자라는 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공공운수노조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알고 계시지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김정재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제안은 공공운수노조는 지금 7만 2000명

택시기사님들 중에 1%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 플러스 업계 전반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드시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고 목소리가 큰 분들만 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지?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요. 또 노사도 약간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각계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여기는 너무 예민한 문제가 있고 또 서울과 지방의 차이도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현장에 가서 직접 만나 보기도 하면서 노사 양쪽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어떤 현장 행정 이런 노력을 해 가지고 좀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한준호 위원님.

○**한준호 위원** 경기 고양시를 출신 한준호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후보님.

오늘 그래도 겸손한 태도를 계속 유지하시면서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그러시다 보니까 제가 옆에서 볼 때 본인에 대한 사안들을 너무 적극 항변을 하지 않으셔서 쉽게쉽게 넘어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것 한말씀드리고 두 가지 제안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국회의원들이 대개 행정 집행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한준호 위원** 저 같은 경우도 지역에 여러 가지 예산들을 가져다주는데, 예산을 가져다주면 자치단체에 갖다주고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집행하지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관련 되는 것들을 설명할 때쯤 되면 이렇게 진행이 됐구나라고 보통 그 예산을 가져온 국회의원들이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안들이 수의계약인지 또 이걸 비딩(bidding)을 통해서 가져왔는지 체크하기보다 이 예산을 통해서 지방자치정부에다가 잘 좀 집행을 해 달라라고 하고 차 후에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가는 것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항변이 조금 적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나 해 드렸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드리고 싶은 두 자기 제안은 첫 번째는 오늘 유가족분들 만나셨다고 했는데, 이 자료도 받으셨을 테고요. 이게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의 건의문인데, 이 내용들을 천천히 살펴보시되 이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토부에서 항공 안전과 관련된 전문적 인력이나 또는 실 단위에서 이걸 다루기에는

사람들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연속성을 띠고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주체들이 없습니
다. 지금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국인 36개국 중에서 제가 알기로 32개 정도가 항공 안전
을 다루는 기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항공안전청이 됐든 유가족들께서 제
안하는 바든 해서 전문기구를 하나 만드는 것에 대해서 후보님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적
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저는 정말 이번 무안 사고를 통해서 그런 준비를,
시스템을 바꿔 주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적극 공감
하고 있습니다.

○한준호 위원 그래서 현장을 직접 뛰어다니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관련해서 지난 4월 30일 국토부에서 항공안전 혁신방안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제
가 내용들을 쭉 훑어보니까 글썄요, 이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국토부가 현재 인원과 현
재 조직으로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검토를 하신 것 같아서 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가 첫 질의, 메인 질의를 할 때 드렸던 건데 3기 신도시에 대한 문제입니
다.

어쨌든 공급 부분이 6·27 대책 이후에 나와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후보님께서도 말
씀을 주셨고, 그러자면 3기 신도시를 안전하고 빠르게 완공을 해야 될 텐데 이 3기 신도
시의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자족용지 부분을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다만 여기 국토부 관계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5년 전부터 꾸준히 자족용지를
어떻게 쓸 것이냐…… 지금 공업용지 물량이라는 것, 이것은 구시대적인 건데 이것을 갖
다가 물리지 않는 이상은, 자족용지 저희만 해도 40만 평이 넘는데 이걸 채울 방법이 없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님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이 자
족용지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진짜 자족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별도의 TF라도 만들어서 꼭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차관님이 됐든 몇 차례 얘기를 해도 동의는 하시
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끌고 가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장관님께서 꼭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잘 알겠습니다.

○한준호 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정 위원님.

○김희정 위원 김희정입니다.

아까 아파트 분양권 취득에 있어서 답을 명확하게 못 한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자 합니다.

해당 건설업체에, 외숙모가 그 건설업체 회장의 여동생이고 그다음에 외삼촌이 해당
건설업체에 상무로 있었는데 그런데도 대금을 못 받아서 분양권을 대신 받았다고 얘
기를 하면서 납품은 얼마를 했고 미수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증빙도 못 하고 기억도 못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건설현장에
서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과연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답변하신 것 중에 앞뒤 말이 맞지 않는 부분 제가 빠르게 지적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부도날 위기라서 아파트 분양권으로라도 빨리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왜 그것을 3년씩이나 들고 계세요? 바로 처리하셔야지, 부도날 위기인데?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분양을 받게 되면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마지막에 잔금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건설회사에서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에 관한 이자 같은 건 감당해 줬고 문제는 거의 착공 단계에 들어서 입주 단계에 들어가게 될 때 말소금이라고 해서 마지막 돈을 내야 되는 거지요. 그 비용을 제가 내야 되는데……

○**김희정 위원** 그래서 그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분양권 획득하는 데 그러면 본인 현금이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몇천만 원……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명확하지 않다고 제가 계속 드리는 게 받아야 될 돈이 얼마고 그런데 받은 이익이 얼마고 본인 현금은 얼마 들어갔는지, 얼마를 그 회사에서 해 줬는지에 대한 어떤 것도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부당이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나시면 정확하게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신고에서는 2억 7000만 원 실거래가라고 그렇게 해 놓고서 실제로 몇 년 뒤에 판 금액은 또 4000만 원이라고 신고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실제로 그때 거래가 있었던 것을, 제가 바로 그해에 있었던 거래가를 확인했더니 실제로 2억대에 거래가 있었는데 왜 본인은 4000만 원에 팔았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아니, 그건 은행에 그걸 담보로 잡힌 돈이 있으니까 그걸 인수인계하는 겁니다.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말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가진 자료에서는 납득하기가 힘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실제로 시장 거래는 2억 얼마에 이루어지고 본인도 재산신고 하면서 실거래가가 2억 얼마라고 재산신고 해 놓고서 판 금액은 4000만 원이라고 이런 식으로 적어서 재산신고 하는 데도 상당히 의문점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제가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현금이 오고 간 건 그렇게 오고 가게 된 거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희정 위원** 현금이 오고 간 걸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판매를 4000만 원에 했다고 재산신고를 하셨다고요. 판매금액을 정확하게 쓰고 은행에는 얼마를 줬다 이렇게 쓰시지를 았고요. 재산신고 내역에 근거해서 제가 질문드리고 있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어떤 전매를 한 것이 부당한 이익, 투기적 목적으로……

○**김희정 위원**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본인이 전북지사 나와 가지고 김관영 지사하고 토론회 하면서 비슷한 사례가 김관영 지사한테 있으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도덕적 기준이 맞지 않고 더 높여야 된다고 바로 김윤덕 후보가 김관영 지사후보에게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본인 사례를 상대방한테. 기억 못 하십니까?

화면 띄워 볼까요? 나왔네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희정 위원 자기는 그렇게 해 놓고서 뭘 남한테 저렇게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지금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저는 공직자가 부동산에 대한 그런 건 좀 더 높은 수준으로 하는 게 지금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어떤 물건의 성격이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물건은 거의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방이……

○김희정 위원 가격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행태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직자의 행태가 수도권에서의 행태와 지방에서 행태가 달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부동산 전매 제도를 이용하는 목적은 투기 목적성이 강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송천동 아파트를 구매한 건 어떤 대물에 의한, 강제로 구입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송기현 위원님.

○송기현 위원 후보자님,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아파트가 실제로 재산등록 할 때 2.7억 정도로 등록이 된 것은 시가를 등록한 거고 그것을 매매한 것은 담보로 되어 있는 것을 공제하고 나서 현금으로 매매해서 취득한 금액만을 다시 취득 매매가격으로 신고했다 이런 취지시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맞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권을 취득한 이유가 대물변제로 해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 해서 분양권을 사서 전매하는 것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맞습니다.

○송기현 위원 후보자님, 주택도시기금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송기현 위원 주택도시기금이 임대주택 같은 것을 할 때 거기에 쓰는 거기도 하고 또 전세자금대출을 하면서 이자 차액 보전하는 데 쓰고 이렇게 하는 돈인데 주택도시기금이 120억 정도가 최근에 적립이 돼 있어서 외견상으로 굉장히 큰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여러 가지로 사용하면서 실제 여유자금은 11억으로 줄어들어서, 한 40억, 50억 되다가 11억으로 줄어들어 있어 가지고 가용할 만한 양이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을 적립하는 원천은 청약저축 그걸로 하기도 하고 또 채권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도 지방 건설경기를 위해서 하는 미분양 주택 매입할 때도 이걸로 쓰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또 미분양안심환매 사업 역시 이걸로, 주택도시기금에서 3000억이 나가는 걸로 돼 있고 그래요.

필요할 때는 주택도시기금을 다 쓰는데 이게 지금 여유자금에 달랑달랑한 상태이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일에 쓸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관심 좀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점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시나

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그게 50조 수준에 있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송기현 위원** 11조 정도까지 떨어져 가지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크게 떨어진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기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수입도 상당히 줄어든 형편이고 또 여러 가지 지출적 성격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과정에서 불균형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송기현 위원** 최근에 그걸 쓰는 용도가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첫째는 재원 문제를 좀 더 고민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적절한 사용처 여부에 대해서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 가져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적극적으로 재정 투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기현 위원** 재정 투입도 고민하셔야 되고요. 맞습니다.

최근에 후보자님도 그랬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기를 LH 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LH 개혁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게 주거복지 하는 게 있고 토지가 있고 주택이 있고 그래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송기현 위원** 토지를 개발해 가지고 단지를 파는 이런 게 있고 또 임대주택 같은 주거복지 사업도 있고 그렇다는 말이지요. 실제로 주거복지를 하는 재원이 택지개발을 통해서 나오는 돈으로 주거복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송기현 위원** 그래서 잘못해 가지고 택지개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공공성을 강화하다 보면 주거복지 하는 재원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LH 개혁이 잘 안 되는, 개선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원인이 있다는 말이지요.

또 실제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뭐랄까, 탄력성 있고 능동성 있고 그렇게 하게 하려고 했더니 LH가 있는 지역의, 진주 지역 시민들의 민원이 커 가지고 그것도 감원을 잘 못 하는, 구조조정 못 하는 그런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 필요성 이런 건 알겠지만 실제로 개혁을 하는 건 쉽지 않다는 말이지요, 이런 여러 가지 난점이 있어서.

후보자님도 LH가 본연의 역할, 특히 주거복지에 관해서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잘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저는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잘 안 되는 부분이라는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좀 더 하셔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기존에 LH가 택지를 개발하고 또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고 그 수익금으로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를 하는 이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저는 이게 굴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굴레를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거다.

지난 21대 때 LH 직원들 구조조정 대책을 내놓고, 당시 저도 국토위원이어서 그 문제

에 대해서 참여해서 의논했는데요, 논의를 했었는데 실제 그 굴레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대통령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민간 매각을 줄이고 그다음에 민간은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LH가 어떤 택지개발 중심이 아니라 지역개발 문제에 있어서 많이 관여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축적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LH가 지역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어 주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고.

지금 여기서 선불리 말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실험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새만금개발청이 있고 새만금개발공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새만금 개발공사는 실제 LH와 같은 경험과 노하우 또 조직의 규모가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새만금 개발에 대한 여러 과정을 새만금개발공사가 담당하는 것보다는 그걸 LH와 함께 참여해서 한다면 실질적인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격적으로 진행되면서 LH의 수입원들이 좀 더 늘 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것들을 공공에 투입할 수 있다면 또 다른 재원 마련의 길이 열리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집값 문제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경기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특히 지방의 미분양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일정하게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정도의 과감한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어떤 수레바퀴와 같은 굴레 속에서 개혁만을 외친 채 구조는 바뀌지 않고 질곡 속으로 빠져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일정한 LH 직원들의 일부 모럴헤저드에 대한 질책 이런 정도에 계속 그치면서 멈추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수도권에서의 어떤 공급 대책도 마찬가지로 지방에서의 미분양 대책도 마찬가지로 양날의 칼처럼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LH와 정부가 뭔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대안을 내놓는, 공격적인 패턴을 바꿔 줘야만 뭔가 해결책이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취임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기재부, 이런 타 부처와 함께 심각하게 논의를 해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확대된다면, 결국 지방 문제는 예타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국토부나 기재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강화되고 그런 것들이 기능하고 성과를 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산재해 있다, 그중의 하나가 LH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기현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LH에 대해서 조직개편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공공성을 강화하면서도 그것이 주거복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확실히 마련해 주셔서 이번에는말로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 위원님.

○윤종오 위원 오늘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서 강도 높게 질타를 했고 대책을 주문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윤종오 위원 지금 건설현장에 한 5년간 사망사고가 엄청납니다. 한 1200명 이상 돌아가셨어요. 다친 분만 치더라도 엄청나고요. 이런 원인이 불법 하도급 문제하고도 사실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가장 큰 문제가 현재로는 일단 건설경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거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불법 다단계 하청 구조 때문에 임금 체불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또 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체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일명 똥떼기라고 하는 임금착취 구조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일단 제가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현장에 밀착해서 현장 속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그 속에서 뭔가 대안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잘못된 관행들 또 우리 사회의 굉장히 그릇된 관행들을 정리하는 것에 기초해야만 근본적으로 현장에서의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여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래서 제가 체불 대책으로 그동안 전자적 지급 시스템을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제안했었고 이것을 국토부에서 확대해 나가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LH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을 제가 월마다 보고를 받다 보니까 실제로 해 보니까 상당 부분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다 연계가 돼 있는 겁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전대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 전대를 하다 보니까 불법이니까 이분들이 임대차계약서를 안 써요. 안 쓰니까 떼이니까 받을 길이 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부실 시공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아주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불법 다단계 하청 구조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때 이게 산재 사망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제도를 좀 만드셔야 돼요, 그래도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아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래서 전자적 지급 시스템 확대 또 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화 이것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띄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비장애인들이 택시를 부르면 2~3분 안에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들이 부르면

적게는 25분—평균적으로는 그런데요—최대 대기시간이 3시간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고속버스의 경우에 휠체어 이용을 할 수 있는 차량이 1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비행기를 타려면 어느 정도 요금을 부담해야 되느냐 하면 무려 6배 정도 부담을 해야 합니다. 사실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서 언제든 원하면 이동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지금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이동권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사실은 투쟁을 하고 외치고 있거든요. 그분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할 용의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전장연은 반드시 만나서 그분들의 의견을 꼭 경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래서 좀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전세사기와 관련해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현안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윤종오 위원 하지만 신탁사기 피해나 공동담보 전세사기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의 질권 설정 문제 그리고 피해주택의 하자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 가지고 안전 문제하고 연결되는 것들이 전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 출신 장관님이 되실 텐데 정부 내에 협의기구도 제대로 만들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래 걸리지 않고 빨리 좀 전세사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냥 살펴만 봐서 될 게 아니고 의지를 좀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표현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위원장 맹성규 수고했습니다.

문진석 위원님.

○문진석 위원 후보자님,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GTX-C 착공식이 작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2028년 동시 개통을 전제로 해서 지방정부가 원인자 부담을 하기로 이렇게 약정을 맺은 사실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문진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늦어질 줄 알았으면 5차 철도망 계획에 신청할 걸 그랬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천안·아산 지역이요. 그러니까 4년 내에 국비 확보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원인자부담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렇게 늦어지니까 결국은 5차 철도망 계획까지 기다려서 그때 신청할 걸 그랬다 이런 불멘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후보자님

께서는 GTX-C의 연장에 대해서 국비 투입이 불가피하다 이런 소견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일단 더 따져 볼 문제가 있겠지만 실제 GTX-C 노선을 연장하는 문제는 굉장히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진석 위원 어쨌든 지방정부 부담을 좀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그렇지요. 다만 GTX-C 노선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어 가지고요.

○문진석 위원 예, 그래서 GTX-C 연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대로 실천이 되려면 반드시 국비 투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문진석 위원 작년에—지난 연말이지요—무안공항에서 많은, 179명이라는 희생자가 발생한 항공기 참사가 있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항공철도조사위원회를 지금 국토부 산하로 계속 두는 것이 맞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법도 발의가 되어 있고. 장관님께서도 지난 뉴스에서 확인하셨겠지만 항공철도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일단 항공철도조사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거나 관여하는 게 금기시되는 게 좋다고 해서……

○문진석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항공철도조사위가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 국토부가 전혀, 하나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발표가 되잖아요. 항공기 조종사의 잘못으로 발표가 되는데 실제 우리가 확인한 사고, 대형 참사로 이어진 원인은 로컬라이저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전혀 언급을 안 해요. 이게 바로 국토부 산하에 있는 그 태생적 한계 때문에 국토부 책임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동의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일단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항공철도조사위원회를……

○문진석 위원 뭐가 적절치 않아요? 국토부가 로컬라이저를 가지고 제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깨지기 쉬운 물체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그 구조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게 대형 참사가 된 거거든요. 동체착륙을 통해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경우는 없습니다, 항공기 사고 역사상. 그런데 무안공항에서만 그런 대형 참사가, 179명이라는, 한 분 빼고는 다 사망을 하신 그런 대형 사고가 발생한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국토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의 태생적 한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법을 국무총리 산하에 뒀야 된다, 여러 가지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을 좀 검토하고 빨리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번 준비 과정에서 항공철도조사위원회가 국무총리실로 이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런 준비 작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내부 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문진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주택공급 정책이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또는 유희지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그 방법도 물론 필요하지만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LH가 택지를 개발하면 그 택지를 민간에 전부, 거의 80~90% 정도 매각하고 땅장사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 동의하시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그런데 한 40% 정도 됩니다. 많이 보면 5 대 5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민간에 매각……

○문진석 위원 앞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 대 5 정도로 그렇게 하실 생각이라는 얘기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아니요, 현재 6 대 4 정도의 비율로 민간에 매각되고 있고요. 다만 일부 공공임대주택 부분도 민간이 시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하면 5 대 5 정도 보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문진석 위원 그런데 그 비율이 적절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던 재원 대책에 대한 전망을 세우고 공공임대 중심으로 LH가 바뀌어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진석 위원 어쨌든 LH가 땅장사 아닌 땅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시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그렇지요.

○문진석 위원 그래서 결국은 국가에서 뭔가 재정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 주택 정책은 무한 반복될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겪고 있는 주택공급에 대한 불안정 그다음에 아파트 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정책, 좀 잘못된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동의하시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적극 동의합니다.

○문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진 위원님, 생략하실래요?

○권영진 위원 아니요, 질의하기 전에 잠깐만……

○위원장 맹성규 의사진행발언.

○권영진 위원 저도 잘 몰랐는데 지금 장관님 앞에 놓고 계신 게 태블릿 PC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이거요?

○권영진 위원 예.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권영진 위원 그러면 거기 누군가가 장관님 답변하실 때 자료들을 계속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박상우 장관도 하셨어요. 박상우 장관 때도 계속하신 거예요.

○권영진 위원 청문회 때 그렇게 했습니까?

○이연희 위원 예, 그렇게 했어요.

○권영진 위원 김정재 간사님, 저거 괜찮으십니까? 박상우 장관 때도 저렇게……

○위원장 맹성규 다 하셨어요.

○권영진 위원 그래요?

○위원장 맹성규 박상우 장관 때부터 했어요.

○권영진 위원 그런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짚어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맹성규 아니, 다 하신 거예요.

○권영진 위원 김윤덕 후보자님, 오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주택이 뭔지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영구임대……

○권영진 위원 주공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단지도 상당히 많이 노후화돼서, 그래도 아파트 내부는 계속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복지서비스의 거점기관으로 사회복지관이 하나씩 있습니다. 아마 장관후보자님 지역구에도 전주종합사회복지관이 평화동에 있을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평화사회복지관 오래됐습니다.

○권영진 위원 예, 평화사회복지관요.

이 복지관들이 지금 전국에 159개가 있는데요 30년 이상 된 것만 87개입니다. 그래서 가 보면 정말 기능적으로도 안 맞고 좁고 낡고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 서비스 요구에 대응에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주민 안전에도 우려가 있습니다. 평화사회종합복지관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관후보자님, 가 보시고 그런 것 못 받으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저희 지역구에, 전주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5개가 다 저희 지역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현황을 잘 알고 있고요.

○권영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는 더 미룰 수 없이 사회복지관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추진하다가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못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설득하셔서 올해부터라도, 다 한꺼번에는 할 수는 없지만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들을 이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적극 공감합니다, 위원님.

○권영진 위원 꼭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권영진 위원 그리고 국토균형발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너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계셔서 진짜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고, 생존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정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공공기관 이전은 말씀드렸고요. 장관 임기 중에 어떻든지 간에 이제는 이전할 수 있도록 2차 이전을 꼭 서둘러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역 SOC 예타 전면 재검토하시겠다는 의지도 높이 평가합니다. 이것 기재부 설득하는 게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광주와 대구,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는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법에 예타 면제가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9월 달에 기재부가 예타 면제 결정을 해 줘야 하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것 꼭 한번 챙기셔서 특별법에 있는 예타 면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돼야 이게 설계가 들어가고 공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권영진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윤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이 지금 지지부진하고 완전히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권영진 위원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광주에 가셨을 때 범정부 태스크포스팀을, 6자 TF를 만들겠다고 하셨고 이것과 관련해서 장관님께서도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권영진 위원 그런데 아마 공무원들한테 물으면 ‘아, 그것 협의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체는 국방부와 기재부가 빠졌기 때문에 협의체로서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새로 가덕도처럼 이렇게 민간공항만 국책사업으로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군공항이 이전하는 데 민간공항이 따라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키는 국방부와 기재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2년 동안 이 대한민국 최고의 국방시설을 만드는, 군사공항을 만드는 일을 대구시로 하여금 하라고 한 겁니다. 그거 안 되는 거지요. 광주 군공항 이전 안 됩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국책사업으로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이제는 정부에서 주관하겠다고 하시면서 6자 TF 만드는 것은 정확한 방향을 잡으신 겁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문제도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권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복기왕 위원님.

○복기왕 위원 복기왕입니다.

후보자님, 사회주택이라고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복기왕 위원 그런데 이 사회주택이 문재인 정부 때는 약 5500세대가 공급이 됐는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749세대, 이것도 문재인 정부 때 준비됐던 것만 공급되고 더 이상 안 돼 있어요.

이름이 사회주택이지 어느 국토부 공무원이 ‘공동체주택이라는 이름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여기는 공급부터 이후에 입주민들의 커뮤니티까지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야말로 주거복지의 모델 중의 모델이라고 말을 할 정도로

좋은 제도인데 이것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서 앞으로 5년 동안 사회주택이 더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 줄 수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이게 현재 법적 근거가 취약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복기왕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과 함께 상의해서, 확대에 대한 의지를 장관께서 갖고 계시면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또 주택 공급과 관련되어서의 한 부분인데, 신혼부부 주택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복기왕 위원 신혼부부 주택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새집증후군이라고, 여기에 민간주택 같은 경우에는 좋은 친환경 재료들이 입혀지면서 새집증후군 문제가 줄었는데 LH에서 임대로 공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도입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신혼부부 주택이다라는 이름으로 공급되는 데에는 아이들에게 새집증후군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동의합니다.

○복기왕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국민의힘에서 어느 위원님 자료를 봤는데 매입임대사업이 대전·충남이 제일 부족해서 자료 보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인데 좀 속상했습니다. 지역 간 균형을 잘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살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복기왕 위원 조금 전에 GTX-C 노선 관련해서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 아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역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하나는 이게 환승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있다라는 이유로 해서 지역에 부담을 지우는 건데 단지 아산뿐만 아니라 부족한 지방예산, 지방에 가뜰이나 교통도 불편한데 또 재정도 어려운데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아까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관련 서류 답변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반가운지 이미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철도 분야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되는데, 현대로템 잘하고 있지요, 수출도 하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복기왕 위원 잘하고 있는데 잘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를 통한 로비가 있었다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나왔었고 그 관련된 사업들이 그동안에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했던 일까지도 현대로템에 몰아주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실질적으로 포착이 되었고 코레일과 철도공단에서 그런 사업들을 일응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그것을 전면 백지화시켜서 다시 추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템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기업 하나에게만 의존했을 때 얼마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현재 경쟁력을 갖고 있는 철도 분야의 다양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그 경쟁력을 유지한 채로 현대로템과 또 코레일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풍토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잘 알겠습니다.

○북기왕 위원 마지막으로 지난번의 시청역 역주행 사고 관련해서, 우리는 방호울타리가 사람이 차도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만 하는데 거꾸로 차가 인도로 돌진하지 못하게 하는 울타리가 있다라고 해요. 물론 이것 설치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 텐데 그런 인재를 막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지금 위상에 맞게끔 국토부장관께서 그러한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여야 간 협의 및 장내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김희정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기 전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말씀하십시오.

○김희정 위원 좀 전에 저희 간사님을 통해서 지금 국토부장관후보자가 태블릿 PC를 통해서 부처 직원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여당 위원님들 몇 분이 전임 장관도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위원장님하고 양당 간사님이 이번 인사청문회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 양해를 받으셨습니까?

○위원장 맹성규 그게 아니고요. 저번 회의할 때도 전임 박상우 장관이 활용하는 것에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회의 도중에. 그것 다 양해한 사항입니다.

○김희정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부처의 장관이 되어서 그 부처의 정책과 관련해서 감사를 받는 것은 장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부처의 수장으로서 전체의 업무에 대해서 공동책임이고 그 부처의 대표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자료를 보고 대답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후보자 개인의 역량과 전문성 그리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한 비전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어떤 양해도 없이 뒤에서 저렇게 보여 주는 자료를 가지고 대답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양당 간사가 양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국정감사 자리와 개인의 인사청문회는 엄연히 다릅니다. 아울러서 질문하는 도중에 저렇게 커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택공급이라든지 청년들의 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창피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위원장 맹성규 위원님, 문제 제기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김희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자리가 다른데 국회의 양해 없이 저런 식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관이 봤다라는 게 자리도, 물론 종류도 다르지만 전임 장관 인사청문회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맹성규 왜 아니에요?

○**김희정 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22대 때 인사청문회, 여기 있는 우리들이 21대 국회에서 양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엄연히 지금 22대 국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위원님.

○**김희정 위원** 위원장님, 만약에 그런 식으로 21대 국회에서 했던 걸 얘기를 하려면 국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서 왜 그러면 여당에게 운영위원장 자리는 안 주고 국회의장과 다른 당에게 법사위원장 자리는 안 줘니까?

○**위원장 맹성규** 여기서 왜 그 얘기를 합니까?

○**김희정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안 맞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아울러서 다른 부처 인사청문회에 커닝페이퍼가 발견이 돼서 그 장관 낙마도 했습니다, 이진숙 교육부총리.

○**위원장 맹성규** 위원님, 제가……

○**김희정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맹성규** 문제 제기하는 걸 접수를 하고요. 우리 간사님들하고 다시 논의해서……

○**김희정 위원** 박상우 장관 한 적 없답니다, 저렇게 인사청문회 때.

○**위원장 맹성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 운영을 하면서 간사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참고하시는 저걸 본 것을 논의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하는 것은, 그때 우리도 상임위에서 문제가 됐어요. 장관이 저렇게 업무하는 것 문제가 돼서……

○**김도읍 위원** 청문회 때입니까? 아니면 상임위 회의 때입니까?

○**위원장 맹성규** 그게 아마……

○**김희정 위원** 상임위 때겠지요. 청문회는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저도 확인해 볼게요.

그런데 분명히 문제가 됐어요. 공개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걸 확인을 하고 양해를 했습니다. 두 번 정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양해를 한 사항이고.

그리고 이번에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참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혀 이거 문제의식 안 가졌어요.

○**김도읍 위원** 그런데 김희정 위원님 말씀이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맹성규** 그러니까 문제 제기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면 사전에 당연히 논의해서 진행을 할 텐데 전혀 그런 문제의식이 없었다니까, 저희들이.

○**김희정 위원**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모르고 있었잖아요.

○**권영진 위원** 일단 정회를 하시고 정회하는 동안 우리 간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알겠습니다.

10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00분 회의중지)

(2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성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열한 분 계십니다.

3분씩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한준호 위원 한준호 위원입니다.

저희가 정회 전에 장관의 태블릿 PC에 대해서 지적들 하셨는데 지금까지, 원희룡 장관 때도 제가 똑같은 지적을 했어요. 김희정 위원님과 똑같은 지적을 했고 거의 내용이 유사할 정도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여당 위원이셨던 국민의힘 측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국회법에 규정된 바가 없다’ 이렇게 답을 하였고 실제 국회법을 찾아봐도 태블릿 PC와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뭐라고 되어 있다면 국회법상으로는 회의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148조인가요.

그런데 저 태블릿 PC를 방해되는 물건으로 볼 것이냐는 저희가 관례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김현미 장관 그리고 원희룡 장관, 박상우 장관, 전부 다 저 태블릿을 사용했다는 것 국토부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다만 박상우 장관이 인청 때 사용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니 박상우 장관은 인청 때 사용은 안 했으나 직후부터 저것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회법에도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금지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 먼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했을 때 분명히 국민의힘 위원님들, 그때 계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국회법에 정해 놓은 게 없다. 그리고 회의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잘 진행해 왔는데 마무리까지 좀 순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간사님, 문제를 제공한 간사님, 원인제공자……

○복기왕 위원 후보자님 갑자기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후보자 측으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도 오고 그랬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 앞의 모니터를 보면서 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제가 ‘관례대로 하면 됩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서로 익숙하게 알고 있는 범위 내의 것이겠지라고 생각하고 권영진 간사님과 충분히 상의를 다 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왔는데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저 그냥 하던 대로 하면, 그동안은 별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께서도 깜짝 놀라셨을 텐데 향후부터는 이런 자그마한 부분, 제가 간사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디까지 우리 여야가 함께 간사 간의 합의를 해야 되는지를 소홀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깊게 충실하게 상의해 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간사님들은 위원장하고 잘 협의해 주십시오.

○권영진 위원 초짜니까 봐주지요.

○김도읍 위원 아니, 문진석 간사보다 훨씬 나아요.

(웃음소리)

○위원장 맹성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간사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를 원하시는 분이 열한 분 계십니다.

3분씩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후보자님, 제가 오늘 고속도로 종단부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양평 애기가 아니고 강화 애기를 좀 하겠는데 2조 8000억 원이 드는 사업이고 총길이가 한 3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국책사업인데 그런 고속도로가 끝나는 종단부에는 보통 어떤 시설이 설치가 되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

○배준영 위원 그것도 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보통 인터체인지가 설치가 되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배준영 위원 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법 제31조에는 ‘교차시키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배준영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2020년 예타를 통과시키고 나서 중간에 잊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PPT를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고속도로 종단부가 보시는 바와 같이 회전교차로 형식으로, 오른쪽 그림 보시면 회전교차로 형식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왼쪽 그림, 죽 가다가 만나는 지점에 원래는 인터체인지로 왼쪽과 같이 되려다가 그냥 회전교차로 양식으로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기흥 애기를 좀 해야 될 텐데 기흥고속도로 톨게이트가 끝나는 회전교차로에 강화와 같이 이렇게 1차선 왕복도로가 있다 보니까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4차선 고속도로가 이런 회전교차로에서 만나면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사진을 보니까 좀 심각해 보였습니다.

○배준영 위원 제가 챙겨 보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것 좀 개선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개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까 공급대책 말씀을 드렸는데 공급대책에 관련해서 재건축·재개발 위주로 하신다 그러는데 제가 좀 챙기고 싶은 부분이 서울시에서 재건축·재개발에 18년 걸린다고 하는 것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배준영 위원 그런데 13년으로 줄인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장관님 재임기간이나 이 정권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더 간단하고 빠른 방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를 낮춰서 거래를 빨리한다든지 다주택자들에게 출구전략을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일체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게 단기적으로 오히려 유효한 방법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일단 국토부 차원에서 검토된 건 세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부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배준영 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의견이.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저는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시키는 데 또 공급대책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는 그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것 10년 정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배준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배준영 위원님이 얘기한 도로 이름이 계양-강화 고속도로인데요 그것 한번 별도 보고받아 보시고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다음, 염태영 위원님.

○염태영 위원 제천·단양의 염태영이 아니라 수원무의 염태영입니다.

오늘 회의 중에도 엄과 염이 조금씩 발음이 불분명해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데 이렇게 이름이 비슷한 사람 두 사람이 앉아 있게 돼서 유감입니다. 저는 늘 배우겠습니다.

GTX-C 노선 아시지요? 오늘 여러 차례 나왔어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염태영 위원 정말 경기도민에게 중요한 사업인데 2028년도 개통 목표였는데 아직 첫 삽도 못 뚫습니다.

이유는,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9년 12월 기준으로 4조 6000억인데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건설물가가 아닌 소비자물가를 고려해서 사업비를 증액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2021년, 2022년 이때 소비자물가 대비 건설물가가 급증했습니다. 이를 보면 소비자물가가 8.9% 상승했는데 건설물가는

22.5% 상승했어요. 이런 식으로 소비자물가를 반영하면 공사비가 5조 3000억이 되지만 건설물가를 고려하면 총사업비가 5조 7000억, 4000억이 늘어나고요. 여기에 실제 원자재 가격을 반영한 건설공사비지수를 사용하면 6조 원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시공비가 인상돼서 안전과 품질이 우려된다 하는 말이 지적되고 있었고요. 그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구윤철 부총리가 관계부처 협의를 해서 물가 특례를 보완해 줘야 된다는 질의에 대해서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국토부장관님께서는 그런 입장에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동의합니다.

○염태영 위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완공 시점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염태영 위원 다음, 하나 더 하면 경기남부철도 얘기입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올해 연말에 끝나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경기남부지역, 성남 용인 수원 화성에 이르는 450만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광역철도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못 들어가면 10년 이상 또 늦춰지기 때문에 꼭 관심 갖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경기남부지역 전체가 요구한다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꼭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꼭 이것은 하나 드려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각종 압박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21일 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하던 국토부 항공관제사 한 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염태영 위원 아마 관제사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이런 이유는 단 한 번의 실수가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것은 목숨이 달린 얘기라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네요.

○위원장 맹성규 마무리하세요.

○염태영 위원 24시간 공항을 지켜야 되고, 그런데 항공 교통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해당 시설을 담당할 관제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절박하게 삶을 내려놓고 호소했던 것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항공관제사들의 처우 개선이라든지 근로조건 개선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한 사람의 목숨을 건 이런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이제 사후약방문이라도 꼭 좀 이 부분을 장관님께서 개선시키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잘 알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후보의 충북지역 제1호 공약이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인 것 알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이연희 위원 청주국제공항이 작년에 이용객 수가 450만을 돌파했고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이유는 전국의 중심인 지역적 이점, 지리적 이점이 있고 그리고 사통팔달의 여러 가지 교통 여건들이 구축되면서 청주국제공항은 충청권 뿐만 아니고 수도권에서도 한 32% 이용을 하고 영남권, 호남권에서 다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군공항으로 같이 이용하다 보니까 슬롯이 포화 상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7차 공항개발 중합계획에 반영이 될 텐데 문제는 이게 속도가 문제입니다.

특히 지금 행정수도가 완성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회세종이사당이 2032년에 완성이 되고 대통령집무실도 준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수도의 관문 공항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하려면 현재의 청주공항 수준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현재 국토부의 절차대로 하면 이게 2027년부터 예산이 반영돼서 사전 절차에 한 5년 그리고 공사에 한 5년 이렇게 해서 10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2037년에 완공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시간을 당겨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에 지역에서도 많은 요청들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또 이번에 대통령의 충북지역 1호 공약으로 채택이 돼서 반영이 됐는데,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과제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께서 이 부분이 속도가 날 수 있게, 예를 들면 올해 예산부터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서 이것이 시간이 최대한 당겨질 수 있도록, 특히 행정수도의 관문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그 기간을 단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장관께서 의지를 가지고 청주국제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을 좀 얘기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리고 잠깐 시간이 남았는데 LH의 공공분양 문제, 공공임대를 분양으로 전환할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분양가가 시세보다 20~30%가 비싸서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다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지금 그런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를 들었습니다.

○이연희 위원 마무리할 테니까 한 30초만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다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실제로 LH 공공임대가 공공성을 중시해서 한 사업인데 실제 분양으로 전환할 때는 시세보다 훨씬 비싸서 서민들이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이게 국토부의 시행령에, 감정가 기준으로 한다는 그 시행규칙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필요하다면 그것을

변경해서라도 서민들이 공공임대 분양으로 전환하는 데 고비용, 많은 비용이 드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방향을, 그 해결 방안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방법을 찾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다음, 윤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옥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후보자님, 작년 말 기준으로 LH 부채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재옥 위원 모르겠어요?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부채가 160조고요 2028년에는 부채가 227조까지 늘어날겁니다.

그런데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앞으로 택지 매각 수익까지 줄어들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점점 부채가 더 늘어날 텐데 무슨 재원으로, 송기현 위원도 지적했습시다마는 주거복지 사업을 무슨 돈으로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재원 문제도 따져 보면서 개혁을 하려면 하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맞습니다.

○윤재옥 위원 지금 LH의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 중에 골치 아프고 민원 발생 소지가 많은 일이 생기면 LH에 떠넘기는 관행부터 없애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LH의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한 업무들,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 놓고 회사 경영이 악화됐니 조직이 비대화됐니 내부 통제가 결여됐니 이런 지적질만 하고 있어요.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떠넘기면서 LH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게 무책임하게 보여요. 이런 문제를 따져 가면서 LH 개혁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문제는 사실은 광주보다 훨씬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부지도 선정이 되고 다 됐는데 지금 하나 남은 게 뭐냐 하면 재원 문제예요, 재원.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재원?

○윤재옥 위원 예, 재원 문제. 이게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왜냐면 지금 10조 넘는 돈을 빚을 내 가지고 공사 착공할 수도 없고 또 빚을 낼 경우에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면 그 이자에 대한 대책은 아무런 언급이 없는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 아무런 지원도 없고. 그런데 이자 금융 비용까지 부담하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범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또 자꾸 규정만 따지거든요. 그거 안 된다 그러지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어찌 합니까? 가덕도신공항 같은 데는 재원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은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건설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거지 돈 문제는 적어도 신경 안 쓴다는 말이에요, 부산에서.

그런데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군위까지, 경북에서 대구로 이전하고 부지도 선정하고 화물터미널도 내용이 합의가 다 되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이 문제라서 지금 안 되는 거니까 정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주처럼 대통령실에서 직접 챙기는 TF를 만들어야 이 답을 찾을 수 있다. 부처 간에 맡겨 놓으면 또 옥신각신 언제 될지 모르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점식 위원님.

○정점식 위원 후보자님!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정점식 위원 제 지역구가 경남 통영입니다.

통영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통영 자주 가 봤습니다.

○정점식 위원 감사합니다, 통영을 방문해 주셔서. 남부내륙고속철도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그렇게 여쭙어 봤습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2019년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028년 하다가 다시 지금은 2030년으로 준공 시기가 늦추어졌습니다.

그게 팬데믹 이후에 공사비가 굉장히 급증을 하면서 재정사업 평가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걸 평가 후에 다시 시행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예산이 6조 6900억 정도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6300억 정도가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2030년 기준으로 하면 1년에 거의 1조 정도의 예산이 배정이 되어야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통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도로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 한 4시간 20분 정도 걸리고 그 외의 방법은, 저 같은 경우에는 김해공항으로 갔다가 거기서 1시간 30분 걸려 가지고 차량으로 지역구로 이동을 하는데 그만큼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지역이 굉장히 낙후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남 동부지역인 여수 같은 경우는 KTX가 지금 개통이 되었지 않습니까, 엑스포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서부경남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결국은 남부내륙고속철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께서 만일 장관님이 되신다면 이 사업에 대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리고 지금 후보자님, 국도5호선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정점식 위원 국도5호선이 현재 중강진부터 시작해서 경남 창원, 거제를 거쳐서 통영까지 이렇게 왔다가 이번 7월 달에 통영을 거쳐서 남해안 섬들을 연결하는 해상국도를

통해 가지고 경남 남해군까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축에 한산대첩교,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아시지 않습니까? 통영과 한산도를 연결하는 그런 해상국도교량건설사업인데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남부내륙고속철도와 한산대첩교 건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국회의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의원, 통영시, 대통령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 공약으로 채택했던 거니까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정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이종욱 위원 후보자님 수고하십니다.

모두발언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3특 체제를 굉장히, 경제생활권 육성에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교통망이 중요하고 특히 철도망 구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이종욱 위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제 지역구 창원 이야기인데요. 창원은 인구 100만, 비수도권에 있는 유일한 인구 100만 특례시입니다. 그래서 지방 거점도시 중에서 문제가 유일하게 서울까지 3시간 이상 걸립니다. 물론 옆에 정점식 위원님이 통영은 4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100만 이상 도시치고는 굉장히 많이 걸리고 특히 광역철도도 하나도 없고 해서 철도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창원 지역에 보면 가덕도신공항도 바로 옆에 있고요 진해신항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수행되고 있어서 이 철도망 구축이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서 국가균형발전 내지 국가 물류망 구축을 위해서 필수적인 그런 인프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덕도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 이렇게 대통령도 말씀하셨는데요. 진해신항은 올해 착공합니다. 그래서 국책사업들이 속속 추진되고 있는데 연계 철도망 구축은 아직까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립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하실 때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하는 사업하고 진해신항하고 또 가덕도신공항을 연결하는 CTX-진해선, 이게 5차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다른 통합시 때문에 좀 제도가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인데 마산·진해·창원이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 이전에는 각각 시였기 때문에 시군 간 혼잡도로 지원을 국토부 중앙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통합시가 되

면서 이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있어서 여러 차례 그 타당성은 인정이 되지만 수도권에 있는 다른 대형 통합시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제도개선을 같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인천국제공항 5단계 공사와 관련된 겁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5단계 확장은 정말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국제선 총수요에 가덕도공항을 비롯해서 여타 공항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단계 확장 사업은 반드시 수요를 면밀하게 산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추진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동의하십니까, 후보자님?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항공 수요라든가 또 지역균형발전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이번 제7차 공항개발 세울 때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해수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본격적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해수부 이전뿐만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 이전도 함께 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큰 틀에서 전체 공공기관의 이전 문제를 다루는데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은 따로 별개로 추진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미 전례가 많고요.

지금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해당 공공기관에서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해수부장관에게 보내면 해수부장관이 이걸 검토해서 국토부장관님께 제출을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국토부장관이 승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곧 해수부를 통해서 이전계획이 아마 국토부로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게 되면 장관이 되신다면 반드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신속하게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이 부산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대통령님의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여튼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김정재 위원님.

○김정재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저도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영남권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유일한 건설 프로

젝트 영일만대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일만대교 혹시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들어 봤습니다.

○김정재 위원 들어 보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김정재 위원 사실은 올해 예산이 1821억 원이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추경 때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지만 국토부는 반드시 국책사업으로 또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2008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30대 프로젝트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일만대교라는 명칭이 영일만을 횡단한다라는 걸로 정해진 것이 문재인 정부 때 2019년 국토종합계획 그리고 2021년의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22년의 2차 고속도로 계획 등등에 영일만 횡단도로, 횡단대교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오다가 이번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에 후보 시절에 포항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이 영일만 횡단대교 적극 추진이라는 현수막도 내거시고 공약집에도 현재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 아시겠지만 교통·물류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또 관광 수요 창출 이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신성장 동력 역할도 하리라고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벌써 다 되어, 17년이나 지났거든요. 그래서 장관님이 되시면 꼭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을 꼭 좀 반영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신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잘 알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그리고 1분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또 하나 부탁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 있습니다. 여기 시행령을 보면, PPT 띄울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88조 보면 주요 시설물이라고 범위를 정해 놔습니다, 주요 시설물. 그런데 여기의 단서 조항에 공동주택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공동주택은 주요 시설물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사실 주요 시설물이 되면 건설에서 품질도 관리하고 또 사후 점검도 하고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 주체도 굉장히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주택, 아파트지요. 수백 수천 세대가 거주하는데 이게 주요 시설물로 간주되지 않다 보니까 요즘 최근에 잇따른 공동주택의 하자 논란이나 부실시공이나 요즘 뭐 무너지고 많은 사회문제가 되는 그런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실 안전성과 또 공공성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주요 시설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책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관 되시면 이 시행령 제88조 단서 개정을 할 수 있

는지 한번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꼭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양-강화 종점부 교차로 개선방안 말씀하신 것처럼 영일만대교도 포항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다음, 김희정 위원님.

○김희정 위원 김희정입니다.

후보자님, 늦게까지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가덕도신공항 관련해서 장관님의 의지를 밝혀 주신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만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민주당 김정호 의원 같은 경우가 국정기획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는데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전면 수정 건의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을 해서 같은 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명확하게 잘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면 재수정 없이 원래 날짜대로 잘 지정되게 하기 위해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아예 기존 계획대로 하면서 국정과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애써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경남 지역 민주당 의원님들과 의 간담회를 진행할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부산 지역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의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이번 부산 타운홀 미팅에서 보여 주셨듯이 이 가덕도를 반드시 하겠다 또 일정 내에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김희정 위원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국정과제에 포함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그다음에 참여 기업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준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련을 좀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김희정 위원 너무 무책임하게 특정 대기업이 엄청나게 잘못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김희정 위원 그리고 이 고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 고시, 지금 화면에 띄웠는데요. 한국산업은행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문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라고 국토교통부장관 명의로 고시문이 뜬 바가 있습니다. 해당 부처를 맡게 되신다면 잘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이것은 좀 고민해서 꼭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왜, 이미 전임 국토부장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중립적인 국토교통부장관 이름으로 고시문이 뜬 건데 왜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제가 일단 산업은행 이전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번 해수부 이전을 하고 해수부 이전 관련해서 연구기관이라든가 그와 관련된 기업도 이전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김희정 위원 저는 산업은행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런 말이 아니라 과거에 진행했던, 약속했던, 공문으로 남아 있던 부분에 대해서 후임이 얼마만큼 책임 있게 하느냐의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리고 해수부가 옮길 때 역시 해양수산과 관련돼서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세종에 남아 있는 세 기관 그리고 서울에 남아 있는 3개 기관, 관계 산하기관도 함께 옮겨야지 해양수산 관련된 업무의 효율성을 이룰 수 있고 국토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 위원님.

○윤종오 위원 오늘 청문회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고요.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진상이 규명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가족들이 국토위 회의장까지 오셔서 호소하고 가셨거든요.

오늘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한데 영국 같은 경우도 항공사고조사국에 유가족들을 위해서 사고설명담당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직제를 분명하게 좀 해서 정식적인 직제로 이 참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두어서 좀 정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유가족을 대하고 또 유가족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건 단순히 실무적인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상당히 중요한 전문적인 업무로 접근되어서 이 문제를 담당하고 풀어 갈 담당 주체를 반드시 설정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감사합니다.

오늘 코레일하고 SR 통합 관련해서요. 이것 대통령 공약사항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윤종오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이미 국토부에서 네 차례 연구용역도 했고요.

지금 저는 공공서비스를 이렇게 경쟁시키는 것, 시스템 도입 단계부터 첫 단추가 저는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 지금 철도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수년간 이어온 통합 논의 이제는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되었다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이라든가 또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일단 교차운행 등과 같은 현실적으로, 그 논의만 하고 있고 어떠한 변화도 없는 그런 상태를 벗어나서 뭔가 좀 실질적인 것들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통합 문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재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종료하기 전에 후보자님께 몇 가지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27 대책 관련해서 필요한 이주비 대출이 제한되고 실수요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책 보완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확대 측면에서도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 8·8 대책에 따른 수도권 신규 택지 5만 호 공급,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시차를 단축하는 노력이 역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서는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 강화와 함께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금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 역시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주택공급 정책을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세사기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최우선 변제제도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라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3년 전세사기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회적인 재난이며 국가가 임차인 보호라는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특별법 제정 및 개정을 통해 피해자 구제에 앞장서 왔지만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다수의 임대차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전세사기 재발방지를 위한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를 통해 협회 차원에서 소속 중개사에 대한 감독과 징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재 공인중개사 공제 기능을 강화해서 소비자가 일정 비용을 추가 부담하더라도 더 안전한 거래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질서교란행위를 인지한 공인중개사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공인중개사의 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몰수 범죄 대상에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범죄를 포함시키는 등 전세사기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입니다.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국토부가 직접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턴키방식에 대비해서 추가로 7개월 정도 더 소요가 되지만 정부가 직접 적정 공기와 비용을 산출할 수 있어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바람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 추진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물안전운임제 관련입니다.

화물안전운임제는 운수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와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운임제 재시행에 대해 일정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제도가 뒤로 가는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지난번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사각지대 등을 확인하고 보완해 실효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제도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 차원의 독립적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즉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공항 공사대금 미지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4단계 확장구역이 지난해 12월 운영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에 대한 공사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사실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보고는 간단히 받았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이 문제는 공항공사가 개항 일정을 무리하게 맞추기 위해 참여 건설업체에 정식 계약변경도 없이 추가 공사를 먼저 진행하도록 지시해 후속조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9월 내에 최종계약변경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해결이 더욱더 어려워지게 된 상황입니다. 관급공사에 참여해 발주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한 업체들이 폐업 위기까지 겪는 상황에 대해 후보자가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을 하고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이상입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종료하기에 앞서 공직후보자께서는 간략하게 마무리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 김윤덕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 위원 여러분!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을 대표해서 해 주신 말씀에 대해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은 국토교통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려고 노력했지만 답변 중 부족함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여야 협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청문회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함께 국토교통 분야의 정책 현안에 대해서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후보자 검증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청문회에 임해 주신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여야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한 사항 등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일주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내일 10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직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2분 산회)

○출석 위원(30인)

권영진 김도읍 김은혜 김정재 김종양 김희정 맹성규 문진석 민홍철 박용갑
배준영 복기왕 손명수 송기현 신영대 안태준 엄태영 염태영 윤재옥 윤종균
윤종오 이건태 이연희 이종욱 전용기 정점식 정준호 천준호 한준호 황운하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전문위원 임종수

입법심의관 남궁인철

○출석 공직후보자

김윤덕

【보고사항】

○의안 회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8.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8.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8.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8.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6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8.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8.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5)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8.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86)

이상 7건 7월 21일 회부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1.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07)

7월 22일 회부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2.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2.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23)

이상 2건 7월 23일 회부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6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166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3. 권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6)

이상 4건 7월 24일 회부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37)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5.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3)

이상 5건 7월 28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17.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26)

7월 2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7. 18.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63)

7월 2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2025. 7. 21.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3)

7월 2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